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92호 HYUNBULNEWS.COM 2026년 9월 2일(음력 7월 21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피땀 어린 훈련이 무한한 기쁨 되길"**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열리는 제20회 아이치 ·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조계종이 8월 26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하우스 1층 법당에서 선전기원법회를 봉행하고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과 안전을 기원했다. 사진은 법회 직후 포교부장 정무 스님, 체육인 전법단장 무경 스님과 불자 선수 50여 명이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 글 · 사진=유재상 충청지사장

# 총무원장 선거, 경우 · 진우 스님 양자대결

**정념 스님 8월 24일 사퇴 발표**
**선관위 비판…"경우 스님 지지"**
**진우 스님 "정념 스님 공약 계승"**
**24개 교구 선거인단 선출 완료**
**호법부 "위법행위 책임 물을 것"**

신중일 · 김내영 기자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 기호 2번 정념 스님이 전격 사퇴함에 따라 총무원장 선거는 기호 1번 경우 스님과 기호 3번 진우 스님의 양자 대결로 좁혀졌다.

정념 스님은 8월 24일 발표한 사퇴 입장문을 통해 "사부대중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은 저에게 더할 나위 없는 경책이자 희망이었으나 그 뜻을 끝까지 받들지 못하게 된 저의 부족함에 대해 종도 여러분 앞에 고개 숙여 깊은 참회의 삼배를 올린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시대 새로운 불교 리더십으로 종단의 새 이정표를 만들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음을 회고한 정념 스님은 "현재의 간선제 구조, 제한된 선거인단 방식은 대중의 공의(公議)를 담아내기에 너무도 한계가 자명하다"고 지적하며 "선거인단이 대폭 확대되거나 대중의 공의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제도적 개혁 없이는, 우리 종단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퇴 배경에는 지난 8월 19일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전원 자격 이상 없음' 결정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정념 스님은 "후보 자격과 관련해 명백하게 객관적 사실과 증거로 드러난 사안임에도 이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일방적인 면죄부를 부여한 선관위의 행태는 역설적으로 종단개혁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저의 사퇴로 종단의 선거 및 후보검증 시스템에 경종을 울리고 종권 교체의 필요성을 사부대중이 각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념 스님은 경우 스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후보직을 내려놓지만 함께 출마한 기호 1번 경우 스님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다"고 전한 정념 스님은 "경우 스님이 반드시 종권 교체를 이뤄내 이 낡은 종단 시스템을 혁신하고 AI시대 새로운 불교발전을 만들어내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정념 스님의 사퇴에 공식입장을 밝힌 후보는 진우 스님이다. 경우 스님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진우 스님 선거대책위원회는 8월 24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념 스님의 중도 하차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부대중 모두의 목소리를 경청해 함께 걷고자 했던 정념 스님의 원력을 수렴해 불교 중흥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념 스님이 제시한 △수행을 통한 종단 신뢰 회복 △대중과 함께 결정하는 공의의 종단 △중앙 권한의 교구 이양 등을 언급하며 "이런 좋은 공약들을 진우 스님 선거대책위원회가 계승해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총무원장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진우 스님 선대위는 "현행 간선제에 대한 정념 스님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다"며 "추대제부터 직선제까지 사부대중의 공의를 모아 승단의 전통과 종단의 위상에 부합하는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제38대 총무원장을 선출할 선거인도 선출됐다. 8월 19일 선운사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전국 24개 교구본사에서는 총 240명의 교구 선거인을 선출했다. 여기에 중앙종회의원 81명을 더해 총 321명의 선거인단이 구성됐다.

이들 스님들은 오는 9월 3일 오후 1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8대 총무원장을 투표를 통해 선출하게 된다.

선거인단 선출이 마무리된 직후부터 후보 스님들은 전국 교구본사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경우 스님은 8월 21일에는 봉선사와 월정사, 26일에는 백양사·마곡사·용주사를 잇달아 방문했다. 경우 스님은 "현장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변화와 방안 마련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봉선사·범어사·통도사·불국사·직지사·동화사를 차례로 방문했다. 진우 스님은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종책"이라며 "제안받은 의견을 향후 종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계종 호법부는 8월 21일 호법부장 도심 스님 명의로 발표한 담화문에서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비롯한 종헌·종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호계원에 징계를 요청하고, 9월 3일 총무원장 선거가 끝난 뒤에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 "전법부터 기후위기까지 현장 중심 종단 되길"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기획
⑥ 38대 집행부에 바란다

특별취재팀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차기 집행부에 거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불교계 각 단체 대표자들은 이번 선거가 한국불교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기원했다.

이를 위해 중앙에서 종책을 결정하고 현장에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이를 종책에 반영하는 소통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을 치유하고 사부대중의 화합을 회복하길 당부했다.

### 지속성 · 현장성 강화

단체 대표자들의 공통적인 요구는 종책의 지속성과 현장성 강화다. 단발성 행사 후 지원과 관심이 사라지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대응이 대표적이다.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은 종단이 기후·생태 문제를 핵심 종책으로 설정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찰림 보호 방안 마련과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 문명이 가져올 생태적 영향에 대응할 불교적 환경 윤리 마련을 주문했다.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을 위한 종책도 마찬가지다. 한국다문화불교연합회장 담마끼띠 스님은 "최소 10년 이상 학업과 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장기 종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역시 장애인 불자들이 수행과 포교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종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 청년을 '대상' 아닌 주체로

청년 전법 활성화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종책이 마련돼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직장생활과 결혼, 육아 등 청년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신행환경을 마련하고, 청년불자 네트워크와 청년회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길수 대한불교청년회장은 단기적으로는 청년회 실태 조사, 중기적으로는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장기적으로는 청년들이 종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때 청년불교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민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은 "청년 전법 활성화의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보다 많은 청년들의 삶 속에 함께할 수 있도록 종단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은 "차기 집행부는 '불교를 알려주는 전법'에서 '불교와 함께 아픈 세상을 바꿔나가는 전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 신도조직 전문화 · 활성화

포교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는 일도 차기 집행부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우리 사회 다양한 현장에서 전법이 이뤄지는 만큼 포교사와 지도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의수 조계종 포교사단장은 "디지털·AI 포교 인프라 구축 및 포교부와의 실천적 파트너십 강화, 지속가능한 인재 양성 토양 마련"을 주문했다.

### 갈등 치유하고 사부대중 화합해야

무엇보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종단 내부의 갈등과 대립을 치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선거 과정에서 비롯된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사부대중의 화합과 소통을 통해 종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면에 전문 게재〉

아름다운동행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보리가람 10년의 기적' ① 13면

120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 동국대학교 120주년

동국 120년을 넘어
미래 100년으로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화쟁형 인재 양성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동국대학교

2027학년도 수시모집
2026.09.09.(수) 10:00 ~ 09.11.(금) 17:00



# “종헌·종법 개정안, 절차 따라 심의”

**태고종 법규위, 8월 24일 입장문**
**원융회 문제 제기에 “자료 왜곡”**
**연임제·선거제도 개편 등 심의**
**“폐기 내용으로 종회 상정 없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태고종 법규위원회(위원장 지공 스님, 이하 법규위)가 총무원장 연임제 개헌 등이 담긴 종헌·종법 개정안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거친 심의 대상”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최근 원융회(회장 일로 스님)가 제기한 우려에 대해서는 “개정안은 확정된 법률이 아니라 ‘종도발안제’에 따라 각 교구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초안”이라며 사실 관계를 바로잡았다.

법규위는 8월 24일 ‘종헌·종법 개정안에 대한 법규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개정안이 정상적인 입법 절차에 따라 중앙종회 심의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법규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종도발안제’에 따라 각 교구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초안이다. 이후 법규위원회와 중앙종회 상임분과위원회가 광범위하게 제출된 회의자료 가운데 △연임제 개헌 △지방종무원장선거법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상설화 등 3개 안건을 선정해 심의·의결했다. 해당 안건들은 4개 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중앙종회의장에게 보고됐다.

법규위는 “법규위원회에서 확정한 최종 개정안에는 당초 초안에 포함됐던 부칙의 경과조치 조항이 삭제됐으며, 이를 반영한 수정안이 중앙종회에 이송돼 상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안 단계의 회의자료를 확정된 개정안인 것처럼 받아들이거나 이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며 “정당한 입법 과정을 무시하고 초안 단계의 회의자료를 왜곡하는 행위는 종무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임제 개헌에 대해서도 “종단 발전과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연임제 논의는 제15대 중앙종회와 제27대 집행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검토돼 온 사안으로, 종단의 오랜 관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종도들의 공의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법규위의 설명이다.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지방종무원장선거법 개정안은 연임에 출마하는 종무원장이나 지방종회의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중 권한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상설화는 지방종회의원 선거를 종무원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임기가 보장된 독립적인 지방선거관리위원장이 주관하도록 해 선거관리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규위는 원융회가 최근 종도들에게 배포한 유인물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법규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초안 단계의 내용을 원융회가 마치 확정된 것처럼 주장해 종도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원융회가 문제 제기한 10여 개 항목에 대해서는 “이미 폐기된 내용이며 중앙종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규위는 “금번 종법 개정안은 종단 발전과 공정한 종무행정 확립을 위해 정상적인 입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의심과 주관적 주장을 거두고 종단의 미래를 위한 생산적인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9월 16일 열릴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심의될 예정으로, 최종적인 개정 여부와 내용은 중앙종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후보 스님들, 기후위기 대응 종책 ‘공감’

**8월 26일, 불교환경연대 답변 공개**
**경우 스님, ‘교육’ 종법령 개정 추진**
**진우 스님, 기후대응전담부서 설치**


경우 스님


진우 스님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들이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 스님)가 제안한 ‘기후위기 대응’ 7대 종책 과제에 공감의 뜻을 밝히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불교환경연대는 8월 26일 “기호 1번 경우 스님과 기호 3번 진우 스님에게 전달한 ‘기후위기 시대 대응을 위한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정책 제안 및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불교환경연대는 8월 16일 각 후보에 △‘기후·생태위기 대응 불교계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2045’ 로드맵 수립 △교구본사별 재생에너지 설치 확대 △녹색사찰 인증 제도 도입 △사찰림 공익 가치 증진 △AI시대 불교적 환경 윤리 정립 △기후위기 시대 불교적 수행의 7대 종책 과제를 제안했다.

불교환경연대가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경우 스님은 총무원 사회부와 환경위원회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생에너지 설치 확대와 녹색사찰 인증 제도 도입을 위한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찰별 탄소 배출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2045’ 로드맵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종법 개정을 통해 일상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스님·신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 기후위기 내용 수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불교계 전반의 인식 전환을 이끌겠다는 의미다.

진우 스님은 사회부 내 기후대응 전담 부서를 별도 설치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고, 교구본사 환경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예산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단 차원의 ‘탄소중립 2045’ 계획뿐 아니라 교구본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특히 진우 스님은 사찰림 관련 현안을 주요 종책 공약으로 꼽았다. 사찰림의 공익 가치 증진과 수행 공간 보호를 우선순위로 삼고, 산림 치유와 명상 프로그램까지 기획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현희 기자

# 천태종 교육부장에 광언 스님 임명

**8월 20일, 일부 인사 단행**


광언 스님


경혜 스님

천태종이 총무원 교육부장에 광언 스님을, 경주 청강사 주지에 경혜 스님을 임명했다.

천태종은 8월 20일 광언 스님(횡성 광제사 주지)과 경혜 스님(총무원 교무부장) 등 총무원과 말사 주지 일부 인사를 단행하고 사령장을 수여했다. 교육부장 광언 스님은 불교천태중앙박물관장도 겸임한다.

이와 함께 교무부 의전국 부책임부전에 용덕 스님, 부전에 수종 스님, 기도실에 덕일 스님, 사회부 복지국에 성공 스님, 영농국 과장에 상력 스님, 재무부 회계국 국장에는 무성 스님, 제등국 국장에 정명 스님, 감사원 국장에 자운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임은호 기자

# 네팔 홍수 피해에 애도·위로

**조계종·진각종·태고종, 8월 27일**
**“신속한 구조…일상 회복” 기원**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불교계가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정문 스님은 8월 27일 입장문을 내고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큰 아픔을 겪고 있는 네팔에 깊은 위로와 격려를 전한다”며 “네팔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신속한 구조와 구호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산하기구인 사회복지재단과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긴급구호를 위한 모금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문 스님은 “한국 불교의 자비의 손길이 상처받은 네팔 곳곳을 정성껏 어루만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긴급구호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종단 차원의 역할을 모색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8월 26일(현지시간) 대규모 홍수로 네팔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 사진 출처=네팔TV 페이스북

같은 날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애도문을 통해 “대자대비 부처님의 보살핌과 전 세계 불자들의 인연공덕, 각국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신속하고 충분한 구호와 구조활동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태고종도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태고종은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들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정부와 관계 기업은 애타게 소식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현지 상황과 구조 진행 경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 경우·진우 스님도 희생자의 극락왕생과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발원했다.

경우 스님 선거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 종교계와 민간단체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피해 지역의 긴급 구호와 의료 지원, 식수와 주거 지원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복구와 재건 과정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도 입장문을 통해 “국적과 인종은 달라도 생명의 소중함에는 차이가 없다”며 “희생된 모든 영가가 평안하고, 실종자들이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며, 네팔 국민이 하루빨리 아픔을 딛고 평안한 일상을 되찾길 두 손 모아 발원한다”고 기도했다.

앞서 8월 26일(현지시간)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160여 명이 사망하고 외국인을 포함해 48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한국인 9명도 연락이 끊긴 상태다.

임은호·김내영 기자

# 법화종 총본산 안정사 의상암 소실

**8월 20일 화재로 4개 동 전소**
**현장점검…종단 차원 대책 마련**


화마를 피한 의상암 산령각.
사진 제공=법화종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장 관효 스님) 총본산 통영 안정사 산내암자인 의상암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웅전을 비롯한 주요 전각이 소실됐다.

안정사(주지 원담 스님)에 따르면 8월 20일 오후 3시 20분께 통영시 광도면 벽방산에 자리한 의상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로 건물 5개 동 가운데 대웅전과 칠성각 등 산령각을 제외한 4개 동이 전소됐다. 내부에 있던 불상과 탱화, 현판, 법구와 비품 등도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행히 화재 당시 의상암에는 상주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불길이 벽방산 일대 산림으로 확산되지 않아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피해도 막았다.

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의상 대사의 수행전승이 깃든 도량이 큰 피해를 입어 비통한 마음”이라며 “관계 당국의 원인 조사와 피해 수습에 적극 협조하고 의상암의 법등을 다시 밝히기 위해 종단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제9회
2026. 10. 10 음 8.30
토요일 오후 3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홀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三歸依戒五戒

전계대화상 선응지현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상임위원, 관음사 회주)
갈마아사리 심산법미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3대 회장, 홍법사 주지)
교수아사리 원허효명 대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4~5대 회장, 혜원정사 회주)
존증아사리 목종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대광명사 주지)
도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상임위원, 관음사 선덕)
하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수석부회장, 미타선원 원장)
지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내원정사 주지)
정관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부회장, 원오사 주지)
덕림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재무국장, 해동용궁사 주지)
성광 율사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문화국장, 국청사 주지)

수계비 1인 5만원 복장 (상의)흰색, (하의)편한바지

주최·주관
대한불교조계종부산연합회
문의 : 사무국 051) 501-7554

행사 당일 YouTube 라이브로 생중계됩니다.
시청 방법
1.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YouTube’ 검색 후 설치
2. 검색창에서 ‘부산불교방송’
또는 ‘제8회 삼귀의계오계 수계대법회’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명진 스님, 영원한 대자유의 길로”

**8월 25일, 봉은사서 종교사회장**
**종교·문화예술·시민 대거 참석**
**“개혁과 포용의 정신 이어가겠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명진 스님의 영결식이 8월 25일 서울 봉은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종교시민사회장으로 엄수됐다. 불교계를 비롯해 종교계와 문화예술계, 시민사회 인사들이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수좌 명진! 수좌 명진! 수좌 명진! 수좌 명진이 종단 울타리를 넘어 사회의 거리를 노닐다 영원한 대자유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어두운 거리에서, 노동 현장에서, 녹슨 철조망 위에 당신이 있었으니 그 어느 곳이 선방이며 그 어느 곳이 저잣거리입니까. 우리도 불퇴전의 기세로 오직 부처의 길 묵묵히 이어가겠습니다.”

출가 이후 철마다 선방에서 정진했던 수좌이자 민주화운동과 종단 개혁에 힘쓰며 사회적 약자들의 곁에서 위로와 연대에 함께한 명진 스님. 수행과 불교의 사회적 실천에 앞장서 온 명진 스님이 이제 그 모든 발자취를 뒤로하고 적멸의 길로 나아갔다.

명진 스님의 영결식이 8월 25일 서울 봉은사에서 종교시민사회장으로 엄수됐다. 이날 영결식에는 불교계를 비롯해 종교계와 문화예술계, 시민사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영결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정문 스님과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 경우·진우 스님,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 기본선원 조실 영진 스님, 전국선원수좌회 상임대표 불산 스님, 문도 스님들을 비롯해 함세웅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고문,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전재수 부산시장, 세월호 유가족 등이 함께했다.

법주사 진공당탄성문도회장 도공 스님은 영결사에서 명진 스님을 “말에 거침이 없고 행동에 물러섬이 없었던 수좌 선객”으로 회고했다. 도공 스님은 “평소에 닦은 수행의 힘으로 사물과 상황을 꿰뚫어 보는 안목이 활발하게 살아있었다”며 “사회운동을 하고 종단개혁을 외칠 때도 출가 후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방부를 들이고 철마다 선방에서 수행정진했다. 사회운동도 종단개혁도 수행의 방편이었고, 그 자체가 수행이었다”고 추모했다.

기본선원 조실 영진 스님도 “명진 스님은 조계종 선방 납자들의 지남이었고 종단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가였으며, 우리 사회 약자를 살피는 관음의 화신”이라고 평가했다. 스님은 그러면서 “언제 어떤 자리이건 내 마음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주인공 정신을 실천했다”며 “법의 바다에 인장을 새기듯 파도가 돼, 물결이 돼 다시 오소서”라고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스님과 인연을 맺어온 시민사회 인사들도 명진 스님의 개혁정신과 포용정신을 기리며, 스님이 실천해온 자비와 연대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호상(護喪)을 맡은 법주사 주지 정덕 스님은 “저희 후학들은 스님이 남긴 발자취를 이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스님의 가르침을 잘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문도대표 선용 스님도 “16년 만에 봉은사에 돌아온 은사 스님을 여법하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도와준 조계종과 전통다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준 법주사에 감사드린다”며 “은사 스님께서 일상에서 몸소 보여주신 하나하나가 수행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그 모습을 계승해 실천하면서 살아가겠다.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도 스님이 늘 함께하길 바란다”고 감사를 전했다.

영결식 이후 명진 스님의 법구는 법주사로 이운돼 다비가 엄수됐다. 명진 스님의 49재는 8월 28일 초재를 시작으로 △2재 9월 4일 문경 봉암사 △3재 9월 11일 보은 법주사 △4재 9월 18일 강화 보문사 △5재 9월 25일 인제 용화선원 △6재 10월 2일 괴산 공림사 △7재 10월 9일 서울 봉은사에서 봉행된다.

# 총무원장 선거 후보들도 “원적 애도”

**경우 스님 선대위 “큰 등불 입적”**
**진우 스님 “가르침 계승” 약속**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들도 명진 스님의 입적에 애도를 표했다.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후보 경우 스님 선거대책위원회는 8월 24일 애도문을 내고 “이 시대 불교가 나아갈 길을 몸소 밝힌 큰 등불이었다”며 명진 스님의 입적을 추모했다.

선대위는 “명진 스님은 수행자의 본분을 바탕으로 평생 세상의 아픔과 함께했다”면서 “민주화와 평화를 염원하는 현장에서, 노동자의 아픔이 있는 자리에서, 사회적 참사로 상처 입은 이들의 곁에서 늘 먼저 손을 내밀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부처님 자비는 사찰 울타리를 넘어 세상 속에서 꽃피어야 하며, 수행자 정진은 고통받는 중생과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됨을 일깨워준 스님의 가르침은 한국불교가 되새겨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며 “고통받는 이들의 곁을 평생 지켜온 스님의 원력이 우리 사회에 온전히 회향되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기호 3번 진우 스님은 8월 23일 제38대 총무원장 선거인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명진 스님의 입적 소식을 접하고 하늘의 해가 사라지기라도 한 것처럼 마음이 먹먹했다”며 “비록 명진 스님의 법신은 가고 없어도 명진 스님께서 남기신 가르침만은 세세생생 계승될 것”이라고 추모의 뜻을 전했다.

특히 진우 스님은 명진 스님이 이끌었던 1994년 종단개혁의 의미를 짚으며 “94년 종단개혁 이후 종도들의 여망에 부응해 총무원장 선거가 321명의 간선제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을 선출했던 예전의 선거제도보다는 진일보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다”며 “추대제부터 직선제까지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사부대중의 지혜를 모아 승가 고유의 전통을 살리고 종단의 위상에 맞는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약속하기도 했다.

진우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명진 스님의 유훈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명진 스님의 영결·다비식이 여법하게 봉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명진 스님의 속환사바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후보를 사퇴한 정념 스님도 8월 23일 애도문을 발표하고 “스님의 갑작스러운 입적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스님께서 남기신 거룩한 발자취를 되새긴다”고 추모했다.

신중일 · 임은호 · 김내영 기자

# 동국대 불교학술원, ‘AI 불교문화’ 특강 개설

**전통문화연구회와 MOU 체결**
**AI시대 불교학 연구 역량 함양**




AI시대에 새로운 불교학 연구 역량 함양을 위한 특강이 개설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묵 스님)이 전통문화연구회(회장 김현)와 “8월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학기에 ‘AI와 협업하는 불교문화 큐레이션’ 15주 특별 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사진〉

특별 강좌는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를 맞아 불교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유산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여 AI시대에 필요한 지식 구조화 방법론을 학습하고, AI와 협업하여 새로운 불교학 연구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불교문화 관련 강좌의 주요 연구 대상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 중 하나인 송광사다. 송광사가 배출한 고승들, 송광사에서 간행된 불전들, 송광사의 다양한 문화유산들에 담겨 있는 지식정보를 조사하고 구조화해 AI가 한국불교 문화를 정확하게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실습으로 만들어갈 예정이다.

15주간 진행되는 이번 특별 강좌에는 전통문화연구회를 이끌고 있는 김현 동국대 석좌교수, 인문정보학 전문가인 서소리 박사, 한국불교 전문가인 김용태 불교문화연구원 HK사업단 교수, 문헌 전문가인 서수정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 등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학제 간 협업 강의를 진행하고, 실습을 병행한다. 신중일 기자

# 진각종, 제60기 회당장학생 연수 성료

**8월 24~25일, 서울 진각전승원서**
**‘다 때가 있다’ 주제 진각스테이**




진각종이 대학생 48명에게 회당장학금을 전달하고, 회당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진각종(통리원장 능원 정사)은 8월 24~25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일대에서 진기 80(2026)년 제60기 회당장학생 연수를 개최했다.

‘다 때가 있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에는 서울·대구·부산·대전·경주·포항·전라·경북 등 8개 교구에서 선발된 회당장학생 48명이 참여했다.

8월 24일 오후 진각문화전승원 대강당에서 열린 발단불사에서 통리원장 능원 정사(회당장학회 이사장)는 인사말을 통해 “1박 2일 동안 오늘 내 자신을 잘 돌아보고 성찰해 내면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좋은 도반으로서 앞으로도 좋은 인연을 이어가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 때가 있다’는 이번 연수의 주제처럼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의 때’를 없애기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연수는 소통과 현대적 감성을 융합한 진각종만의 새로운 불교문화 프로그램인 ‘진각스테이’를 테마로 진행됐다.

첫째 날인 24일에는 오리엔테이션 및 아이스브레이킹을 시작으로 발단불사와 장학 증서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어 △통리원장 능원 정사의 ‘다 때가 있다-참회’ 주제특강 △마음결 찾기 명상(필터링·걷기·만트라·컬러명상 등) △나의 때를 씻어내다(강연 돌아보기, 나의 때 적어보기 등) △나의 미래의 때(하루를 돌아보고, 미래의 내 모습을 생각해 보기) 등을 진행했으며, 둘째 날에는 △개명정진 △‘다 때가 있다-인연’ 특강(총무부장 원상 정사) △연수 돌아보기(연수와 관련된 퀴즈대회) △해단불사 등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임은호 기자



# “청년 전법 서원” 1080배 정진

**대불련, 서울 홍대선원서 법회 진행**
**8월 23일, 3명 발원에 23명 동참**
**원력 확인 · 청년불교 미래 고민도**

박지운 기자 vjw33@hyunbul.com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8월 23일 서울 홍대선원에서 대학생 전법과 포교 원력을 위한 ‘KBUF 1080배 수행 정진 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20여 명이 동참했다.

‘딱, 딱, 딱.’ 늦은 밤 죽비 소리가 법당에 울려 퍼졌다. 소리에 맞춰 대학생 불자들이 일제히 몸을 낮춰 절을 올렸다. 한 배 한 배 이어지는 1080배에는 저마다의 발원과 간절한 원력이 정성스럽게 담겼다.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선민지, 이하 대불련)는 8월 23일 서울 홍대선원(주지 준한 스님)에서 대학생 전법과 포교 원력을 위한 ‘KBUF 1080배 수행 정진 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전국 지부장·지회장 및 대학생 불교동아리 회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후 10시부터 새벽까지 절을 이어갔고, 이 가운데 19명이 목표 1080배를 마쳤다.

이번 법회는 최근 ‘힙(Hip)한 불교’ 열풍을 계기로 높아진 청년층의 불교 관심을 실제 자기 수행과 성찰의 전법 원력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적 관심에 머무르지 않고 대학생 불자들이 직접 수행하고, 서로의 원력을 확인하며 청년불교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

참가자 소개 및 ‘1080배 수행 정진 법회 서원지’ 발원 나눔을 시작으로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 입재 법문, 대학생 발원문 낭독, 1080배 정진(구간별 명상 병행), 소감 나누기, 사홍서원,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하며 이번 수행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법회는 김예빈 대동대 불교학생회장의 제안으로 실행됐다. 처음에는 선민지 대불련 중앙회장을 비롯한 3명이 함께하는 작은 법회로 기획됐지만, 단기간에 원력이 모이면서 참가자가 20여 명으로 늘었다. 청년 포교 도량인 홍대선원이 장소를 제공하고 적극 지원하면서 청년들의 수행 정진을 뒷받침했다.

법회에 앞서 진행된 차담에서는 학생들이 서원지에 각자 발원 내용을 적어 팀별로 서로를 소개하며 발원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회원들은 서원지를 통해 △좌우명 △이번 정진에서 꼭 비워내고 싶은 한 가지 △1080배 끝의 나에게 △나의 서원 △가장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나에게 건네고 싶은 응원 등을 적었다.

선 회장은 입재식에서 “1080배는 결코 쉽지 않지만 나를 낮추고 번뇌를 비워내는 거룩한 수행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배 한 배 절을 올릴 때마다 내 안에 밝고 맑은 불성을 깨우고, 곁에 있는 도반들과 서로 호흡을 맞춰가며 끝까지 원만하게 회향할 수 있도록 발원한다”고 말했다.

대불련 회원들은 김예빈 학생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우리가 만난 인연은 불자의 소중한 생명을 잊지 않고 부처님의 오신 뜻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항상 밝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함”이라며 “모든 생명과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발원한다”고 기원했다.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은 “이곳에 온 다짐들은 조금씩 다를 테지만, 모든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한 배 한 배 정성껏 절을 하는 그 자체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절을 하다보면 나의 힘이 조금 더 세지고 지혜로워져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 인연들에게 이 힘을 자연스럽게 전해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염원했다.

법회에 참가한 김수민 서울대 총불교학생회 부회장(22)은 “처음이라 두렵지만 설레기도 한다”며 “‘1080배를 하면 마음을 비울 수 있다’고 주변에서 많은 추천을 받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해내고 싶다”고 설레는 마음을 전했다.

이날 홍대선원 부전 중봉 스님이 학생들과 함께 1080배를 올렸다. 324배씩 세 차례 진행한 뒤 마지막 108배를 올리며 수행을 회향했다.

23명으로 시작한 이날 정진에서 19명이 1080배 목표를 달성했다.

## 기자칼럼

### 오늘 우리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점메추(점심 메뉴 추천)’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다. 오늘 하루 맛있는 점심을 먹고 싶다는 현대인들의 소소한 바람에서 비롯된 표현으로, 한 끼 음식이 하루의 작은 즐거움으로 자리 잡은 모습을 보여 준다.

먹을거리가 넘쳐나는 시대, 우리는 원하는 음식을 어렵지 않게 선택할 수 있다. 복날이면 자연스럽게 삼계탕을 찾고, ‘33데이’에는 삼겹살을 먹는다. 꼭 먹고 싶어서라기보다 ‘그날에는 그 음식’이라는 익숙한 문화가 선택을 이끌기도 한다.

하지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음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진다. 특히 배달 음식은 음식물 쓰레기와 과도한 포장, 장거리 운송 등 생산부터 소비까지 여러 환경 문제와 맞닿아 있다. 육류 중심 식생활 역시 사료 생산과 가축 사육 과정에서 상당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물과 토지 등의 자원도 많이 필요로 한다.

결국 무엇을 먹을 것인가는 개인 취향에만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를 공동의 문제로 생각해 보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불교환경연대가 매년 복날을 맞아 펼치는 ‘복날채식캠페인’이 의미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복날 육류 소비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당연하게 여겨온 오늘 우리의 식탁을 잠시 돌아보게 하기 때문이다.

올해 캠페인에서도 초복부터 말복까지 하루 한 끼 채식을 약속하는 ‘채식 서약’, 스님과 함께 사찰음식을 만들어 먹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상에서 채식을 실천해 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채식 서약’에는 전국에서 232명이 동참했고, 참가자들은 “올해 상상 이상의 더위를 체감하며 이상기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다” “고기에 익숙했던 나를 발견했다” “채식으로 세상을 위하는 사람들을 존경한다” 등의 후기를 남기며 자신의 식탁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를 공유했다.

기후위기 극복은 거창한 결심으로만 시작되는 건 아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고 익숙한 선택을 한 번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괜찮다. 한 끼가 기후위기를 해소할 수는 없지만 오늘을 돌아보면 내일의 한 끼가 달라질 수 있고, 내일의 한 끼가 또 다른 무수한 날들의 한 끼를 바꿔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현희 편집국 기자

# “‘금강산’ 가치 보존, 남북 함께 책임져야”

**8월 25일, 민추본 제3차 연구 포럼**
**금강산 역사적·문화적 가치 조명**



“금강산의 가치는 유산이 어느 곳에 있느냐보다, 남북이 함께 만들어 온 역사와 문화에 있습니다. 그 가치를 지키는 데에도 남북의 공동 책임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금강산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각자 보유한 유산과 자료를 바탕으로 공동의 보존·기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경미 고려대 문화유산학부 초빙교수〈사진〉는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8월 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3차 남북불교문화유산 교류연구포럼 ‘남과 북의 시선으로 바라본 금강산’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남한에서의 세계유산 금강산 인식과 정책 방향’ 주제 발제에서 “유네스코는 금강산을 자연경관과 한국 산악불교·순례·산악신앙 역사가 복합적으로 얽힌 ‘연상적 문화경관’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강산의 가치는 산 자체뿐 아니라 그곳에서 이뤄진 수행과 순례, 그림과 문학 등으로 기록해 온 역사까지 포함된다는 것이다.

금강산의 가치가 남북에 다른 형태로 산재해 있다는 점도 짚었다. 김 교수는 “금강산의 가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역사적 자료와 기억들은 남한에도 있다”며 “금강산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한쪽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분산해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에는 사찰·암자·석각 등 세계유산 현장이 있고, 남한에는 유산기·고문헌·고지도 등 금강산의 역사와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자료가 축적돼 있는 만큼 “금강산의 형성 과정과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무엇을 보존해 다음 세대에 전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OUV 증거 아카이브 구축 △남한에 있는 금강산 자료 구조화 △역사문화경관 중첩 지도 마련 △사찰 단청 보존 기록 △무형기억유산 기록 ‘디지털 와유(臥遊)’ △공동 모니터링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포럼에 앞서 민추본 부본부장 진경 스님(조계종 사회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포럼을 통해 남북이 화해의 물길을 트고, 언제나 왕래할 수 있는 금강산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희 기자

# 청소년들 음악 연주로 기린 광복 81주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음악회**
**시민 캠페인, 광복 의미 제고**



사진 제공=나눔의집

광복 81주년을 맞아 청소년들이 음악 공연을 선보이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겼다.

나눔의집(대표이사 세영 스님)은 8월 15일 서울 보스턴체임버에서 ‘제81주년 나눔의집과 함께하는 광복절 기념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음악회는 음악을 전공하는 청소년 연주자들이 직접 준비한 공연으로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에서는 전통 민요 ‘아리랑’과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펼쳐졌다. 청소년들이 광복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곡 선정과 무대 구성 등에 직접 참여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초와 당시 역사도 함께 살펴보며 인권의 가치를 돌아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의미를 더했다.

공연에 앞서 시민들은 역사·평화·인권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기억’ ‘자유’ ‘평화’ ‘희망’ 중 광복절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키워드에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을 통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현희 기자

# 조계종 신도교육 교재 7년 만 개편

**포교부, 2026 불교대학 학장회의**
**‘부처님 생애’ ‘불자 의례’ 신설**
**개편 교재, 내년 3월부터 사용**



조계종 신도전문교육 필수교재 〈불교개설〉이 7년 만에 개편된다. ‘부처님의 생애’와 ‘불자의 의례’를 신설해 필수교재를 〈불교개설〉 1종으로 단일화하고, 필수교과 이수 시간은 30시간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조계종 포교부(부장 정무 스님)는 8월 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2026 신도전문교육기관 불교대학 학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56개 불교대학 학장 스님과 실무자 등 총 58명이 참석했다.

기존 불교대학 기본과정에서는 필수교재로 〈불교개설〉과 〈부처님의 생애〉 2종을 사용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이를 통합한 〈불교개설〉 1종을 사용한다. 새 〈불교개설〉에는 교육 순서상 ‘부처님의 생애’를 학습한 뒤 불법승 삼보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고, 불자로서 알아야 하는 기본 의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함양을 위해 ‘불자의 의례’를 신설했다. 또 신도기본교육 교재인 〈불교입문〉에서 배운 내용을 한층 심화해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했다.

이와 함께 필수교과인 〈불교개설〉의 이수 시간을 기존 ‘16시간 이상’에서 ‘30시간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선택교과로 분류된 〈불교문화〉와 〈불교사의 이해〉 중 최소 1과목은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개편된 〈불교개설〉은 오는 12월 발간돼 2027년 3월 학기부터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내포불교대학 운영 사례 공유, 불교대학 운영에 관한 의견 수렴, 포교부 주요 사업 소개 및 포교자료 공유 등이 이뤄졌다.

박지운 기자

# 3000여 포교사, 백양사서 철야정진

**조계종 포교사단, 9월 12~13일**
**‘제22회 팔재계수계법회’ 봉행**
**일반포교사·전문포교사 품수식도**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강의수)이 무박 2일 철야정진의 팔재계수법회를 통해 전국 포교사들의 포교 원력을 다진다.

포교사단은 9월 12일 무박 2일로 장성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에서 ‘제22회 팔재계수계법회’를 개최한다. 조계종 포교부(부장 정무 스님)가 주최하고 포교사단이 주관하며 마음챙김행복개발원이 시행하는 이번 수계법회에는 전국에서 3000여 명의 포교사가 동참할 예정이다.

팔재계수계법회는 포교사로서 지계 실천과 신행활동 점검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소속감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봉행된다. 법회에서는 제31회 일반포교사 품수식을 비롯해 제19회·제20회 전문포교사 품수식, 마음챙김행복개발원 시민의식 개혁대회도 함께 거행된다. 제31회 일반포교사 품수식에서는 344명이, 제19회·제20회 전문포교사 품수식에서는 각각 12명과 8명이 품수한다.

첫날 1부 행사는 식전행사와 수메다회 모임을 시작으로 입재식, 포교사 품수식, 8재계수계식등으로 진행된다. 이어 포교부장 정무 스님의 특강을 통해 포교사들에게 수행과 전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한다. 오후 9시부터 진행되는 2부에서는 포교사의 노래·다짐, 시상식(상임지도법사상, 포교사단장상), 축가(부산지역단 합창단) 등이 마련된다.

오후 11시 30분부터는 본격적인 철야정진에 들어간다. 참가자들은 선명상 걷기를 비롯해 철야정진(금강경 독송), 새벽예불, 회향식, 사홍서원, 지역단별 촬영 등을 끝으로 오전 6시에 무박 2일 일정을 회향한다.

포교사단은 “지계실천을 바탕으로 건강한 사회와 행복한 가정을 기원하는 팔재계수계법회 및 포교부 정기연수에 포교사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며 “올해 팔재계는 무박 2일 수행으로 그간의 수행을 점검하고 포교원력을 다시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지운 기자

# 캄보디아 아동센터 부처님 개금불사 봉행

**11월 25일까지 모금 전개**
**공덕주 석판 교체 작업도**



캄보디아 아동센터 설립 20주년을 맞아 센터 내에 모셔진 부처님. 사진 제공=로터스월드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가 캄보디아 아동센터 설립 20주년을 맞아 아동센터 내에 모셔진 부처님을 새롭게 단장하는 개금불사를 봉행한다.

개금불사를 위한 모금 캠페인은 11월 25일까지 진행되며, 회향식은 11월 28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열리는 아동센터 설립 20주년 기념법회에 앞서 거행된다.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아동센터 운동장 중앙에 모셔진 부처님은 아동센터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2016년 조성됐다. 캄보디아 전통 압살라 양식 전각 내에 석재로 조성된 부처님은 경주 석굴암 본존불을 참고해 조성됐으며, 10년간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을 살피는 아동센터의 상징으로 자리해왔다. 그러나 열대 우기와 혹서기가 반복되는 캄보디아의 기후 특성상 풍화 작용 등으로 훼손이 급격히 진행된 상황이다.

이번 개금불사에서는 공덕주 석판 교체 작업도 이뤄진다. 개금불사에 동참한 이들의 이름을 석재 명판에 새기고 부처님 좌대 하단부에 봉안해 그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다. 석판 봉안 모습은 오는 12월 참여자들에게 개별 전달될 예정이다. 1인 단독 석판은 100만원, 12인 공동 석판은 개인당 10만원이다.

성관 스님은 “이번 개금불사가 세월의 흔적이 깃든 부처님께 새 금빛 가사를 올리는 동시에 캄보디아 아이들의 앞날에 자비와 광명이 가득하기를 발원하는 대작불사가 될 수 있도록 정성 어린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02-725-4277

**후원 계좌: 기업은행 024-071023-01-024 로터스월드**

이현희 기자

# 구룡지 백일홍이 더욱 붉도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結夏安居幾用工(결하안거기용공)**
**惺惺著意大疑中(성성착의대의중)**
**西風忽起庭前松(서풍홀기정전송)**
**隻鶴高飛萬里空(척학고비만리공)**
**하안거를 결제하고 공부에 얼마나 힘썼는가?**
**화두가 성성하여 크게 의심하는 가운데**
**들 앞 노송에는 서풍이 홀연히 불고**
**한 마리 학은 만리장천을 오르도다.**

제방의 수행대중들이여!

화두참구의 일념에 삼복더위는 위세가 꺾이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게 되었도다.

노송 그늘을 지나 반석 위를 흐르는 계곡의 맑은 물은 세상의 뜨거움을 식혀주고 구룡지 백일홍은 더욱 붉게 피었으며 무풍한송은 그 향기 더욱 그윽하게 되었도다.

안거가 여법하게 시행되고 제방의 수행도량에서 화두참구의 수행가풍으로 간절하게 정진하니 불조께서 찬탄하시고 제천이 환희하며, 신심으로 대중이 함께하니 참으로 수승하고 거룩한 도량이로다.

종문(宗門)의 수행자들이 정법안(正法眼)을 갖추었으니 온 국토의 경사요 만 중생의 복전이 원만함이로다.

안거를 마치고 산문을 나서는 수행자들이여!

산문 밖 여러 인연에 나누어 줄 선물은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가?

간절하게 깨달음을 구하는 이에게는 어떤 향기를 전해줄 수 있으며, 대립과 갈등으로 투쟁이 견고한 세상에는 어떤 방편을 보일 수 있으며, 가뭄과 더위와 전쟁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중생들에게 줄 수 있는 희망은 무엇인가?

걸음걸음이 중생을 평안히 하는 무진법문을 전할 수 있어야만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시주의 정성에 보답하는 수행자라 하리라.

영축산의 소식을 묻는 이에게

그늘이 두터우면 시원한 바람이 일고, 큰 더위가 지나니 구룡지의 백일홍이 더욱 붉게 피었다라 하리라.

**山雨濛濛處(산우몽몽처)**
**喃喃鳥語時(남남조어시)**
**返觀心起滅(반관심기멸)**
**風動老松枝(풍동노송지)**
**가랑비 내리는 산에**
**재잘재잘 새들이 노래할 때**
**돌이켜 마음 작용을 살피니**
**바람이 노송 가지를 흔드도다.**

법어 전문 바로가기

# 마음 청정한 그곳이 선방

태고종 종정 운경 대종사



**山花開處法門開(산화개처법문개)**
**溪水流時道心明(계수유시도심명)**
**若問解制何處去(약문해제하처거)**
**一念無生自在行(일념무생자재행)**
**산에 꽃 피는 것이 법문이고,**
**시냇물 흐르는 것이 바로 도이다.**
**해제해 어디로 가느냐 묻는다면,**
**한 생각 없이 그냥 가리라.**

오늘은 불기 2570년 하안거 해제일입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전국의 선원과 강원, 염불원에서 한마음으로 정진해 온 수행대중에게 깊은 찬탄과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뜨거운 여름날에도 세속의 번다함을 뒤로하고 한곳에 머물러 좌선하고, 경전을 읽고, 염불하며,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살핀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중에게 이 노승이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제하였습니까?"

석 달 동안 닫아 두었던 선방의 문을 여는 것이 해제입니까. 산문 밖으로 나가 다시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해제입니까. 결제 때의 수행을 내려놓고 다시 일상의 분주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해제입니까.

참다운 해제는 밖으로 나가는 데 있지 않고, 마음에 얽매인 것을 풀어내는 데 있습니다.

〈중략〉

마음이 청정하면 그곳이 선방이고, 지혜가 밝으면 그곳이 도량입니다.

부디 이번 하안거의 정진이 개인의 수행에 머물지 않고 가족과 사회, 나아가 이 세상의 평화와 행복으로 회향될 수 있도록 정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다시 한 번 모든 수행대중의 노고에 찬탄을 보내며, 해제 후에도 한결같은 정진으로 본래의 마음을 밝히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보살행을 힘차게 이어가기를 기원합니다.

**一念淸淨天地寬(일념청정천지보)**
**萬行慈悲法界春(만행자비법계춘)**
**解制不離心地外(해제불리심지외)**
**步步皆是菩提門(보보개시보리문)**
**한 생각 청정하면 천지가 넓어지고,**
**만행의 자비가 법계에 봄을 이루네.**
**해제지만 마음 밖으로 떠나지 않으니**
**걸음걸음 모두가 보리의 문이로다. 囯**

법어 전문 바로가기

# 결제 해제 몰록 잊은 곳

해인총림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



'아시겠습니까?'

**底箇結也是? 解也是?**
**結解總不是 如何卽是?**
**이것을 결제라고 해야 옳습니까?**
**해제라고 해야 옳습니까?**
**결제 해제가 다 옳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九旬結解頓忘處 백일 결제 해제를 몰록 잊은 곳에.**
**火裡生蓮鐵開花 불 속에는 연꽃이 피고 쇠나무에는 꽃이 피는도다.**
**石人獨宿須彌頂 돌사람은 수미산 정상에서 홀로 잠자고.**
**木女賣香十字街 나무여자는 십자거리에서 향을 팖이로다.**

금일 대중께서는 도리어 아시겠습니까?

만약 알지 못한다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佛性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時節 因緣을 觀하라.
지금 무슨 시절 인연을 말하는가?
흐르는 시냇가에는 버드나무가
황금의 곡선을 길게 드리워 있고,
산중에는 꽃이 활짝 핀 곳에
푸른 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데,
흰 구름은 푸른 산에 걸쳐 있으니,
山僧의 뜻에 흡족하도다.
좋구나!

〈중략〉

이번 결제에 해결이 안 된 분은
다시 두문불출하고 열심히 참구해서
하루빨리 화두를 타파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해서 깨닫지 못하면
한평생 허망한 인생을 살고 가는 것입니다.
틈이 없이 화두를 참구해서
하루속히 오도송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필경에 一句를 어떻게 이를 것인가?

**日長閒晝永 春老綠陰多**
**해가 길어지니 한가한 낮이 오래가고,**
**봄이 깊어지니 녹음이 더욱 우거짐이로다. 喝**

법어 전문 바로가기

# 만행 떠나는 바랑 속 살림살이

조계총림 방장 편양 현묵 대종사



오늘은 하안거를 마치는 해제 날입니다.

유난히 기승을 부리던 폭염이 대중 스님들의 안거를 힘들게 했지만, 대중 스님들의 정진의 원력심으로 무난하게 회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화두를 들고 안거에 동참했는데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오직 정진한 대중들 자신만이 알 것입니다.

조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若因地倒 약인지도면**
**還因地起 환인지기라**
**離地求起 이지구기하면**
**終無其理 종무기리리라.**
**만약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하리.**
**땅을 떠나 일어나려 한다면**
**결정코 그러한 도리는 없으리라.**

역대 조사님들이 거듭거듭 말씀하셨기에 대중은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화두를 들고 정진하다 보면 망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가다듬고 오직 일념을 챙기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쓰며 이를 악물고 정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생각을 돌이켜 알아차립니다.

〈중략〉

**有意氣時添意氣 유의기시첨의기하고**
**不風流處也風流 불풍류처야풍류리라**
**의기가 있을 때 의기를 더하니**
**풍류가 없는 곳이 풍류라.**

이것이 만행을 떠나는 대중 스님들의 바랑 속 살림살이여야 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의기를 더해 주며 풍류 없는 적막한 곳의 풍류임을 깨달아 활발발하게 만행하십시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대자연의 무궁한 경관 속에서 호연지기를 기르시고

심신이 충전되거든 또다시 산문으로 돌아와 본분사를 챙기며, 발심수행의 장을 열어 가시길 바랍니다.

법어 전문 바로가기

# 꽉 찬 허공이 내 생명 덩어리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



하안거를 성만하고 병오년 여름 결제 대중이 덕숭산 대웅전 해제법회에 다 모였습니다.

장하다, 거룩하다, 대종소리 "쾅"

유아독존이요, 시아(是我)로다.

삼천대천세계가 이놈!

궁극이요, 구경이라.

두두가 한 덩어리 이뭘까?

사자 포효에 짐승들 머리 터지네.

천룡은 더욱 싱그러워 돌아서서 미소 짓네.

납자의 옷깃 바람에 천하가 이뭘까로다.

이~뭘까?

백척간두 진일보

어떤 것이 백척간두 진일보입니까?

만공스님 갱진교요,

관세음보살 대자대비 사랑이로다.

넘실넘실 지심(至心)바다
출렁출렁 꽉 찬 바다
상주일체가 부처님이요,
상주일체가 달마야중이로다.

〈중략〉

**願共法界諸衆生**
**모든 것은 한 덩어리**
**自他一時成佛道**
**자타가 일시 성불이라.**

눈뜨면 확철대오 이뭘까?

자타일시성불도 길 道, 만고의 길은 이뭘까?

청풍납자 유아독존 오직 이~뭘까?

**夜夜抱佛眠 朝朝還共起**
**밤마다 밤마다 부처님 안고 자네.**
**아침마다 아침마다**
**도리어 함께 일어나는 이 부처님**
**欲識佛去處 只這語聲是**
**부처님 간 곳을 알고 싶은가?**
**오직 이 말소리, 이놈이었네!**

꽉 찬 생명의 이 고요
관세음보살 한마디에
해제 하늘이 내 심장이 됩니다.
몰아 몰아 한덩어리 이뭘까?
갓 없는 허공이 이뭘까요,
꽉 찬 허공이 내 생명 덩어리 이뭘까 숨통입니다.
이~뭘까?
나무~ 아미타불

법어 전문 바로가기

# 걸음마다 푸른 연꽃 피어나다

금정총림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



**眞性無染 本自圓成(진성무염 본자원성)**
**去來自由 處處安樂(거래자유 처처안락)**
**참 성품은 물들지 않고**
**본래 스스로 원만히 이루어져**
**오고 감이 자유롭고**
**곳곳이 편안하고 즐겁도다.**

누구나 간직한 참된 성품은 마치 허공과 같아서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해제가 되어 가고 옴에 걸림이 없고 자유로우니, 어느 곳을 가도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병오년 하안거 해제 날입니다.

안거를 시작한 까닭은 스스로를 경책하여 용맹정진의 기운을 북돋우고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안거 3개월 동안 산문 밖을 나가지 않고, 오직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과 역대 조사 스님들의 정통 수행법을 이어받아 선원에서는 화두일념으로 정진해 왔습니다. 산문을 나설 때도 화두는 여러분의 호흡과 늘 함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정일여(動靜一如)입니다.

〈중략〉

최상의 보물은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일입니다. 이는 무엇이든 다 이루어 내는 여의보주(如意寶珠)와 같습니다. 마음을 깨달아 자성을 완전히 통달하면, 진흙 속에서도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山門脫却出行時(산문탈각출행시)**
**步步靑蓮大地翠(보보청련대지취)**
**不在煩惱卽菩提(부재번뇌즉보리)**
**自性淸淨本來佛(자성청정본래불)**

**산문을 벗어나 세상으로 나아갈 때**
**걸음마다 푸른 연꽃 피어나 온 대지가 푸르르네.**
**번뇌와 보리에 얽매이지 않으니**
**스스로의 성품 맑고 청정하여 본래 부처로다.**

나무아미타불

법어 전문 바로가기

# 북항 힐링 걷기, '팔관회' 막 오른다

**9월 12일, 북항친수공원 일원서**
**스마트폰 NFC 완주 인증 도입**
**'어울림 한마당' 등 치유 공연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부산불교연합회가 주최하고 2026팔관회봉행위원회가 주관하는 '2026 팔관회 명상 걷기대회'가 9월 12일 오후 6시 부산 북항친수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팔관회 명상 걷기대회 모습.

신라 시대부터 천년을 이어온 불교 전통문화 축제 '팔관회'가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명상 걷기대회로 올해 행사의 첫출발을 알린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가 주최하고 2026팔관회봉행위원회가 주관하는 '2026 팔관회 명상 걷기대회'가 9월 12일 오후 6시 부산 북항친수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전통적인 팔재계(八齋戒)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치유와 화합의 장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번 대회는 참가자 편의와 재미를 위해 처음으로 스마트폰 'NFC 인증 방식'을 도입했다.

참가자들은 걷기 코스 곳곳에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완주를 인증할 수 있다. 기기 사용이 낯선 어르신 등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실물 카드를 함께 발급한다.

행사 당일 참가자 현장 접수는 오후 4시부터 진행된다. 오후 6시부터는 명상지도사 최인혜, 불자 가수 엄재원, 크로스오버 아티스트 로투라가 식전 무대를 꾸민다. 본격적인 걷기에 앞서 참가자 전원이 다 함께 명상의 시간을 가지며 몸과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진행된다. 이후 스님들을 선두로 북항친수공원 수변 산책로를 따라 걷기대회가 본격적으로 이어진다.

걷기대회 이후 오후 8시 30분부터 축제의 열기를 더할 '어울림 한마당'도 펼쳐진다. 인기 가수 전유진과 진욱, 금윤아가 무대에 올라 화려한 축하 공연을 선사한다. 또 LG 김치냉장고, LG 스탠바이미 TV, 다이슨 공기청정기, 로봇청소기 등 총 1000만원 상당의 풍성한 경품 추첨이 마련돼 시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전 참가 신청은 홍보물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부산불교연합회(051-868-5455)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행사 당일 현장 부스에서도 접수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만 14세 미만 참가자는 보호자 동반이 필수다.

한편 2026 팔관회 본 행사는 이번 걷기대회를 시작으로 향후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선재동자 수계법회, 호국영령위령재, 팔관재계 수계법회 등으로 이어지며 국태민안과 시민의 행복을 기원할 예정이다.

# 홍법사·주한미해군, '문화 교류' MOU

**실질적 휴식 제공 공식 협약**
**'제5회 영어캠프' 동행 의미**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 스님)는 8월 22일 주한미해군사령부(CNFK)와 우호 증진 및 문화 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은 양 기관이 오랜 기간 다져온 교류와 나눔이 공식적인 결실을 맺은 것으로,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35명의 학생들과 함께한 '제5회 미 해군과 함께하는 영어캠프'도 개최되며 협약의 의미를 더했다.

홍법사는 매년 6월 현충일을 맞아 거행하는 '허공마지 호국법회(홍법바라밀재)'에 미 해군 장병과 군종 목사들을 초청해 왔다. 특히 기독교 목회자인 미 해군 군종 목사가 한국 사찰에 모여 전사자들의 넋을 기리고, 기도 끝에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는 등 종교의 벽을 허문 추모와 화합의 모습은 미 국무부와 백악관 관계자들에게까지 감동을 전했다. 호국 영령을 기리는 한마음으로 시작된 이들의 교류가 굳건한 신뢰로 이어지며 이번 협약의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

협약을 통해 홍법사는 장병들을 위한 '실질적인 치유'에 목표를 두고 있다. 협약에 따라 홍법사는 미 해군 장병과 가족들에게 사찰 투어, 웰니스 및 명상 세션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다.

심산 스님은 "참된 휴식과 치유가 필요한 정예 장병들이 사찰을 찾아 깊이 있는 상담과 명상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기를 바란다"며 "이번 협약은 종교적 포교의 차원이 아닌, 한국과 미국의 문화를 끈끈하게 연결하고 편안한 쉴 곳을 내어주는 순수한 문화 힐링의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협약식 당일에는 '제5회 미 해군과 함께하는 영어캠프'가 함께 열렸다. 이번 캠프에는 28명의 미 해군 장병과 전국에서 신청한 35명의 초·중학생들이 참가했다. 특히 미 해군의 대민 사업을 담당하는 군종 목사들이 직접 인솔자이자 교사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과 장병들은 소그룹으로 팀을 이뤄 영어 단어 카드 학습, 미션 챌린지, 오징어게임 등 다채로운 체험을 함께하며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화합의 장을 연출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한마음선원 부산, 백중 맞아 보양식 나눔

**영도구 어르신 1670명에**
**"지역사회와 늘 함께하겠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8월 24일 영도구청 2층 구청장실에서 영도구 관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1670명을 위한 보양식을 전달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 스님)이 불교 5대 명절인 백중(우란분절)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보양식을 대접하며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8월 24일 영도구청 2층 구청장실에서 영도구 관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어르신 1670명을 위한 보양식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과 김철훈 영도구청장, 신도회 임원진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나눔은 부처님 10대 제자인 목련존자의 지극한 효심에서 비롯된 백중의 참뜻을 널리 회향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오랜 기간 복지관에 전해오던 백중 떡 대신 보양식으로 후원 품목을 변경했다. 거동이 불편해 복지관을 직접 찾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더 실질적인 영양 보충이 필요하다는 복지관 측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보양식은 와치종합사회복지관(780팩)과 영도구노인복지관(900팩) 소속 생활지원사들이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지역의 어르신을 내 부모처럼 받들어 공양하겠다는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신도들의 십시일반 정성으로 마련됐다.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은 "조상님과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는 백중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께 공양을 올린다는 정성으로 이번 나눔을 준비했다"며 "나와 이웃이 결코 둘이 아니기에 작은 정성이라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어르신들의 안부를 챙기는 것 자체가 바로 한마음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늘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은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나눔 행보를 펼치고 있다. 매년 봄 어르신을 위한 효잔치를 개최하고, 지자체와 연계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복지 등기 우편서비스'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폐교를 앞둔 인근 초등학생들에게 마지막 수학여행용 캐리어를 선물하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장삼 공양으로 백중 의미 되새기다

**창원 정법사, 8월 20일**
**백중 6재 맞아 천도재**



창원 정법사(주지 광우 스님)가 스님들에게 장삼 공양을 올리며 백중의 의미를 되새겼다.

8월 20일 설법전에서 열린 '백중 6재 대중 초청 장삼 공양 및 수자령·태중영가 천도재'는 부모와 조상의 은혜를 되새기는 한편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수자령과 태중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정법사 사부대중은 통도사 전계사 스님들에게 정성껏 마련한 차와 공양물을 올리고 수행자의 위의를 상징하는 장삼을 공양하며 승보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광우 스님은 발원문을 통해 부모와 조상의 깊은 은혜를 되새기며 살아 있는 부모에게는 건강과 평안을, 선망부모와 조상에게는 극락왕생의 공덕이 전해지기를 기원했다. 또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수자령과 태중영가들이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모든 고통을 여의고 좋은 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원했다.

동참 대중은 〈부모은중경〉을 독송하며 자녀를 잉태하고 낳아 기르는 과정에서 베푼 부모의 한없는 사랑과 희생을 돌아보며 부모에 대한 감사와 효의 의미를 마음에 새겼다.

통도사 전계사 스님들은 법문을 통해 부모와 조상을 위해 공덕을 쌓고 이를 회향하는 불교의 효 사상을 강조했다.

이어진 수자령·태중영가 천도재에서는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생명들을 위로하고 영가들이 부처님의 품에서 새로운 인연을 맺기를 발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화음으로 하나된 천진불합창단

**8월 20~21일, '여름 음악캠프'**
**수계식 · 발표회 등 '화합의 장'**



제주에서 전국 천진불들의 맑은 찬불가 화음이 울려 퍼졌다. 사단법인 동련과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가 제주도 일원에서 음악캠프를 열고, 어린이 불자들에게 수계식과 음악을 통한 화합의 장을 선사했다.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는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제주 약천사와 부영청소년수련원 일대에서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 여름 음악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에는 약천사, 정법사, 관음사, 서암정사, 보리왓 등에서 활동하는 천진불 어린이 114명을 포함해 총 183명이 동참하여 성황을 이뤘다.

캠프 첫날에는 제주 약천사에서 어린이 수계식이 봉행됐다. 전계대화상 선응 지현 스님(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 총재), 갈마아사리 영산 스님(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 회장), 교수아사리 능후 스님(사단법인 동련 상임이사)이 증명 법사로 나선 가운데, 114명의 어린이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참된 불제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후 부영청소년수련원으로 자리를 옮긴 참가자들은 사찰별 발표회와 연합곡으로 각 합창단의 실력을 뽐냈다. 발표회 후에는 다 함께 어우러지는 대동놀이가 펼쳐져 화합과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캠프 둘째 날인 21일에는 부영청소년수련원에서 회향식을 가진 뒤 색달생수천 물놀이장으로 이동해 사찰별 물놀이 시간을 가지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 관계자는 "내년에도 더 많은 어린이들이 음악캠프에 동참해 부처님의 품 안에서 함께 노래하고 화합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방생 공덕으로 국민 이고득락"

**월정사 금강경 봉찬기도회**
**8월 22일, 낙동강서 방생법회**



병오년 백중을 앞두고 뭇생명을 살리며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뜻깊은 방생법회가 부산 낙동강변에서 열렸다.

월정사 금강경 봉찬기도회는 8월 22일 부산 삼락생태공원에서 '용수스님과 함께하는 병오년 백중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생명 존중과 불상생의 자비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법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사부대중은 용수 스님의 집전으로 향을 사르고 〈금강경〉을 봉독하며 백중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미꾸라지를 낙동강에 방생하며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발원했다.

용수 스님은 법문에서 "직접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동참한 분들에게도 공덕이 함께하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인연 공덕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이고득락하고 편안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월정사 금강경 봉찬기도회 김근하 부단장은 전국에서 불자들이 함께한 의미를 강조하며 방생 공덕이 각 가정의 평안과 나라의 안녕으로 이어지기를 발원했다.

사부대중은 방생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심을 일으키는 수행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사회의 평안과 모든 중생의 이고득락을 발원하며 법회를 회향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미소원 청년회가 선물한 '신나는 여름 한 페이지'

**8월 22일, 부산 삼정타워**
**방학 맞이 어린이 문화체험**




사단법인 미소원의 청년 불자 모임인 미소원 청년회가 여름방학을 맞은 지역 아동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미소원 청년회(회장 이다겸)는 8월 22일 부산 삼정타워에 위치한 실내 놀이 시설에서 아동 대상 문화체험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인 '신나는 여름 한 페이지'를 개최했다.

개금종합사회복지관과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저소득층 아동 17명과 미소원 청년회원이 참여했다. 청년회는 당초 야외 활동을 계획했으나 폭염에 따른 아동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 실내 놀이 시설로 장소를 변경했다.

이날 아동들과 청년회원은 한 조를 이뤄 미로 탐험과 미션 수행 등 활동적인 놀이를 함께했다. 청년회원들은 아동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며 든든한 멘토이자 친근한 형, 누나로서 정서적인 교감을 나눴다.

아울러 체험 활동을 마친 후에는 불교계 봉사단체인 미소원을 소개하고 단체의 핵심 가치인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아이들에게 업사이클링 학용품을 선물하며 일상 속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이다겸 미소원 청년회장은 "아이들이 놀다가 지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시간이 빨리 지나가 아쉬워할 정도로 즐거워했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좋은 추억을 쌓고 더 큰 꿈을 꾸며 밝게 성장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17년 11월 공식 출범한 미소원 청년회는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년 불자 모임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성파 스님 “풍랑 견디는 큰 배 돼야”

**영축총림 통도사 8월 27일**
**병오년 하안거 해제 법요식**
**전국 총림도 해제법회 봉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8월 27일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에서 열린 병오년 하안거 해제 법요식에서 사부대중에게 법어를 내리고 있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병오년 하안거 해제를 맞아 혹독한 더위 속에서도 정진을 이어간 대중을 격려하며,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수행자의 굳건한 자세를 당부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8월 27일 설법전에서 병오년 하안거 해제 법요식을 봉행했다.

법상에 오른 성파 스님은 “자유롭고 한가하며 바쁜 것이 다 한때”라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이는 것은 늘 있는 일이지만, 큰 어선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고 설했다. 이어 “어선이 풍랑을 피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꿋꿋하게 견디는 것”이라며 “수행자 역시 혹한과 혹서 등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하늘에 있는 달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의 ‘풍취부동 천변월(風吹不動 天邊月)’을 언급하며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이어간다면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곳이 곧 극락세계”라고 설파했다.

이번 통도사 병오년 하안거에는 보광선원 등 비구 선원에서 84명, 동국제일선원 등 비구니 선원에서 49명이 정진을 마쳤다. 아울러 시민선원 등 재가자 40명과 율원, 강원 등 사중 소임 대중 141명을 포함해 총 314명의 사부대중이 하안거를 원만히 회향했다.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무자 스님)는 8월 27일 대웅보전에서 ‘병오년 하안거 해제법회 및 백중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방장 현묵 스님은 해제법어에서 유난했던 폭염 속에서도 정진의 원력으로 안거를 원만하게 회향한 대중을 격려하고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한다’는 조사 어록을 들어 수행자가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현묵 스님은 “화두를 들고 정진하다 보면 망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만, 땅에서 걸려 넘어진 사람이 땅을 짚고 일어나는 것처럼 쉴 새 없이 일어나는 망상을 딛고 일어나야 한다”며 “번뇌가 즉 보리라 했듯 망상도 우리의 자성을 한순간도 여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안거 내내 화두와 씨름하면서 막막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길을 찾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 오늘 해제를 맞았다”며 “넘어진 곳에서 일어날 줄 아는 대중들이 이제 산문을 나선다”고 말했다.

또한 만행길에 오르는 수행자들에게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의기를 더해 주며 풍류 없는 적막한 곳의 풍류임을 깨달아 활발하게 만행하라”며 “대자연 속에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심신이 충전되면 다시 산문으로 돌아와 본분사를 챙기며 발심수행의 장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광사 총림 대중은 지난 5월 31일 하안거 결제에 들어가 선원을 비롯해 율원·강원·염불원 등 각 수행처에서 100일 동안 정진을 이어왔다. 하안거 해제와 함께 49일 동안 이어진 백중 기도도 회향했다. 대웅전에서 백중 회향법회를 봉행하고 대웅전 앞마당에서 반야용선을 앞세운 요잡의식을 진행하며 선망부모와 유주무주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 사명 대사 정신, 음악으로 되살리다

**대둔사, 9월 12일 산사음악회 ‘뮤지컬 사명대사’**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끌며 나라와 백성을 지킨 사명 대사의 호국정신이 뮤지컬 무대에서 되살아난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300여 개의 풍등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관객들의 소원을 함께 밝힌다.

구미 대둔사(주지 서원 스님)는 9월 12일 오후 5시 대웅전 앞마당에서 ‘호국사찰 대둔사 산사음악회-뮤지컬 사명대사 하이라이트 쇼’를 개최한다. 공연에 이어 ‘대둔사 소원풍등축제’도 마련해 역사와 음악, 자연과 소망이 어우러지는 산사문화의 장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대둔사가 지닌 호국불교의 역사적 의미를 현대적인 문화예술로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뮤지컬 갈라쇼에 이어 올해는 공연 규모와 내용을 확대해 사명 대사의 삶과 호국정신을 보다 풍성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사명 대사(1544~1610)는 임진왜란 당시 의승군을 이끌며 국난 극복에 앞장선 대표적인 고승이다. 대둔사는 사명 대사가 의승군을 훈련시킨 도량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무대는 뮤지컬 극단 야성이 준비한다. 뮤지컬 ‘사명 대사’의 주요 곡과 장면을 하이라이트 쇼 형식으로 구성해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주요 프로그램은 뮤지컬 ‘사명 대사’ 주제곡을 비롯해 ‘선조와 동인 서인들’, 도요토미의 솔로곡 ‘나는 전쟁을 원해’, ‘일어나라 승병들아!’, 사명 대사의 솔로곡 ‘대마도에서’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 공연은 지난해보다 장면과 배우를 두 배로 늘리고 의상과 전쟁 장면 등을 새롭게 더해 무대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진구 극단 야성 단장이 곡 해설을 맡아 각 장면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공연의 흐름을 관객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대둔사 경내를 수놓는 ‘소원풍등축제’가 이어진다.

주지 서원 스님은 “사명 대사께서 대둔사에서 이루신 호국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본받아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며 “이번 산사음악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그 뜻을 되새기고 함께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054-482-3807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 AI로 사찰 운영·불교교육… 혁신 이끈다

**지역 불교人** 무등산 증심사 주지 중현 스님

**축적된 사찰 기록 AI 분석 · 활용**
**행정 연속성 확보, 매뉴얼화 용이**
**“AI 활용 핵심, 기술 아닌 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데이터입니다. 사찰의 모든 자료가 먼저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AI가 있어도 사찰을 위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AI가 산업과 교육을 넘어 일상의 모습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 가운데 전통사찰의 종무행정과 불교교육에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그 중심에 무등산 증심사 주지 중현 스님〈사진〉이 있다.

중현 스님은 최근 증심사가 축적해 온 회보와 각종 행사·사업 기록을 생성형 AI와 연계해 종무행정에 활용하는 한편, 빛고을불교아카데미 강의자료를 기반으로 수강생들의 학습을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사찰의 기록을 단순히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를 통해 검색·분석해 실제 업무에 활용하려는 시도다.

AI에 대한 관심의 출발점은 ‘사찰 운영의 전문성’이다. 오늘날 사찰은 수행과 신행뿐 아니라 행정과 신도관리, 문화·복지사업 등 운영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행정시스템과 업무 노하우의 축적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일반 사회의 사무·행정과 비교하면 불교계는 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찰에서도 행정과 관리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필요한 노하우와 기술이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하면 사찰의 행정과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중현 스님이 주목하는 것은 AI 자체보다 ‘축적된 기록의 활용’이다. 예를 들어 증심사가 그동안 진행한 팥빙수 나눔사업의 시기와 대상 지역 등을 AI가 빠르게 정리하면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었던 곳을 찾아 다음 사업을 기획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AI는 사찰 종무행정의 ‘업무 단절’을 보완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축적된 업무 경험과 노하우가 사라지는 문제를 기록과 데이터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현 스님은 “AI를 활용하면 사찰 행정의 연속성과 매뉴얼화, 기록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심사의 기록 축적은 불교교육에서도 이어져 왔다. 중현 스님은 빛고을불교아카데미 강의 때마다 자체 제작한 교재와 그동안의 법문을 정리해 모두 6권의 책으로 발간했다. 영상과 녹취, 출판으로 이어진 강의 기록은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한 불교교육의 기초자료로 확장되고 있다. 중현 스님은 앞으로 AI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사찰 업무의 일상적인 도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AI를 쓰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될 겁니다. 평소 사용하는 모든 도구 안에 AI가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사찰도 그에 대비해 자료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대구 파계사, 국가유산 원통전 상량식

**420여 년 만에 해체보수**




대구 파계사(주지 법준 스님)는 8월 27일 원통전 해체보수 현장에서 ‘파계사 원통전 상량식’을 봉행했다.

이번 상량식은 일반적인 상량 방식과 달리 상량문을 상량함에 넣어 봉안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원통전 기존 도리에 이미 묵서로 상량과 관련한 기록이 남아 있어 이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상량문을 별도의 상량함에 봉안한 것이다.

상량문 봉독에 이어 법준 스님이 상량함을 봉안하고 상량보를 올리는 의식이 진행됐다. 참석 대중은 관음정근을 함께하며 원통전의 안전한 보수와 역사적 가치의 보존을 발원했다.

파계사 원통전은 1605년 공사를 시작해 1606년 중창을 마친 건물로, 2014년 보물로 지정됐다. 2021년 해체보수가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2024년 9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보수는 중창 이후 약 420년 만에 이뤄지는 대규모 해체보수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 철원 심원사, 자비나눔으로 백중 회향

**8월 23일, 400여 명 동참**



철원 심원사(주지 청현 스님)는 8월 23일 ‘병오년 백중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주지 청현 스님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400여 명의 신도들이 동참했다.

청현 스님은 법문을 통해 “지극한 마음으로 올린 백중기도는 모든 생명의 업장을 참회하고 품어 안으며, 모두를 향한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자 지극한 효의 실천이며 수행정진”이라고 강조했다.

심원사는 법회에 앞서 지역 내 파출소와 119안전센터, 소방서, 경로당 등을 찾아 떡과 국수, 간식 등을 전달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연수 스님, 장병 2000명 수계

**8월 22일, 논산 육군훈련소서**
**수계지원금 · 정기후원금 전달**


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장 연수 스님이 8월 22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연무관에서 열린 수계대법회에서 장병에게 연비를 하고 있다.

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장 연수 스님(봉서사 주지)이 육군훈련소 장병 2000명에게 삼귀의와 오계를 전하며 군 생활의 바른 마음가짐과 불자로서의 삶을 당부했다.

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은 8월 22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주지 혜총 스님) 연무관에서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육군부사관학교 호국충국사 선효 스님(소령 진급예정)이 인례법사를 맡고, 육군교육사령부 호국법련사 향산 스님(대위)의 집전으로 진행됐다.

계사로 법석에 오른 연수 스님은 “수계는 부처님의 제자인 불자로서 자격을 갖추는 것”이라며 “계는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이나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할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늠할 수 있도록 마음의 기준을 세워주는 가르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군 생활은 물론 사회에 나가서도 삼귀의와 오계를 가슴에 새기고 판단한다면 책임감 있고 성숙한 불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장병들은 참회를 통해 지난 허물을 돌아본 뒤 연비의식에 참여하고 삼귀의를 통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청정한 승가에 귀의할 것을 서원했다. 이어 계를 지키겠다는 다짐과 함께 수계의 증표인 수계첩을 받고, 수계 공덕을 일체중생에게 회향하고 모든 중생이 깨달음의 마음을 낼 것을 발원했다.

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은 군 포교 활성화와 장병들의 신행생활 지원을 위해 호국연무사에 수계지원금 1000만원과 육군훈련소 정기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 금산사 신도회, 고영섭 교수 초청 특강

**8월 23일, 전북불교회관서**



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 신도회(회장 한광수)가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8월 23일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4층 큰법당에서 열린 특강에서 고영섭 교수는 ‘귀일심원 요익중생 사상에 대하여’를 주제로 강의했다. ‘귀일심원 요익중생’은 신라 원효 대사의 핵심 사상이자, 생전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통해 실천 불교의 사표가 된 태공당 월주 대종사가 평생을 두고 강조해 온 가르침이다.

고 교수는 “귀일심원은 인간 본래의 순수한 마음이자 우주의 근본인 일심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며 “요익중생은 일심의 근원을 깨달은 바탕 위에서 고통받는 모든 생명을 구제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동국대 불교학, 석학들과 미래를 묻다

## 9월 3~4일 건학 120주년 국제학술대회

**스코엔 불교사본 연구**
**세계적 권위자 한자리**
**지역 및 현대 불교부터**
**AI시대 불교학까지 조명**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총장 윤재웅)가 건학 120주년을 맞아 세계 석학들과 함께 불교학의 전통과 미래를 조망한다.

동국대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HK+사업단은 9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 간 동국대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살아있는 전통, 펼쳐지는 도전: 동아시아 불교와 그 너머(Living Traditions, Unfolding Challenges: Buddhism in East Asia and Beyond)'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120년간 동국대가 축적해 온 불교학의 학문적 성취를 돌아보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불교와 불교학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크게 고전 불교문헌을 탐구하는 '문헌 연구'와 현대사회에서 불교의 변화와 역할을 살피는 '현대 세계와 불교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된다. 과거의 문헌을 정확히 읽고 해석하는 작업이 오늘날 불교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두 분야는 서로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된 연구 과제로 제시된다.

특히 첫날에는 세계적인 불교문헌 아카이브인 '스코엔 컬렉션(Schøyen Collection)' 연구를 이끌어 온 석학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끈다. '스코엔 컬렉션'은 중앙아시아와 인도 등지에서 전래된 다양한 불교 필사본을 포함하고 있어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 불교문헌의 전승 과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옌스 브라르비그 오슬로대 명예교수는 '스코엔 컬렉션의 불교 필사본: 연구사 개요'를 발표하며 컬렉션의 형성과 연구 경향을 종합적으로 소개한다. 초기 대승불교와 불교문헌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폴 해리슨 스탠퍼드대 교수는 컬렉션에 소장된 '심하 장군과의 대화' 필사본을 분석해 문헌의 내용과 역사적 의미를 살핀다. 마츠다 가즈노부 붓쿄대 명예교수는 마명의 일실된 〈장엄경론〉을 조명하고, 야오후미 도쿄대 교수는 근본설일체유부 율장 단편을 통해 고대 불교 율장 자료의 전승과 변용을 논의한다.

이어지는 '지역불교' 세션에서는 안준 미시간대 교수가 조선 초기 해원의례와 왕실 신앙을 다루며 크리스토프 퀴퍼스 룸비니국제연구소장이 국가 통치에 있어 불교적 세계관이 적용된 사례를 조명한다.

둘째 날에는 논의의 시선이 현대사회와 미래로 확장된다. 케이트 크로스비 옥스퍼드대 교수는 20세기 초 영국불교의 형성과정을 살피며, 동국대 교수 정덕 스님은 초고령사회인 한국에서 승가 노후 복지가 나아갈 방향을 조명한다.

불교사상 분야에서는 마크 블럼 UC 버클리대 교수가 근대성과 탈근대성이 불교에 던진 도전을 짚으며, 루치아 돌체 베네치아 카포스카리대 교수는 중세 일본 천태·밀교의 '본각' 담론을 발표한다.

마지막 'AI와 불교학' 세션도 관심을 끈다. 황순일 동국대 교수가 AI시대 불교학이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며, 불광대사전 영어 번역 프로젝트 편집위원 즈위에 스님은 〈불광대사전〉 영어 번역 과정에서의 LLM·에이전틱 AI 활용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스코엔 컬렉션 관련 연구 성과는 스코엔 컬렉션 신규 총서 '동국대 건학 120주년 기념판'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옛 경전을 깊이 연구하는 일과 오늘의 세상에 응답하는 일이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이번 대회의 두 분과가 함께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도 "이번 학술대회가 불교학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세계 학계와의 협력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 법당·법회 첨단 음향기술 한자리

**국제무대음향 · 영상산업전**
**9월 2~4일 서울 SETEC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법음(法音)은 사부대중의 신심을 북돋우고 수행과 포교의 인연을 잇는 중요한 매개다. 그러나 법당의 울림이나 노후화된 음향시설로 인해 스님의 법문과 염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찰의 건축적 특성과 법회 환경을 고려한 전문 음향·영상시설 구축이 필요한 이유다.

사찰 최신 무대기술을 살펴보는 'KOSOUND+STAGETECH 2026 국제 무대 음향·영상·조명·산업전'이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서울 학여울역 SETEC 제1·2·3전시장에서 열린다.

(사)무대음향협회와 서울전람㈜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 음향·영상·조명 관련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가한다. 법당과 대웅전은 물론 야외법회, 봉축행사, 산사음악회, 템플스테이 문화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이 소개될 예정이다.

전통 목조건축으로 지어진 법당은 높은 천장과 기둥, 벽면 구조로 인해 소리가 여러 방향으로 반사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출력이 큰 스피커를 설치하기보다 법당의 규모와 구조, 신도들의 위치 등을 분석해 소리의 방향과 범위를 조절하는 설계가 필요한 까닭이다.

특히 야외 봉축법회와 산사음악회에서는 넓은 공간에 균일한 음압을 전달하는 대형 음향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국내외 주요 오디오 브랜드의 라인어레이 스피커를 실제로 들어보고 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 방출 시연회도 진행된다.

사찰별 상황에 맞춘 일대일 상담도 마련된다. 법당 음향시설 교체부터 무선마이크, LED 영상장비, 무대 조명, 법회 중계와 방송 제어시스템까지 예산과 공간 구조를 고려한 통합 설계를 상담받을 수 있다. 여러 시설을 개별적으로 도입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 투자와 관리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시회 참관 대상은 전국 사찰 주지 스님과 종무소 관계자, 불교문화단체, 음향·영상·조명 및 방송시설 담당자 등이다. 사전등록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노덕현 기자



법인 스님의
## 문자반야

54 광심돈헐 헐즉보리(狂心頓歇 歇即菩提)

# 내 머리가 어디 갔지?

狂 心 頓 歇 歇 即 菩 提

어느 날 아침, 슈라바스티 성의 청년 연야달다는 거울을 보다가 문득 기이한 의문에 사로잡힌다. 거울 속에는 눈·코·입이 선명한 자신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거울 속에는 내 얼굴이 저토록 잘 보이는데, 정작 내 목 위에 붙어 있는 진짜 얼굴은 왜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지?'

허망한 의심에 빠진 그는 급기야 자신에게 머리가 없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성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울부짖는다. "내 머리가 어디 갔지? 누가 내 머리를 가져갔어!" 〈능엄경〉 제4권에 나오는 이 황당하면서도 극적인 우화는 거울 속 허상에 집착한 나머지 정작 목 위에 온전히 있는 진짜 머리, 곧 실상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미혹을 풍자한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연야달다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그 속에 비친 외부의 조건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한다. 사회적 명성과 인기, 높은 직함, 경제적 풍요와 소비의 즐거움처럼 타인의 시선이 만들어낸 기준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것이다. 그러다 평판이 흔들리거나 물질적 조건을 잃으면, 정작 자신의 본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존재 전체가 무너진 듯 불안해 한다.

바깥의 평가와 조건을 '진짜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현대판 연야달다가 되어 끝없는 갈증 속을 헤매게 된다. 세상의 인정을 좇느라 정작 내면의 본래 모습을 놓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본래면목은 애초에 사라진 적이 없다. 눈앞의 허상에 시선을 빼앗긴 탓에 늘 그 자리에 있던 자신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끝없는 방황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능엄경〉은 '광심돈헐 헐즉보리(狂心頓歇 歇卽菩提)'라는 말로 그 답을 제시한다. '밖으로 치닫는 미혹의 마음을 문득 내려놓으면, 그 내려놓은 자리가 곧 깨달음'이라는 가르침이다.

연야달다가 잃어버린 머리를 찾아 헤매던 마음을 멈추는 순간, 머리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음을 깨닫는다. 마찬가지로 행복과 평온도 바깥의 명성이나 물질에서 얻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평온과 충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 잠시 세상의 거울에서 눈을 돌려보자. 타인의 평가와 외부의 조건을 좇던 시선을 거두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자. 욕망이 잦아드는 그 자리에서 알게 된다. 내가 찾던 진짜 얼굴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다는 것을.

〈화순 불암사 주지〉

# 기차 타고 가을 템플스테이 갈까

## 9월 12일 영동 반야사 등 3개 코스 운영

가을을 맞아 템플스테이 열차 여행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이 "지난 3월 호남선, 4월 중앙선에 이어 오는 9월 12일 '경부선 템플스테이 테마 기차여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레일관광개발과 협업해 운영하는 이번 기차여행은 팔도장터관광열차를 타고 충청권 템플스테이 사찰을 방문하는 당일형 여행상품이다. 이번 경부선 기차여행은 충북 영동 반야사와 공주 이제사, 갑사 등 총 3개 사찰 코스로 운영된다.

반야사 코스는 점심 공양과 사찰 안내, 문수전 참배 후 편백나무숲으로 이어지는 둘레길을 걷는다. 이후 '달도 머물다 간다'는 뜻을 지닌 영동 월류봉과 레인보우힐링센터를 방문하며 자연 속에서 가을의 정취를 즐긴다.




이제사에서는 점심 공양과 '마음울림 특별 명상', 스님과의 차담을 진행한다. 이후 공주 무령왕릉과 왕릉원을 둘러보고, 공주한옥마을에서 족욕 체험을 하며 일정을 이어간다.

가을 풍경으로 이름난 갑사에서는 점심 공양과 주요 문화유산 관람, 둘레길 포행에 이어 한지 직사각과반 만들기를 체험한다.

상품의 예약은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 내 '템플스테이 기획전'에서 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인도 다람살라 달라이라마 친견 6일
진옥스님과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순례 일정입니다.
11월01일 출발~11월06일 도착(6일 일정)
■ 일정: 인천-델리-암리차르-다람살라-달라이라마 친견(법왕궁)-남걀사원,네충사원-암리차르-델리-인천
▶ 동참금 : 290만원(보시금 30만원 포함)



운성스님과 함께 떠나는 스리랑카 명상순례 8일
치유와 깨어남의 멘토 운성스님과 명상참선을 함께 하며, 불교성지 참배,
현지 위빠사나 수행센터 명상체험이 있는 멋진 순례 길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출발일 : 11월25일 출발~12월02일 도착
■ 일정: 인천-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불라-시기리야-폴론나루와-캔디-갈레-아훈갈라-콜롬보-인천
▶ 동참금 : 29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10월14일 출발~23일 도착
■ 일정: 인천-서안(진시황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 동참금 : 369만원

구화산, 불정궁,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출발일 : 10월19일 출발~24일 도착
▶ 동참금 : 169만원

중국 아미산,낙산대불,대족석굴 5일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과 낙산대불,
중국 4대석굴중에 하나인 대족석굴 순례
출발일 : 10월21일 출발~25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10일
11월 20일 출발~29일 (10일간)
■ 일정: 인천-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영축산-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아그라-델리-인천
▶ 동참금 : 320만원

미얀마 성지순례 8일
출발일 : 10월20일 출발~10월27일 도착(8일)
■ 일정: 인천-양곤-바간-헤호-짜익티요 황금바위-양곤-인천
▶ 동참금 : 360만원 황금바위 포함

미얀마성지순례 6일
12월01일 출발~12월06일 도착(6일간)
■ 일정: 인천-양곤-바간-헤호-양곤-인천
▶ 동참금 : 330만원

부탄성지순례 7일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성지 순례입니다.
출발일 : 10월21일~27일(7일간)
■ 일정: 인천-방콕-부탄 파로-팀푸-푸나카-파로-카트만두-인천
▶ 동참금 : 문의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마음여행사 검색

# 명상으로 마음을 치유하다…글로벌 명상 '한자리'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
명상체험부스 · 세계명상부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는 8월 22일 서울 세텍 제2전시실에서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체험 파트 행사인 '명상체험부스&세계명상부스' 개막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내외빈과 부스 참가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대행 선사가 전한 '주인공 관법'을 배울 수 있는 부스가 처음으로 운영돼 눈길을 끌었다.

**8월 22~23일 서울 세텍 전시장**
**사전예약 80% 상회…인원 증가**
**'주인공 관법' 체험 부스 첫 운영**
**"대행 선사 가르침 쉽게 전하고파"**
**뇌과학 · 에어리얼 공 명상 등 '다채'**



뉴로피드백 장치를 활용한 명상법을 소개한 '뉴로하모니 호흡명상' 부스.

한국불교 간화선부터 일본 묵조선, 러시아 정교회 이시하즘까지 다양한 세계의 명상 문화와 대행 선사의 '주인공 관법', 뇌과학 접목 명상 등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명상 수행법을 만날 수 있는 체험행사가 열렸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종학연구소(소장 정도스님)는 8월 22일 서울 세텍(SETEC) 제2전시실에서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 체험 파트 행사인 '명상체험부스&세계명상부스'를 개막했다.

동국대 교내에서 진행됐던 '명상체험부스&세계명상부스'는 지난해부터 세텍으로 자리를 옮겨 운영됐다. 행사 장소가 외부로 옮겨지면서 참여 계층이 확대돼 종교를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행사장을 찾고 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실제 행사 참여 정원 2002명 중 사전예약률은 80%를 상회했으며, 인기 부스는 예약 인원이 모두 마감되는 등 참가 인원도 증가했다.

올해 명상체험부스에는 총 24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참가자들은 호흡명상을 비롯해 걷기·몸 알아차림·마음챙김·명상상담·선명상 등 자신의 관심과 취향에 맞는 명상을 전문가의 지도 아래 직접 체험했다.

특히 한마음선원을 창건하고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가 전한 생활선 수행법인 '주인공 관법'을 배울 수 있는 부스가 처음으로 운영돼 눈길을 끌었다. 현재 동국대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청일 스님이 지도하는 '내 안의 주인공을 만나는 명상'은 대행 선사의 '주인공 관법'을 통해 자신에게 본래 갖춰진 불성인 '주인공'을 믿고 맡겨놓고 지켜보는 과정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공부를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명이 정원인 부스 수업은 30분 단위로 3명의 스님이 돌아가며 지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수업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사전예약은 모두 마감됐고, 현장예약분도 빠르게 소진됐다.

청일 스님은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일반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왔는데, 학교 석·박사과정 학생이 부스를 기획·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직접 참여하게 됐다"면서 "주인공이 나의 '근본'이자 '뿌리'임을 알고 믿고 맡겨놓고 지켜보고 실천하는 과정을 연결시키고 반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참가자들에게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대행 선사가 전한 법(法)을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한다. 이번 부스 운영은 그 과정의 일환"이라며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스 참가자들은 모두 '주인공 관법'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동덕여대 불교동아리 '향연' 회원인 김은성(21, 서울 서대문구) 씨는 동아리 지도법사 청훈 스님에게 '주인공 관법'을 수차례 지도받은 유경험자였다. 김 씨는 "주인공을 부르면서 주인공에게 마음을 내는 것이 수행의 포인트"라면서 "'주인공, 너는 할 수 있어, 너만 믿을게'라고 주인공을 믿고 맡겨놓고 지켜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자신감 있게 생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인공 관법 등 명상 수행을 지속적으로 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동국대에서 석사과정을 수학하고 있는 조양미(56, 서울 동대문구) 씨는 이번 부스 수업을 통해 '주인공 관법'을 처음 접했다. 조 씨는 "처음 주인공 관법을 접했을 때는 간화선인가 했는데, 조금 뒤에는 위빠사나로 이해되다가 마지막에는 전혀 다른 수행법임을 알게 됐다"면서 "간화선과 위빠사나는 처음에는 접근하기 어려운데 반해 주인공 관법은 접근이 매우 용이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더 체험하고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깊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뉴로피드백 장치를 활용한 명상법을 소개한 부스도 눈길을 끌었다. '뉴로하모니 호흡명상' 부스에서는 뇌파 측정 장비를 활용해 현재 자신의 상태를 살피고 호흡과 심상훈련을 통해 스스로 편안한 명상 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김지수 뉴로피드백센터장은 "뇌파 측정 후 그에 맞는 명상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동시에 전두엽에 계속 신호를 보내 뇌에 보상을 주게 된다"면서 "뇌의 신경을 강화시키면서 하는 명상"이라고 설명했다.

〈금강경〉 '사구게' 사경과 마음챙김을 접목해 집중명상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통합치유 명상프로그램인 '안온한 금강경 사경 명상'을 비롯해 젠링(Zenring), 싱잉볼, 거울, 사진, 아로마, 퍼스널 컬러 등의 아이템을 활용한 명상 부스들도 눈길을 끌었다.

11개국이 참여한 세계명상부스에는 각국의 다양한 명상 전통과 현대 명상 실천법이 소개됐다. 참가자들은 국내외의 전통 명상과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다양한 명상법을 직접 체험하며 자신에게 맞는 마음돌봄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

부스에서는 한국의 간화선, 일본의 묵조선, 태국의 마음멈춤 명상, 미얀마의 호흡명상 등 불교 전통 명상수행부터 이슬람 수피 전통 수행인 튀르키예의 기억명상 '지크르', 러시아 동방정교회의 대표 관상 수행인 '이시하즘', 하와이 전통 챈트와 훌라가 어우러지는 춤 명상 수행법인 '훌라 카히코'가 소개됐다.

앞서 열린 개막식에서 내빈들은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치사를 통해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한국 명상의 지혜를 널리 알리고 세계 각국의 명상 문화가 서로 만나 교류하는 장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명상 문화가 세계와 소통하며 K-명상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서원했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동국대는 명상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살피는 경험이 일상의 변화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서울국제명상엑스포를 통해 한국의 명상 문화가 K-명상의 열린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혼란의 시대 명상은 단순한 휴식이나 스트레스 관리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다. 명상은 우리의 본성을 바르게 통찰해 잃어버린 인간다움과 관계를 회복하는 지혜의 길이기 때문"이라며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아름다운 깨어남을 위한 위대한 출발점이 되길 소망한다"고 기대했다.

행사는 23일까지 이어졌다. 특히 △들숨날숨과 함께하는 명상음악 △일본 염불명상 △튀르키예 회전명상 세마 △하와이 카히코 훌라 세리머니 △티베트 명상 등의 명상공연이 이어져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편,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대주제로 열리는 제7회 서울국제명상엑스포는 체험 파트와 더불어 학술·교육·문화 등 총 4개 분야에서 다채로운 명상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학술 파트의 '명상 콘퍼런스'는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서울 동국대 본관 남산홀에서 개최되며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교육 파트에서는 '불교명상 프로그램 개발' 및 '명상루틴 콘텐츠'가 진행되며, 문화 파트에서는 선명상 콘서트가 열린다. 선명상 콘서트는 9월 18일 오후 4시 30분 동국대 본관 남산홀에서 개최되며 전 연령층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퓨전 공연과 현대적 명상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틱낫한 스님의 『안반수의경』 해설
숨을 쉬세요, 당신은 살아 있어요!
불교 수행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수행인 수식관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아나파나사티 숫타(안반수의경)』를 틱낫한 스님이 쉽고도 현대적으로 해설하였다.
틱낫한 지음, 허우성 옮김/국판변형/192쪽/값 14,000원

교실에서 붓다의 가르침 실현하기
불교로 가르치다
붓다의 대화법과 마음챙김 수행을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가르침과 배움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교육 실천서로, 일방 주입식 교육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다.
시드 브라운, 신희정 옮김/신국판/320쪽/값 22,000원

불교와 서양 심리학의 만남
새로운 불교심리학
12개국 38명의 저자가 서양 심리학의 연구 방법론과 불교의 실천적 지혜를 융합하여 새로운 통합 심리학 모델과 이론을 소개하는 기념비적인 책이다.
모리츠 키 외 편집, 윤희조·박재은 옮김/신국판/872쪽/값 5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26~9/1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불교성전 | 불교성전 편찬위원회 | 조계종출판사 |
| 2 | 우란분재 | 편집부 | 조계종출판사 |
| 3 |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 일아 역편 | 민족사 |
| 4 | 우리말 법화경 | 편집부 | 운주사 |
| 5 | 매일 108배 자비도량참법 | 행복문화연구소 | 붓다스쿨 |
| 6 | 부모은중경(큰글씨 한글경전) | 경전연구모임 | 불교시대사 |
| 7 | 붓다에게 물어봐 | 박영동 | 도서출판해조음 |
| 8 | 정목 스님의 하루명상 | 정목 | 수오서재 |
| 9 | 관무량수경 | 김현준 | 효림 |
| 10 | 밀어붙여라(K-Culture의 정수 수불선사의 간화선) | 수불 | 도서출판해조음 |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싯다르타 | 헤르만헤세/박병덕 | 민음사 |
| 2 | 요가디피카 | 아헹가/현천 역 | 선요가 |
| 3 | 보리도차제광론2 | 쫑카파 | 도서출판나란다 |
| 4 | 체계불학 | 김성철 | 오타쿠 |
| 5 | 인생이 흔들릴 때 열반경 공부 | 자현 | 불광출판사 |
| 6 | 중관학 특강 | 김성철 | 오타쿠 |
| 7 | 화: 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 틱낫한/허우서,허주형 | 운주사 |
| 8 | 초기불교 입문 | 각묵 | 초기불전연구원 |
| 9 | 한글 아함경 | 고익진 엮음 | 담마아카데미 |
| 10 |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 사라스와띠 | 한국요가출판사 |

# 그림 동화로 만나는 부처님 전생담



숲속 동물들의 마음 수업
글 · 그림 박혜원
담앤북스
1만9000원

**'어린이 눈높이' 자타카 5편**
**독후 활동으로 마음공부 안내**
**섬세한 필치의 삽화 온기 전해**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화를 참지 못하거나 친구를 질투하고, 무엇이든 독차지하려는 아이에게 원론적인 훈계나 부처님 가르침은 와닿지 않기 마련이다. 이럴 때 동물들의 이야기를 빌려 마음을 다독여보는 건 어떨까?

〈숲속 동물들의 마음 수업〉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담은 불교 경전 〈자타카(본생담)〉 중 다섯 가지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풀어낸 그림 동화다. 미국에서 산업디자인과 순수미술을 전공한 박혜원 작가의 첫 그림 동화책으로, 부처님이 전생에 여러 동물로서 마주했던 순간들을 통해 아이들이 마음을 스스로 들여다보게 돕는다.

각각의 이야기는 누군가를 흉내 내고 싶었던 마음부터 용기를 내야 했던 순간, 믿었던 이에게 상처받은 기억, 그리고 서로에게 다시 손을 내미는 화해의 순간까지 다양한 서사를 다룬다.

'여우와 사자 가죽'은 사자 가죽을 뒤집어쓴 채 숲속 동물들을 속이던 여우가 열등감을 벗어던지고 참된 자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그린다.

'고슴도치의 숲'은 작은 소리에도 가시를 곤두세우던 고슴도치가 흔들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두려움 앞에서 평정심을 찾는 법을 전한다.

'사슴과 까마귀, 그리고 거북이'는 위기의 순간, 힘을 모으는 세 친구를 통해 연기와 우정의 가치를 일깨운다.

'금빛 사슴'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 앞에서도 미움 대신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황금 백조'는 지나친 탐욕을 경계하고, 현재 가진 삶에 감사하는 자세를 각각 보여준다.



박혜원 작가의 '금빛 사슴'. 그림 제공=담앤북스

저자 박혜원 작가의 그림은 이야기에 온기를 더한다. 작고 힘이 없음을 슬퍼하는 여우와 두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가라앉힌 고슴도치, 배신자에게 용서로 응한 사슴의 눈망울까지, 장면마다 다양한 감정을 전하는 섬세함이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각 이야기 끝에는 '생각해 보아요', '몸으로 따라 해요', '쪽지를 써 보아요' 등 독후 활동을 배치해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에 답하고 동작을 따라 하며 이야기 속 교훈을 자연스럽게 체화하도록 이끈다.

다섯 편의 글과 그림을 따라가다 보면 아이들은 타인을 흉내 내지 않아도 스스로 이미 충분히 빛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나아가 위기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침착함,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인연의 고마움, 미움 대신 용서와 믿음으로 상대를 품어주는 성숙한 마음까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전 해인사 승가대학장 종묵 스님은 "뛰어난 그림과 깔끔한 글로 부처님 말씀을 즐겁게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 책을 추천했다.

박혜원 작가는 "두려움을 이겨 내고 실수를 통해 배우며 자신을 받아들이는 동물들의 모습이 아이들의 성장과 닿아 있다"며 "두 아이를 키우며 말보다 이야기가 더 깊이 마음에 닿는다는 것을 배웠기에 아이들에게 〈자타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천 년을 건너온 〈자타카〉의 이야기가 오늘의 아이들 마음에도 닿아, 오래도록 함께 걸어가는 친구가 돼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부처님 가르침, 교실을 바꾸다



불교로 가르치다
시드 브라운 지음
신희정 옮김
운주사
2만2000원

**연기 사상 · 수행 전통, 교육 접목**
**'매일 명상' 등 현장 실천 과제 제시**

〈불교로 가르치다〉는 미국의 불교학자 시드 브라운 미국 서와니대 교수가 불교 사상과 현대 교육학의 결합을 모색한 교육 지침서다. 30여 년간 강단을 지켜온 저자의 교육적 성찰을 바탕으로 주입식 교육의 한계를 짚고, 불교의 연기(緣起) 사상과 수행 전통을 교실에 접목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 '불교와 환경' 수업 등 저자의 대학 강의 사례를 중심으로 총 9장에 걸쳐 현장의 실천 과제를 다룬다.

저자는 교사들의 매일 정해진 시간의 명상이 학생들에게 더 집중하게 하고, 주의가 산만한 학생을 수업으로 돌아오게 하는 등 교육 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고 역설한다. '학생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깊게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내뱉으며 진정성과 환영을 담은 미소 짓기' 등 저자가 제시한 구체적 지침이 학생의 흩어진 주의를 '지금-여기'로 자연스럽게 돌려놓는다는 설명이다.

이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으로 인해 자애 명상을 실천했던 경험을 전하며, 자애 명상이 교사와 학생의 두려움과 증오를 극복하도록 돕는 방안임을 보여준다. 이를 꾸준히 실천할수록 교실에서 더 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저자는 자애로움이 충만한 교사가 교실에서 '날뛰는 코끼리'를 멈출 수 있으며 매일 가르침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자애와 이해심을 기르는 방식으로 경청의 자세를 익히게 한 수업 사례도 제시한다. 이밖에 부처님이 여성 승가를 성립시키며 타인의 제안을 받아들인 사례를 들며 가르침의 상호성을 강조하고, 교사 역시 학생의 질문을 통해 배우는 존재라고 설명한다.

저자는 이처럼 교실 내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을 조명하며, 이것이 교육의 본래 가치를 되찾아주고, 교사의 성장을 이끄는 토대가 된다고 강조한다.

배희정 기자

# '바치는 수행' 실천한 삶



참 영원한 성자들의 크신 사랑
김원수 지음
김영사
1만6800원

**백성욱 박사 제자 최의식 일대기**
**참된 불자로 거듭나는 여정 그려**

한국 최초의 독일 철학박사이자 내무부 장관, 동국대 총장 등을 지낸 고(故) 백성욱(1897~1981) 박사. 그는 출가 후 환속해 〈금강경〉 독송의 중요성을 알리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그 가르침을 올곧게 이어받았으나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가 있으니, 바로 한국은행 출납부장을 지낸 고(故) 최의식(1918~2015) 선생이다.

김원수 백성욱박사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은 두 사람의 인연과 수행을 담은 〈참 영원한 성자들의 크신 사랑〉을 펴냈다.

저자가 1990년 무렵부터 20여 년간 최의식 선생 곁에서 지켜본 기록을 바탕으로 한 일대기다. 실제 인물과 일화를 토대로 대화와 장면을 재구성한 넓은 의미의 팩션(Faction) 형식을 취했다.

책은 백성욱 박사의 가르침 아래 평범한 청년 최의식이 철저한 계율과 하심(下心)을 실천하는 불자로 거듭나는 여정을 그렸다. 1943년 치악산 상원사에서 백 박사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가르침을 삶으로 구현해 간 과정을 일대기 6편과 저자의 단상으로 담았다.

특히 백성욱 박사의 가르침을 지남(指南) 삼아 평범한 일상을 수행의 장으로 바꾼 최의식의 삶은, 진정한 수행자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실천으로 완성됨을 보여준다.

최의식이 귀 기울인 스승의 핵심 가르침은 '바치는 수행'이었다. 번뇌나 위기가 닥쳤을 때 감정을 억누르거나 해결하는 대신, 올라오는 생각을 부처님께 그대로 바쳐 소멸시키는 방식이다.

백 박사는 〈금강경〉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부처님으로 만들겠다(我皆令入 無餘涅槃 而滅度之)'는 구절을 실천적으로 해석한 것이 바로 이 수행이라고 설명했다. '불쌍하다, 안타깝다' 등 실재하지 않는 생각에서 벗어나 모든 마음을 부처님께 바치는 수행을 거듭하면서, 최의식은 무거운 마음의 짐을 덜고 갈등 속에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체화했다.

백 박사는 맹목적 기도가 이기심의 발동일 뿐이며, '섬기는 마음'을 낼 때 모든 것이 이기심이 만든 허상임을 깨닫게 됨을 강조했다.

나아가 여러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대승의 길'이야말로 참된 수행이며, 이 마음을 낼 때 고통이 사라지고 수행이 발전한다고 역설했다. 또 마음 닦은 대로 삼라만상이 펼쳐지며, 인과응보의 법칙은 지극히 엄정하다고 당부했다.

스승의 가르침을 올곧이 이어받은 최의식은 평생 오계(五戒)를 엄격히 지키며 재능을 과시하거나 이익을 탐하지 않고 베푸는 삶을 살았다. 붐비는 지하철에서 발이 밟혀도 먼저 사과할 정도로 겸손이 몸에 밴 그는 모든 사람을 부처님 대하듯 하며 스스로를 낮췄다.

그는 "선지식의 가르침을 성실히 따른 결과 나쁜 일도 결국 행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다"고 고백했다.

이 책은 교보문고 7월 4주차 베스트셀러 5위에 오르는 등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사 측은 "평범한 한 사람이 수행을 통해 거듭나는 과정과 그 가르침을 보다 쉽고 생생하게 전달한 점이 독자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배희정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기획
⑥ 38대 집행부에 바란다

##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기후·생태위기는 눈앞에 피해가 즉각적으로 드러나기보다 서서히 누적되므로 다른 현안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나기 쉽다. 그러나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 문제로 떠오른 지금은 이를 종단 핵심 종책으로 설정하고 중장기 기본 계획을 마련할 때다.

조계종은 2006년 ‘불교환경의제21’을 선언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점검할 실질적인 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이제는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갈 기반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조계종 사회부와 환경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총괄 체계를 마련하고, ‘탄소중립 2045’ 로드맵을 비롯해 녹색사찰, 재생에너지 전환, 사찰림 보호 등을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종단이 관리하는 사찰림을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공익적 자산으로 바라보고, 국가보전 자산(자연공존지역) 등재 등 사찰림 보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 문명이 가져올 생태적 영향에 대응하는 불교적 환경 윤리도 정립해 나가길 기대한다.

## “다문화 아이들의 울타리 되길”

**한국다문화불교연합회장 담마끼띠 스님**



다문화 인구 300만 시대다. 이주민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다문화 아이’로 구분되고 배제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교육과 경쟁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불교계가 먼저 안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차기 집행부는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종단 차원의 장학 제도를 마련하고, 일회성 사업을 넘어 최소 10년 이상 학업과 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장기 종책을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성장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과 생활 돌봄을 연계하고, 다문화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 조성을 위해 ‘대안학교’ 설립과 같은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은 아이들에게 불교에 대한 신뢰와 유대감을 심어주고, 장기적으로는 신행과 불교 인재 양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차기 집행부는 이들의 성장 과정을 함께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란다.

## “신도조직 활성화로 결속력 강화”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재가불자들을 대표해 제38대 집행부에 바라는 점은 무엇보다 선거 과정에서 비롯된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사부대중의 화합과 소통을 통해 종단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더불어 승가와 재가가 서로의 역할과 뜻을 존중하며 한국불교의 중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종단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또한 교구신도회와 신도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전국의 불자들이 더욱 조직적으로 결속하고 포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이를 바탕으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실질적인 포교 종책을 통해 한국불교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가기를 기대한다.

중앙신도회 역시 종단을 외호하는 재가불자 대표조직으로서 제38대 집행부와 함께 사부대중의 화합과 한국불교의 발전과 중흥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

## “포교 전문 인력 양성 지원”

**강의수 조계종 포교사단장**



포교사단은 선명상·수행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문 지도 인력’ 육성 지원 확대를 요청한다. 종단 표준 선명상 및 수행 프로그램이 군부대, 병원, 교도소, 지역사회 등 전법 현장에 신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포교 대상 정예 연수 과정을 정례화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불교문화해설, 불교의례 등 현장 맞춤형 재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포교사의 전문성을 높여주길 바란다.

디지털·AI 포교 인프라 구축 및 포교부와의 실천적 파트너십 강화에 힘써주길 바란다. 총무원 포교부와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일선 포교 현장의 목소리가 종단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 주길 당부드린다.

종단 행정이 교구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각 지역 교구본사와 지역 포교사단이 실질적인 전법의 중심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연계 지원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지역 현장 특성에 맞는 자율적이고 원활한 포교 활동의 기틀을 마련해주길 부탁한다.

포교사 위상 제고 및 지속가능한 인재 양성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 자발적인 원력으로 사회 음지 곳곳에서 전법과 봉사를 실천하는 포교사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종단에서 세심하게 살펴주길 바란다.

## “‘사무량심 실천’ 전법 종책 구현”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그동안 대학생 전법은 사찰과 불교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방식으로 젊은 세대와 만나왔다. 청년들이 받아들이는 가르침은, 자신이 꿈꾸는 세상에 얼마나 합치하는가가 중요하다. 이제는 ‘대학생 전법 2.0’을 할 때다.

그 중심에는 ‘사무량심(四無量心)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 사무량심은 개인의 마음 다스림에서 출발하지만, 그 본질은 타인과 공동체를 향해 확장되는 성격을 갖는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차별·불공정에 대한 문제의식, 공동체를 위한 참여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미 체화돼 있고 불교적 가치와도 연결된다.

오늘의 대학생들이 불교에 기대하는 것은 현실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하는 위안만이 아니다. 차별과 불공정을 마주한 이들에게 “마음을 편안히 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너무 모르는 소리다. 그들은 불교가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어떻게 힘을 보태 줄 것인지를 묻는다.

차기 집행부는 ‘불교를 알려주는 전법’에서 ‘불교와 함께 아픈 세상을 바꿔나가는 전법’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학생들이 지역사회 봉사, 환경, 인권, 돌봄 등 사회적 의제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사무량심을 경험하도록 지원하길 기대한다.

## “생애주기 맞는 포교 필요”

**이길수 대한불교청년회장**



최근 불교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관심을 얻고 있다. 그러나 불교에 대한 문화적 관심이 곧 청년불자로서의 지속적인 신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첫만남이 정기적인 법회와 교육, 수행과 봉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과 지속가능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새로운 행사와 프로그램을 기획하기에 앞서 전국 사찰과 청년회의 현실을 살피고, 청년회가 사라지는 이유와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청년포교를 일회성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종단 정책으로 세우고, 단기·중기·장기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단기적으로는 전국 청년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청년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교육·운영 등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중기적으로는 지역별 청년불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도자를 양성하며, 직장·결혼·육아 등 생애주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청년이 포교정책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정책 수립과 실행에 직접 참여해 수행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신행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청년이 불교 안에 머물며 인연을 맺고 함께 성장하는 불교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 “종단의 안정적인 지원 요청”

**선민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최근 불교가 청년들에게 힙(Hip)하고 핫(Hot)해진 것은 불교가 보여준 탈권위적이며 모범적인 모습과 청년들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힘이 됐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청년 전법 활성화의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보다 많은 대학생 청년들의 삶 속에 불교가 함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종단의 인적·물적 지원이 제도적인 틀 속에서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이 일상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불교를 처음 만날 수 있는 대학교 내 불교동아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또한 불교의 역할이 청년 마음 치유에서 나아가 주거, 취업 등 일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청년층에게 하나의 트렌드이자 소비문화로서 인식되고 있는 불교가 앞으로는 청년 불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쉬운 불교, 일상과 가까운 불교로서의 프로그램과 내용을 갖춰 가면 좋겠다.

앞으로도 불교가 청년들의 몸과 마음의 위안과 안식이 되며 그들이 현실의 문제를 이겨내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기를 바란다.

## “차별 없이 수행하는 불교공동체”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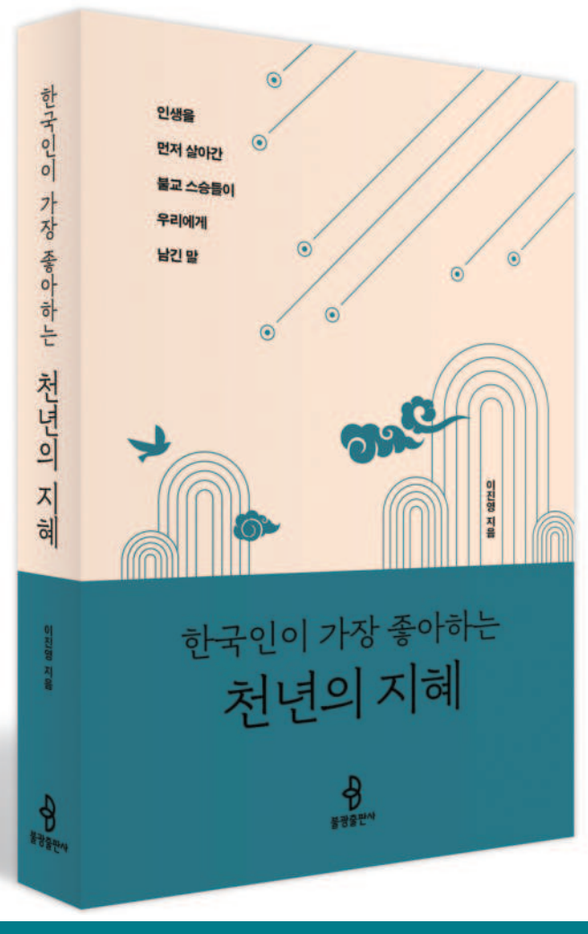
모든 불자가 평등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변화를 만들어 주기를 서원한다.

첫째, 사찰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기본적인 수준은 돼 있으나, 실질적인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경사로와 장애인 화장실, 안전한 이동 통로를 설치해 휠체어를 타는 이들이 제약 없이 법당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길 바란다.

둘째, 실질적인 수행과 신행, 포교가 이뤄지도록 살펴줬으면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 자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과 자막,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불교 교육 등 장애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돌봄이 마련돼야 누구나 깊이 있게 수행할 수 있다.

셋째, 장애 불자 당사자들이 직접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행 프로그램과 소통 창구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종책을 세울 때 어린이, 청소년, 다문화 불자들을 중심에 둔 것처럼 장애인 분야도 그 범위에 넣어 장애 불자들의 포교를 활성화를 요청한다.

넷째, 장애 불자를 일방적인 시혜 대상이 아닌 신행과 포교의 주체로 바라봐달라. 장애 불자들이 자신의 재능으로 사찰과 사회에 봉사하고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우리가 찾아 헤맨 인생의 답은
모두 고전 안에 있다!

천년의 세월에도 녹슬지 않는 인생 스승들의 지혜 한 구절

인생을 먼저 살아간 불교 스승들이
우리에게 남긴 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천년의 지혜

이진영 지음 | 320쪽 | 18,000원

마음에 새긴 문장이 바뀌면
내 인생도 바뀐다!

나를 다스리는 법부터
사람과 세상을 대하는 기준까지,
복잡한 삶의 문제를 꿰뚫는
한 줄의 통찰

“사는 게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한 줄 인생 수업”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리즈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
이진영 엮음, 무비·원철·정목 감수 | 296쪽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선문답
장응연 지음, 도법·원철·신규탁 감수 | 232쪽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절집 말씀
목경찬 지음 | 304쪽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 정법 전승과 깨달음 향한 동반자

**금강스님의 계율 이야기**

⑧ 불교의 호법신장(외호자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婆蹉白佛 置比丘尼 有一優婆塞(優婆夷)修諸梵行 於此法 律度狐疑不.**

**佛告婆蹉 不但一 二 三 乃至五百優婆塞(優婆夷) 乃有衆多優婆塞(優婆夷)修諸梵行 於此法 律斷五下分結 得成阿那含 不復還生此.**

**바차 종족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비구는 놓아두고, 혹 어떤 우바새(우바이)로서 이 법과 율에서 모든 번뇌를 없애고…(내지)… 후생에는 몸을 받지 않을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바차 종족에게 말씀하셨다. "다만 하나 혹은 둘, 셋 나아가 5백 명의 우바새(우바이)뿐만이 아니다. 많은 우바새(우바이)가 모든 범행을 닦고 이 법과 율 안에서 욕계의 다섯 가지 결박[五下分結]을 끊어 아나함(阿那含)을 얻으며 다시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 〈잡아함경〉 권34 '출가경' –

사찰을 방문하면 우리는 서로 합장하며 인사한다. 합장은 출가자와 재가자를 가리지 않고 행하는 사찰의 인사법이다. 깨달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에 합장과 함께 "성불합시다" 또는 "성불하세요"라고 인사하는데, 여기에는 깨달음을 이루어 부처가 되기를 바라는 서원이 담겨 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불교 공동체는 출가자와 재가자로 구성되며, 이를 사부대중이라 부른다. 출가자와 재가신자는 서로 의지하며 공생(共生)하는 관계다. 붓다께서 깨달음을 성취하기 전 공양을 올린 이도 재가자였고, 깨달음을 성취한 뒤 붓다의 설법을 듣고 처음으로 불교에 귀의한 따뿟사와 발리까 역시 재가신자였다. 이처럼 재가신자는 불교의 시작부터 함께해 왔다.

불교가 인도 사회에 정착하고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을 준 대표적인 재가신자는 빔비사라왕이다. 빔비사라왕은 붓다께 포살과 안거를 제안하고 최초의 사원인 죽림정사를 기증했으며, 평생 불교를 후원하고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했다. 출가자가 붓다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 정진하며 깨달음을 추구한다면, 재가신자는 불교를 후원하고 사회 속에서 그 가르침을 실천한다. 재가신자에게 불교는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길이면서, 더 나은 삶을 지향하며 선업을 쌓는 길이기도 하다. 재가신자는 깨달음을 추구하고 불법을 외호하며, 승가 구성원에게 공양과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교단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가신자는 불법을 지키고 전하는 중요한 외호자라 할 수 있다.

불교 교단의 기본 구성원인 사부대중은 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를 말하며, 각자는 자신의 역할에 따른 본분을 실천한다. 불교에 귀의한 남성 재가신자를 우바새(upāsaka, 優婆塞), 여성 재가신자를 우바이(upāsikā, 優婆夷)라고 부른다. upāsaka에는 '가까이에서 모시는 사람', '존경하고 섬기는 사람'이란 의미가 있다. 중국의 현장 스님은 이러한 뜻을 살려 '가까이 모시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근사(近事)로 한역하고, 남녀를 각각 근사남(近事男)과 근사녀(近事女)라 했다. 우바새와 우바이는 삼귀의와 오계를 수지함으로써 사부대중의 정식 구성원이 되고, 승가와 더불어 불교 교단의 한 축을 이룬다.

재가신자는 불교를 후원할 뿐 아니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의 과(果)를 성취할 수도 있다. 〈잡아함경〉 권34 '출가경'에 따르면, 부처님의 가르침과 율에 의지해 다섯 가지 하분결, 곧 유신견(有身見), 계금취견(戒禁取見), 의심[疑], 욕탐(欲貪), 진에(瞋恚)를 끊으면 아나함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속가에 머물며 자식을 기르고 세속의 즐거움을 누리더라도, 가르침과 율에 의지해 수행하면 수다원(須陀洹)이나 사다함(斯多含)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한다. 전통적으로 재가신자는 아라한과(阿羅漢果)를 제외한 세 가지 성자의 과를 성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밀린다왕문경(나선비구경)〉에서 나가세나 비구는 재가신자가 아라한과를 성취하면 그날 바로 출가하거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 재가신자, 교단 후원과 불법 전승·수호
> 바른 계행과 수행으로 깨달음 성취 可
> 오계 받아 모두 지키는 것이 기본 자세
> 먼저 지킬 수 있는 계부터 충실히 실천

**Abhikkantaṃ bho Gotama, abhikkantaṃ bho Gotama. Seyyathā pi bho Gotama nikkujjitaṃ vā ukkujjeyya, paṭicchannaṃ vā vivareyya, mūḷhassa vā maggaṃ ācikkheyya, andhakāre vā tela-pajotaṃ dhāreyya : cakkhumanto rūpāni dakkhintîti, evam eva bhotā Gotamena aneka-pariyāyena dhammo pakāsito. Esâhaṃ Bhagavantaṃ Gotamaṃ saraṇaṃ gacchāmi dhammañ ca bhikkhusaṃghañ cam upāsakam maṃ bhavaṃ Gotamo dhāretu ajjatagge pāṇupetaṃ saraṇaṃ gataṃ.**

**時種德婆羅門白佛言 : 今我歸依佛 法 聖衆 唯願聽我於正法中爲優婆塞.**

**自今已後 盡形壽不殺 不盜 不婬 不欺 不飮酒.**

**세존 고타마시여, 미묘하십니다. 세존 고타마시여, 미묘하십니다. 마치 넘어진 것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것과 같이, 방황하는 자에게 길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눈이 있는 자는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며 어둠 속에 등불을 들고 오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고타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설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저는 세존 고타마께 귀의합니다. 법과 비구 승가에 귀의합니다. 세존 고타마는 저를 '지금부터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귀의하는 우파사카'로서 섭수하여 주십시오.**

– 〈디가니까야〉 '소나단다경(종덕경)' –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바른 계행이 중요하다. 재가신자의 계행은 오계를 받고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 오계는 '불살생·불투도·불사음·불망어·불음주'로 표현되며, 흔히 '불(不)'을 '하지 말라'는 금지의 뜻으로 풀이해 계행의 실천을 강조한다. 그러나 계문에 쓰이는 'veramaṇī'는 단순한 금지를 넘어 '멀리 떠남', 곧 악한 행위에서 스스로 벗어나겠다는 자발적인 결의를 뜻한다. 누군가의 강요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악을 짓지 않고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살린다면 '떠날 이(離)' 자를 써서 '이살생·이투도·이사음·이망어·이음주'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재가신자는 원칙적으로 오계를 모두 받고 실천해야 한다. 다만 붓다의 열반 이후 불교가 발전하면서 재가신자의 삼귀의와 오계 수지에 대한 관점도 다양해졌다. 특히 부파불교 시대에는 실천할 수 있는 계목만 선택해 받는 부분수계[分受]에 관한 논의가 나타났다.

재가신자의 부분수계를 잘 설명하는 논서는 용수보살이 저술한 〈대품반야경〉의 주석서 〈대지도론〉이다. 이 논서에서는 오계를 모두 수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면서도 부분수계를 함께 설명한다. 오계 가운데 한 계만 받으면 일분행(一分行) 우바새, 두 계 또는 세 계를 받으면 소분행(少分行) 우바새, 네 계를 받으면 다분행(多分行) 우바새, 다섯 계를 모두 받아 실천하면 만분행(滿分行) 우바새라 한다. 또한 재가신자가 음행을 완전히 끊으면 단음(斷婬) 우바새라 하는데, 이는 단지 '불사음'을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음행을 끊은 경우를 뜻한다. 〈대지도론〉은 이처럼 계를 수지하는 방식에 따라 우바새를 다섯 유형으로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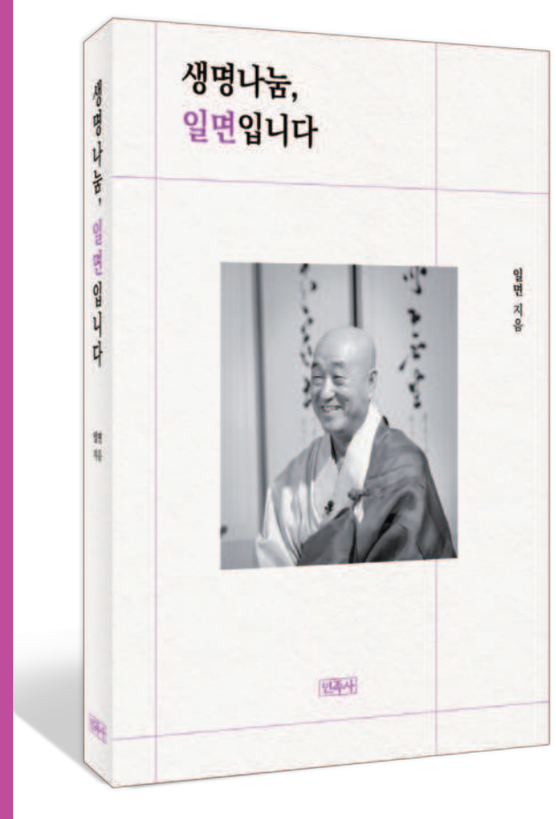
모든 계를 받아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가신자의 모습이다. 비구에게 적용되는 이부정(二不定)이라는 처벌 조항에는 '믿음이 있는 우바이'가 등장한다. 이는 삼보를 믿고 오계를 실천하며, 사건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진실하게 말하여 그 증언이 허망하지 않은 사람을 뜻한다.

이처럼 오계를 받아 지키는 것은 재가신자의 기본적인 자세이다. 그러나 오계를 모두 받아 실천하기 어렵다면, 〈증일아함경〉 권20 '성문품'에서 설명하듯 실천할 수 있는 계는 지키고 실천하기 어려운 계는 '봉(封)해 둔다'는 태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곧 당장 실천하기 어려운 계는 마음속에 봉해 두고, 먼저 지킬 수 있는 계부터 받아 충실히 실천하는 것이다. 자신이 받은 계를 성실히 지키는 것이 바른 지계이며, 바람직한 재가신자의 모습일 것이다. 오계의 실천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토대가 되고, 재가신자는 수행을 통해 성자의 과를 성취할 수 있다. 경전은 재가신자에게도 깨달음의 길이 열려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승가와 재가로 이루어진 사부대중은 각자의 자리에서 불교를 지키고 전승하는 동시에, 함께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다.



금강 스님
해인총림율학승가대학원
대학원장 직무대행

한 생을 돌아보니, 모두가 은혜였습니다
덤으로 얻은 생명에서 나눔의 길로, 수행과 자비로 채운 80년의 여정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이 모두 부처님이었음을"

『생명나눔, 일면입니다』

2000년 1월 8일,
죽음의 문턱에서 간 이식으로 두 번째 삶을 얻은 일면 스님.
스님은 그날 이후의 삶을 '덤으로 얻은 생'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로 생명나눔의 삶을 걸었습니다

일면 지음 | 352쪽 | 17,500원

교보문고 바로가기



도서출판민족사 | 02-732-2402 | www.minjoksa.org

# 594명 탄자니아 농업인재 배출…교육으로 일군 10년

아름다운동행 현대불교신문 공동기획

## '보리가람 10년의 기적'

### ① 아프리카에 심은 자비의 씨앗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2016년 9월 5일 열린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개교식에서 조계종 대표단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아름다운동행, '자립'에 초점 맞춰**
**동봉 스님 부지 지원 · 모연 이어**
**2013년 다르에스살람 외곽 첫 삽**

**2016년 개교…신입생 57명 입학**
**이론 · 실습 新 농업 모델 구축**
**지역사회 발전 기여 구조 만들어**

2013년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 주 키캄보니 무와송가 마을. 전기와 수도 등 기본적인 기반 시설조차 충분하지 않았던 이곳에 한국불교가 '학교를 세우겠다'고 발원했다. 식량과 생필품을 지원하고 우물을 파는 구호를 넘어 교육을 통해 현지 청년들이 스스로 삶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2013년 첫 삽을 뜬 사업은 3여 년의 건립 과정을 거쳐 2016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Borigaram Agriculture Technical College, 이하 보리가람대학) 개교로 이어졌다. 교실과 도서관, 기숙사, 농축산 실습장을 갖춘 전문 교육기관이 문을 연 것이다. 첫 신입생 57명이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알렸다.

그리고 10년.

지난 8월 22일 제8회 졸업식을 통해 64명이 학업을 마치면서 보리가람대학은 모두 594명의 농업 전문인력을 배출한 교육기관으로 성장했다.

보리가람대학 건립의 출발점에는 해외지원 방식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당시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아름다운동행 이사장이었던 자승 스님은 아프리카 지원의 방향을 '일회성 구호가 아닌 자립'에 뒀다.

그리고 찾은 답은 교육이었다.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지역에 농업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고, 현지 청년들이 전문기술을 습득해 자신의 삶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었다. 학교 건립은 농업기술교육을 통해 현지 청년의 자립을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구체화됐다.

현지와 한국의 원력이 함께 모였다.



2016년 개교 당시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전경.

동봉 스님은 학교 건립을 위해 현지 부지를 기증했고, 조계종은 종단 차원의 모연을 진행했다. 아름다운동행을 중심으로 전국 사찰과 불자들의 후원이 이어졌다. 선서화전과 바자회, 후원의 밤, 저금통 캠페인 등 크고 작은 모금운동이 진행됐다.

학교 하나를 세우는 일은 건물을 짓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교육시설이 들어설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강의와 실습이 가능한 건물을 마련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생활할 공간 등 기반시설을 갖춰야 했다. 특히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도로조차 부족한 지역이었던 만큼 학교 운영을 위한 환경을 새롭게 조성해야 했다.

보리가람대학이 들어선 부지는 10만9821㎡(약 3만3200평)에 달했다. 연건평 3424㎡(약 1035평) 규모로 건립이 추진됐으며 강의동과 도서관, 강당, 기숙사, 교사 관사 등이 들어섰다. 농업·축산 실습장도 마련해 원예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기반도 갖췄다. 허허벌판과 다름없던 부지가 교육기관으로 변해가는 순간이었다.

3년간의 준비 끝에 2016년 9월 5일 보리가람대학이 문을 열었다. 3년제 전문학사 과정으로 출발한 보리가람대학은 원예학을 비롯해 육종학, 식물생리학 등 농업 관련 이론과 실습을 교육과정에 담았다.

교육은 농업기술에만 머물지 않았다. 학생들이 졸업 이후 실제 소득을 창출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학, 정보통신학, 마케팅 등도 교육과정에 포함했다. 농사를 잘 짓는 기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이해하고 생산물을 시장에 연결하며 자신의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승 스님은 개교식 참석 후 인근 마을 초등학교를 방문, 학생들을 격려했다.

학교 이름에도 건립 취지가 담겼다.

'보리(菩提)'는 부처님의 지혜, '가람'은 사찰을 뜻하는 말로 '보리가람'은 참된 깨달음과 지혜를 실천하는 도량, 더불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나갈 인재를 양성하는 공동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탄자니아 청소년들이 '보리가람'에서 희망을 만들어가고 스스로의 즐거움을 가족과 이웃,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 밝은 날을 열어가길 바라는 의미이기도 했다.

특히 보리가람대학이 자리한 마을은 주민의 90% 이상이 무슬림과 가톨릭 신자인 지역이다. 그럼에도 학교는 특정 종교 신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종교와 관계없이 교육받기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문을 열었다. 불교계가 설립한 학교이지만 교육을 통한 자립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중심을 뒀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보리가람대학의 교육은 교실에서 끝나지 않았다.

졸업생들은 지역 농장과 농업 관련 기관, 창업 현장 등으로 진출했다. 이들은 단순히 취업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배운 기술을 지역사회에 전파하며 새로운 농업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리가람대학은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발전의 거점으로 역할을 넓혀왔다. 외부에서 계속 자원을 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지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그 인재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온 것이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오래전부터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 강조돼 왔다. 보리가람대학 역시 같은 철학 위에서 운영돼 왔기에 올해 개교 10주년은 단순한 기념의 시간이 아니다. 한국불교가 국제사회에서 실천해 온 자비가 어떤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왔는지를 되돌아보는 이정표이기도 하다.

현대불교신문은 공동기획 '보리가람 10년의 기적'을 통해 2016년 개교 순간부터 2026년 제8회 졸업식에 이르기까지 보리가람대학의 10년을 짚어본다. 건립에 참여한 이들의 이야기부터 594명 졸업생의 현재, 학교가 지역사회에 가져온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까지 보리가람의 지난 10년과 다음 10년을 6회에 걸쳐 조명할 계획이다.

### 8월 22일 8회 졸업식

#### "탄자니아 미래 이끌 인재로"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은 8월 22일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에 위치한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에서 '제8회 졸업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졸업식에서는 64명의 학생이 학업을 마치고 졸업장을 받았다. 이로써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은 개교 이후 총 594명의 농업 전문 인재를 배출하게 됐다.

상임이사 법오 스님은 졸업생들에게 "배운 것을 개인의 성장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이웃과 지역사회, 그리고 탄자니아의 발전을 위해 나누어 주기를 바란다"며 따뜻한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수석 졸업생 하미두 H. 음퀴주(HAMIDU H. MKWIZU)는 졸업 소감을 통해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을 건립해 준 조계종과 한국어를 가르쳐 준 세종학당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공연도 이어졌다. 다르에스살람 세종학당 댄스동아리 학생들이 축하 무대를 선보였으며, 보리수아동센터 천진불들은 한국과 탄자니아 동요를 부르며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아름다운동행은 대학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생 지원을 위해 운영비 및 보리수 장학금 모금을 이어가고 있다. 후원 및 동참은 아름다운동행 홈페이지(www.dreaminus.org)서 가능하다.

02-737-9595 임은호 기자



**한눈에 보는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2013년**
- 1월 아프리카 학교 건립 발원.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신년기자회견서 아프리카 학교 건립 발표.
- 4~5월 부지 확보 및 조계종 차원의 아프리카 학교 건립 모금 활동 본격화.
- 9월 기공식 열고 현지서 첫 삽. 지부 설립하고 지역개발 등 국제 사업 시작.

**2014년**
- 3월 탄자니아 초등학교 영양급식 지원사업 'HAPPY CORN' 시작.
- 9월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명칭 확정.
- 12월 아름다운동행 후원의 밤, 사찰 · 불자 후원 동참하며 불교계 모연 열기 확산.

**2015년**
- 5~7월 1:1 빈곤 아동 결연사업 시작. 건립사업 마무리.

**2016년**
- 9월 3년제 농업기술 전문교육 과정 시작. 첫 입학생 57명,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10년의 역사 출발.

**2019년**
- 1월 아프리카 지원을 위한 더불어저금통 캠페인 시작
- 9월 제1회 졸업식 57명 졸업.

**2021년**
- 6월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다르에스살람 세종학당' 운영기관 선정

**2022년**
- 4월 졸업생 2명 한국 유학 초청.

**2024년**
- 11월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보리사 및 보리수아동센터 개원.

**2026년**
- 8월 제8회 졸업식 64명 졸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 탄자니아 아동 영양급식 지원

아이들을 지켜주는 한 컵의 옥수수죽 **해피콘**



10개 초등학교 **5,700명 지원**

칼슘·비타민 등 **영양 섭취**

초등학교 **출석률 증진**

해피콘 후원 바로가기 ▶

문 의 02-737-9595 | 홈페이지 www.dreaminus.org

2026년 9월 2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불자정보

1592호 | 14 | 전면광고

겸허하게 지내고 스스로를 낮추며
만족을 알고 은혜를 생각하며
때때로 법을 듣는 것, 이것이 최상의 좋은 일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 광 진 불 사

- 위치 : 부산시
- 대지 : 200평
- 법당 : 30평, 요사:50평
- 매가 : 6억5천
- 차량진입, 주차가
- 위치 : 경기도
- 부지 : 450평
- 법당 : 50평, 요사:60평 외
- 공원산 밑 주차10대
- 매가 : 30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창건주승계,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 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 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우체국/농협/면사무소 약 도보15분거리 입니다.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삼성각, 원주시청, 충주시청, 문막읍 약 20km
- 가액 : 6억5천만원
- 답사하실 분만 전화 요망

010-5371-5567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
- 대지 : 1000평, 건물 : 100평
- 대웅전, 공양간, 요사채, 화장실 3개
- 도량에 진신사리 10층석탑, 약사불 포대화상, 12지신, 조경, CCTV
- 주차장 500평, 저온창고 6평
- 건강 악화 · 모든 집기류 인계
- 가액 : 12억원

010-2857-2811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운봉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3동)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소법당 13평-1동 다실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건물 - 1동 / 종무소 - 8평
- 추천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카페 · 다원 기타 최상입지
- 가액 : 9억8천만원(법회가능 · 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금정산 산자락
- 규모 : 대지 600평/건평 88평(6개동)/요사채, 법당, 미륵전, 비루전, 선다원, 산신각
- 법당 : 법구일체. (냉장고, 세탁기) 등은 보시하겠습니다.
- 가액 : 6억원

010-6325-6700

## 사찰(급)안내

- 땅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정부 고시가 : 4억 7800만원
- 가액 : 3억원(대출 2억 800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성 서울에서 1시간 거리, 안성시청 15분 거리
- 대지 : 약 2만 5천평
- 법당 50평(목조), 산신각 10평(목조), 종각 10평(목조), 요사체 60평 2동, 원두막 2동, 저장고 6평, 용궁 30평 분수대 있음.
- 특징 : 납골당 허가 (5천구) 토목공사 완료, 수목장 부지 5천평, 15년 장뇌산삼 밭 1000평 이상, 수목장 일부 운영중, 가족석탑 운영중, 전기차량 충전소
- 동물 농장 - 꿩농장, 기러기, 칠면조, 닭
- 과수 농장 - 대추나무 약 200평, 밤나무농장, 자두나무 농장 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산사나무
- 가액 : 오십오억 (스님 건강상 문제로 급 안내합니다)

010-6538-7222

##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부산 북구 구포3동 아파트 정문앞 주택가 밀집지역
- 규모 : 2층 40평
- 법당 : 칠보 약사여래불 주지 스님 방 주방시설, 화장실 실내
- 보증금 : 1000, 월40
- 시설 권리비 : 2000만원

※스님 건강 악화로 급매, 몸만 오시면 됩니다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4709-0108

## 사 찰 안 내

- 위 치 : 세종시
- 토 지 : 511평
- 대웅전 : 30평
- 요사채 : 40평
- 가 액 : 4억

010-7112-0446

##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9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암자터(급)안내

- 대지 : 184평, 기도 수행도량
- 해발 600m, 주차, 텃밭, 실사용 500평
- 조용한 자연환경, 전기, 청정계곡, 토목공사
- 오시는길 : 청송 파천면 지경마을회관서 직진, 선덕암
- 가액 : 8천만원

스님 직접 010-9393-4965

## 포교원(급) 안내

-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내
- 규모 : 2층 법당 20평
  1층 요사채 방2개
  거실, 주방 등
  밖에 컨테이너 1동
  바로 앞에 금호강이 흐르고 있음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 가액 : 2억 5천(조정 가능)

010-3007-5611

## 포교원 안내

- 위치 : 강동구 천호동 올림픽로
- 25년 운영, 40평
- 임대료 보증금 : 1500만원
- 월세 : 100만원
- 시설비 : 협의
- 삼존불, 필림난방(전체)
- 대형 에어콘, 냉장고 2대
- 온수기 완비 *꼭! 하실분*

010-9167-7441

## 토 지 안 내

- 위치 :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산5-1
- 매매금 : 3억원
- 2000평 규모, 대지 600평 건축허가 취득
- 수목장 및 납골당, 반려동물 화장장 등 최적지

010-4727-6065

## 광고 접수 번호 안내

02-2004-8204

010-4648-8200

국내 최초 슬로우조깅 전용 설계

관절 부담은 덜고
매일 30분, 더 가볍게

40~60대를 위한
슬로우조깅화

제로 드롭 18mm 쿠션 설계
특허출원 기술 (Patent Pending)
대표가 100km 신고 검증 완료
중족부 착지 자연유도



화이트 · 브라운 · 블랙

정가 ~~85,000원~~
판매가 75,000원

오늘부터 슬로우조깅을 시작하세요
마하몰 1688-9099
www.mahamall.co.kr



스님의 마지막을
여법하게 모시는 장례 서비스

대한민국 最高의 불교장례서비스
'연화회'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합니다.



불교를 아는 언론포교사 '현대불교신문'
- 행장 및 업적 정리, 보도자료 생산, 부고
- 추모 리플렛, 호외 발행, 언론사 응대 등
- 영결·다비식의 각종 실무 지원

믿을 수 있는 언론포교사가 전담합니다.
취득한 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상담문의 010-4727-6065

2026년 9월 2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생활안내

1592호 | 15 | 전면광고

자신의 죄와 업장이 산과 바다처럼 많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이 죄와 업장을
몸과 마음을 다해 참회하여
없애야 할 것임을 잘 알아야 하느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 《계초심학인문》에서

##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전승학인 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바라(작법)연수원 010-5511-7000

## 대원불교미술원(청동 불상 전문업체)

청동 불상, 목 불상 특수 불상 조성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및 사찰에서 필요한
모든 불사 상담 환영합니다(법당이전 및 철거)
사찰법당 무속인 법당 철거하여 모셔다가
정성껏 파불하여 드립니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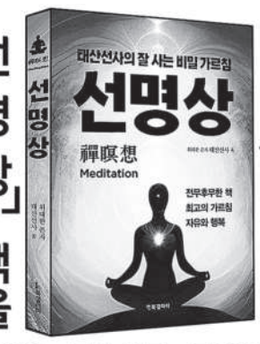
대원 임영달 lyd5798@naver.com 010-7171-2636

## 사찰넷닷컴

비공개 매물 양도 양수
전국 사찰매매
전문 중계 업체

네이버에서 사찰넷닷컴을 검색하세요
010-7497-8497

꼭 「선명상」 책을 읽어봐주세요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 우주광명 누진통

- 지금은 우주불교시대
- 지금은 천존 천신의 시대
- 새로운 불교 수행법

단 10분에서 1시간이면 업장이 소멸되고 번뇌가 끊어져 무념 무상이되고 해탈이 되는것을 그 즉시 느끼고 깨달음이 이루어 집니다.
일광사 일광선원
경남 창녕군 부곡면 온정1길 17~39
010-3586-6091

## 미래 철거 디자인

- 법당 철거
- 사찰 정리
- 유품 정리
- 가정집 정리

부산 : 이주현
010-5507-7080

##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 불교계 최고 통일 의식법요집




다비법요집 (1,445쪽) ····· 150,000원
천도법요집 (853쪽) ····· 100,000원
통용불공법요집 (885쪽) ····· 100,000원

■ 특징
- 불공신앙, 영혼천도, 사자신앙, 소재신앙, 세시풍습을 종합한 의식법요집.
- 출재가를 아우르는 예불, 독경, 기도, 공양 등 의식을 집대성한 의례의식집.
- 시대의 획기적인 변화와 정례화된 한국 불교의 뿌리를 공고히 한 편찬서.

■ 내용
- 통용불공법요집, 다비법요집, 천도법요집은 흩어져 있는 불교의식들을 한데 모아 책으로 편찬한 통일 불교의식집이다. 특히 여러 큰스님들이 전해온 기도법과 신도들의 간절한 신심을 바탕으로한 전통 의식을 재정리하여 불자들의 삶에 희망과 용기, 신심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내용으로 편집되었다.

보급처 | 사) 대한불교교종 출판사 TEL : 031-297-8414

##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 북한산국립공원 내 암자

(서울 은평, 경기 고양 인접)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010-8699-2331

현대불교신문 지면광고시 무료영상 게재

NO.1 사찰 매매 정보 채널

좋은 인연 사찰 안내
사찰 복덕방

www.youtube.com/@사찰복덕방

사찰복덕방

## 해썹(HACCP) 인증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 전화상담시 전문지도

신기어린 소리! 성우같은 소리! 가창력 향상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전화하시면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 부근을 지날때 본사 유선 마이크로 소리 비교만 해 드린 후 신속히 사라짐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 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본 제품은 무선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도 성우 음성으로 화답!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 박물관 반입된 갈항사지 동·서탑, 110년 유랑 끝낼까

성보유랑 聖寶流浪

⑥ 김천 갈항사지 동 · 서 삼층석탑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야외 석조물 정원에 있는 국보 갈항사지 동 · 서 삼층석탑.


갈항사지 동 · 서 삼층석탑의 경복궁 이전 전 모습.

**758년 건립연대 새겨진 신라 석탑**
**1916년 도굴 훼손 후 경복궁 이건**
**총독부 문서 '갈항사탑 반입' 확인**
**동 · 서탑 이건시기 놓고 기록 엇갈려**
**조계종 · 김천시 '환지본처' 한목소리**
**김천시, 발굴 · 사적 지정 추진 본격화**


2024년 진우 스님이 김충섭 김천시장 등의 예방을 받고 갈항사지 석탑 김천 이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경북 김천시 남면 오봉리 금오산 서쪽 자락. 천년고찰 갈항사(葛項寺)는 사라지고 절터만 남았지만, 이곳에는 유독 눈길을 끄는 두 개의 빈자리가 있다. 국보 '김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이 섰던 자리다. 지금 그 자리에는 표지석만이 남아 두 탑의 부재를 알리고 있다.

두 탑은 현재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야외 석조물 정원에 나란히 서 있다. 1916년 일제강점기 경복궁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옮겨진 뒤 한 세기가 넘도록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의 용산 이전과 함께 다시 한 번 자리를 옮겼다.

갈항사는 〈삼국유사〉에도 등장하는 신라 화엄종 사찰이다. 〈삼국유사〉에는 당나라에서 화엄을 배우고 귀국한 승전 스님이 개령군(당시 지명)에 갈항사를 창건하고 돌 80개를 모아놓은 뒤 〈화엄경〉을 강설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후 갈항사는 신라 38대 원성왕(재위 785~798)의 외삼촌 언적 스님, 어머니 박 씨(소문왕태후), 박 씨의 동생 등 원성왕 외가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번성해 나갔다.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도 원성왕 외가와 연결된다. 758년(경덕왕 17)에 세워진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은 언적 스님과 두 누이가 탑을 조성을 발원했다는 내용이 동탑 상층기단 면석에 이두문으로 새겨져 있다. 탑 자체에 조성 시기와 발원자가 남아 있어 신라 불교사뿐 아니라 미술사·금석학·언어학 연구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아울러 두 탑은 갈항사가 신라 왕실의 지원을 받는 원찰이었음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갈항사는 약사암, 굴암사 등 산내 암자를 거느린 대찰이었지만, 임진왜란 시기인 1592년에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천년의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킨 것이 동·서 삼층석탑이다. 두 탑의 운명이 뒤바뀐 것은 1916년이다. 그해 2월 12일 도굴범들이 탑 일부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은 조선총독부의 고적 관리 대상으로 편입돼 경복궁으로 옮겨졌다.

그동안 두 탑의 이동 경위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따라붙었다. "일본인 도굴꾼이 탑을 해체해 일본으로 가져가려 했다", "인천부두까지 운반됐지만 일본 반출에 실패해 경복궁으로 옮겨졌다"는 설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당시 행정 문서를 살펴보면 이는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공개돼 있는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다이쇼 5~8년도 고적조사관계철〉에는 1916년 생산된 17쪽 분량의 '경상북도 김천군 갈항사지 유존 고석탑 및 탑출물' 문건이 별도로 편철돼 있다. 같은 해 열린 제1회 고적조사위원회 의안 제3호에는 정확히 '김천 갈항사탑(葛項寺塔) 반입[取寄] 건'이 다뤄지고 있다. 갈항사탑을 현지에서 가져오는 일이 조선총독부의 공식적인 행정 사안으로 다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다.

탑이 고향을 떠난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1916년 총독부 행정자료에서는 '인천부두'나 '일본 밀반출'을 직접 입증할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인천 반출설'은 후대 기록에서도 내용이 엇갈린다. 2003~2004년 지역 언론에서는 1916년과 1921년 탑이 인천으로 운반됐다가 일본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경복궁으로 옮겨졌다고 전한다. 반면 2012년에는 이미 경복궁에 있던 석탑을 '광복 직전' 일본으로 밀반출하기 위해 인천부두까지 운반했다는 다른 이야기가 등장한다. 같은 '인천설' 안에서도 이동 시점이 수십 년 차이가 난다.

두 탑이 경복궁으로 옮겨진 시점도 자료마다 다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금오산 갈항사' 항목은 도굴 사건 이후 동탑은 1916년 6월, 서탑은 1921년 3월 각각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옮겼다고 기술한다.

반면 국가유산청의 '김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출토 사리장엄구' 관련 해설은 "1916년에 갈항사 터의 동·서 삼층석탑을 경복궁으로 이건하던 중" 사리장엄구가 발견됐다고 명시한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가유산청의 현행 석탑 설명도 두 탑의 경복궁 이전 시점을 1916년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1차 자료에서 명확한 것은 1916년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회가 '갈항사탑 반입'을 공식적으로 논의했다는 사실이다. '동탑 1916년·서탑 1921년 이건설'은 2차 자료에 존재하지만 추가적인 사료 검증이 필요하다.

총독부가 남긴 '반입'이라는 표현은 당시 문화유산 관리의 구조를 보여준다. 보존을 명분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두 탑은 천년 가까이 머물던 사찰 터와 그곳에 이어진 신앙공동체에서 분리됐다. 해방 이후에도 서울에 남았고,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표적인 야외 전시 문화유산이 됐다.

그렇기에 김천시와 지역 불교계에서는 두 탑의 '환지본처'를 요구해 왔다. 움직임이 구체화된 것은 2024년이다. 김천시는 2024년 9월 3일 김천시립박물관에서 '국보 갈항사지 삼층석탑 이전 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반환 운동을 본격화했다. 추진위원에는 종교단체,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30여 명이 참여했으며 공동위원장은 김천시장이 맡았다. 추진위는 범시민 서명운동과 홍보 등을 전개하고 있다.

불교계도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의 환지본처에 힘을 보탰다. 2024년 9월 23일 당시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과 김충섭 김천시장, 송언석 국회의원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두 탑의 김천 이전 추진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양주 회암사지로 환지본처한 3여래 2조사 사리 사례를 언급하며 "성보가 본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적극 살펴보겠다"고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앞서 2024년 9월 10일 조계종 중앙종회는 제231회 임시회에서 갈항사지 삼층석탑의 김천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발표했다.

중앙종회의원들은 성명서에서 "탑은 미적인 감상의 대상물이 아니라 사찰의 중심이자 신앙의 대상"이라며 "따라서 탑이 있어야 할 곳은 사찰이고, 그 탑을 가장 잘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사람들 역시 불교도"라고 밝혔다.

이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중인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을 김천시민과 불교도들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하며 "소중한 문화유산이 본래 자리로 돌아온다면 그 소중한 가치를 아는 김천 시민과 불교도들에 의해 세심히 관리되고 후손들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촉매제로써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지본처에는 '돌아와야 한다'는 당위만으로 부족하다. 석탑을 장기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환경과 방재시설, 상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갈항사지 전체의 역사적 공간도 함께 규명해야 한다. 탑의 원래 위치와 주변 건물지, 사찰의 가람 배치를 확인해야 비로소 두 탑은 박물관의 전시물에서 갈항사라는 역사 공간의 일부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다.

선례도 있다. 일제강점기 서울로 옮겨졌던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은 장기간의 보존처리와 현지 정비 끝에 2024년 112년 만에 법천사지로 돌아갔다.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역시 보존·전시시설을 갖춘 뒤 오대산으로 환지본처됐다. 문화유산은 안전한 보존환경이라는 현실적 조건이 갖춰질 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들이다.

그렇기에 김천시는 두 탑의 환지본처를 위한 사전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천시는 갈항사지 민간 소유 농지 11필지 가운데 9필지(1만2140㎡)를 매입하고 두 차례 시굴조사를 실시했다. 현재는 '갈항사지 3차 시굴조사 및 1차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천시는 발굴조사를 통해 사역(寺域)을 확인해 주변 정비 및 유적전시관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천시청 문화홍보실 관계자는 "발굴조사와 함께 주변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관련 용역도 함께 진행 중"이라며 "2029년까지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우선적으로 도기념물부터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두 탑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갈항사지의 사적 지정이 필수다. 이를 위해 시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 사찰벽화 불후의 명작

사찰벽화 명작순례

## ⑯ 양산 신흥사 대광전 약사삼존 · 아미타삼존벽화

### 동–약사, 서–아미타벽화 세 곳 현존

양산 신흥사 대광전은 사찰벽화의 보고다. 하나의 법당 건축에 약사여래삼존도, 아미타여래삼존도, 관음보살삼존도, 육대보살도, 사천왕도, '쌍림열반상'처럼 부처님의 일생을 그린 팔상도, 문수보현보살도, 주악비천도, 화조도 등 묵직한 소재들의 벽화가 밀도 높게 결집해 있다.

벽화의 묘사력도 불화를 그려내는 붓질의 경지 그대로다. 양산 신흥사 대광전은 한국산사 사찰벽화의 성소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 대광전은 원래 대웅전이었다. 대광전에 있는 법당 중수기도 '신흥사 대웅전 중수기'다. 그래서인지 비로자나불을 주존불로 모시는 대광전의 편액과는 달리 법당에 실제 봉안한 불상은 보현보살-석가모니불-문수보살의 석가모니불삼존이다. 학계 안팎에선 삼존을 제화갈라보살-석가모니불-미륵보살의 수기삼존불로 보기도 한다.

대광전 안팎에 그려져 있는 60여 점의 벽화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은 법당 동측면의 약사여래삼존도와 서측면의 아미타여래삼존도, 그리고 후불벽 뒷면에 흑색 먹 바탕에 백묘로 그린 관음보살삼존도 등 세 벽화다. 세 벽화 모두 불보살, 또는 세 보살로만 구성한 삼존도 형식이라 특별하다. 법당에 부처님을 모시고 동측면 벽에 약사여래삼존도, 서측면 벽에 아미타여래 삼존도를 대칭적으로 그린 사례는 세 곳뿐으로 매우 희귀하다. 그 세 곳은 양산 신흥사 대광전, 부산 범어사 대웅전, 양산 통도사 약사전으로 부산, 양산에 집중 분포하는 지역 특성이 강하다.

통도사 응진전이나 안동 봉정사 영산암 응진전에서도 그런 형식을 엿볼 수 있는데 벽화의 배치는 비대칭적이다. 두 곳 다 동측면은 '백호도'(통도사 응진전)나 상산의 네 선인을 그린 '상산사호도'(봉정사 응진전)를 그려 다른 패턴을 보이지만 서측면은 아미타삼존께서 극락왕생자를 내영하는 장면의 벽화를 배치해서 건축 공간을 방위에 따른 불국정토로 해석하려는 동일한 의지가 엿보인다.

특히 봉정사 영산암 응진전의 경우 내부 정면 포벽과 대들보 등에 '동방약사불 유리회', '극락도사아미타불' 등의 묵서를 남기고 있어 다양한 불국토 장엄 의지를 두루 살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다섯 곳의 벽화 구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표 참조〉



양산 신흥사 대광전 향우측(동쪽) 벽면의 약사여래삼존벽화.



양산 신흥사 대광전 향좌측(서쪽) 벽면의 아미타여래삼존벽화.

### 신흥사, 범어사엔 삼세–삼방불 중첩

그런데 위 다섯 곳 중에서 통도사 약사전을 제외한 네 곳의 법당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 삼존도 벽화장엄은 단순한 우연 차원을 넘어선다. 그 하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네 곳의 법당에 모신 삼존의 불보살이 동일하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흔한 구성이 아닌 '수기삼존불(授記三尊佛)' 구성이라는 경이로운 공통점을 가진다. 즉 신흥사 대광전, 범어사 대웅전, 통도사 응진전, 봉정사 응진전 등 네 곳 모두 제화갈라보살(과거불)-석가모니불(현재불)-미륵보살(미래불) 삼존을 봉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분은 과거-현재-미래의 삼세에 걸쳐 서로에게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주신 '수기삼존불'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더욱이 양산 신흥사 대광전과 부산 범어사 대웅전에선 과거-현재-미래의 '삼세불(三世佛)'과 서방-중앙-동방의 '삼방불(三方佛)'이 시공의 양변을 초월해 중첩적으로 통합한 모습이다. 양산 신흥사 대광전의 동서벽면의 삼존도 벽화는 이 같은 특별한 구성의 시원과 전형을 보여주는 불교미술사적 의의를 갖는다. 시공을 초월해 시방삼세에 상주설법하시는 부처님의 세계를 범우주적으로 구현하고 있어 놀랍다.

그런데 통도사 약사전의 사례까지 두루 포함하면 동-약사여래삼존, 서-아미타여래삼존의 대칭적 배치는 단순히 통불교적 병렬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부처님의 병렬에 의한 통불교적 집합을 구현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의 상주불변과 교의에 따른 방위 불국토의 현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그런 관점일 때 그 법당이 대웅전이든, 대광전이든, 응진전이든, 약사전이든 동서벽면의 삼존도벽화를 일관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법당의 동쪽 벽은 단순한 물리적 벽이 아니라 동방유리광정토이고, 서쪽 벽은 서방 극락정토로서 극적으로 승화된다. 벽화 속에 관상을 통한 중생구제의 원력이 담겨 있다.

| 사찰 법당 | 벽화 구성 | 평균 크기(세로×가로) | 제작 시기 |
|---|---|---|---|
| 양산 신흥사 대광전 | 동–약사, 서–아미타 | 220×345㎝ | 17세기 후기 |
| 부산 범어사 대웅전 | | 260×440㎝ | 18세기 전기 |
| 양산 통도사 약사전 | | 110×450㎝ | 18세기 후기 |
| 양산 통도사 응진전 | 동–백호, 서–아미타 | 136×266㎝(아미타) | 18세기 후기 |
| 봉정사 영산암 응진전 | 동–상산사호, 서–아미타 | 73×219㎝(아미타) | 19세기 후기 |

**동서 벽면에 삼존도 벽화 조성하여**
**동쪽 벽면은 동방만월 유리광정토로**
**서쪽 벽은 서방극락정토로 극적 승화**
**삼존도 벽화 수기삼존불 법당에 조성**

삼존도 벽화 분포의 부산, 양산 지역 집중성은 지역 화승 집단의 성립과 활동 범위, 화풍 계승 등과 필연적으로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동서 방위별 삼존도 장엄을 17, 18세기 부산, 양산권의 화원 집단에 의해 전승된 법당장엄의 한 형식으로 이해할 때 지역 집중성의 의문은 자연스레 풀릴 것이다.

### 약사삼존도 벽화, 조형미의 정수

대광전 동측면의 약사여래삼존도는 한국산사 벽화장엄의 조형미와 색채미의 정수를 보여준다. 구도와 구성, 채색, 묘사력에서 탁월한 회화 능력을 발휘했다. 천에 대형불화를 능숙하게 그려본 전문화원의 붓질이 고스란히 뱄다. 부처님의 의습에 표현한 세부 문양 묘사력, 좌우협시 보살이 손에 든 지물 표현 등에서 불화를 숱하게 그려본 전문성을 숨길 수 없다.

약사여래삼존의 체격을 보라. 세 분 모두 거의 직각으로 떡 벌어진 어깨에 육중한 체구가 한눈에도 다부진 인상을 남긴다. 위로 뻗친 눈매도 날카롭고 예리하다. 약사여래의 상호에선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카리스마가 넘친다. 약사여래의 몸에서 발광하는 오색찬란한 광명도 신령함과 성스러움의 아우라를 극대화한다.

약사여래는 중생을 온갖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12가지 대원을 세웠다. 그것이 '약사여래 12대원'이다. 그중 첫 번째 대원이 '광명보조원(光明普照願)'이다. "내 몸에서 찬란한 광명이 빛나 무량한 세계를 끝없이 비추어 일체중생들이 내 몸과 같이 아름답게 장엄하겠습니다." 약사여래 광명의 특별함은 그 대원에서 비롯된다. 벽화 속 광명은 무려 사빛이다. 초빛-이빛-삼빛-사빛의 바림으로 층층이 풀어 다채로운 색의 효과를 통해 광명에 성스러운 기운을 불어넣었다. 오색찬란한 광명을 자세히 보면 톱니처럼 뾰족뾰족하고 날카롭다. 동쪽의 아침 햇살처럼 쨍하고 찬란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약사여래 정수리 위로 유난히 우뚝 솟구친 흰색 정상계주도 대단히 인상적이다. 정상계주(頂上髻珠)는 정수리 위로 솟은 보주를 말한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무상정등각'의 상징 조형과 다름없다. 중생의 모든 병을 고치는 약사여래의 위신력도 중생구제의 원력과 저토록 솟구친 흰색 보주, 곧 지혜에서 나온 것임은 불문가지다. 약사여래 좌우 협시보살은 일광보살, 월광보살이다. 좌협시 일광보살은 보관에 붉은 태양을 장식했고 두 손엔 연꽃 가지를 받쳐 들었다. 그에 상응하는 우협시 월광보살은 보관에 흰색 보름달을 장식했고 두 손엔 여의 가지를 받쳐 들었다. 태양은 진리의 상징이고, 보름달은 자비의 상징이다.

### 서쪽 세 화면 아미타설법도 구성

동측면의 약사여래삼존벽화가 묵직하고 남성적이라면 서측면의 아미타여래삼존벽화는 보다 부드럽고 여성적이며 따스하다. 불보살에 베푼 색채도 한결 밝고 부드럽다. 아미타불의 정수리에는 위로 솟구치는 정상계주도 없을뿐더러 광배도 부드러운 곡선 흐름으로 원만하고 차분하다. 동방 유리광정토의 약사여래 광배가 아침 햇살을 닮았다면 서방 극락정토의 아미타여래의 광배는 저녁노을의 이미지다.

머리에 하얀 두건을 늘어트린 관세음보살은 어깨선부터 남다르다. 자연스레 힘을 빼서 흐름이 부드럽다. 관음보살이 갖춘 자비로움의 덕목을 환기시켜 준다. 관음보살은 보관에 아미타여래의 화불을 모셨고, 대세지보살은 경전을 오른손에 쥐었다. 두 협시보살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행을 대표한다.

서측면 아미타삼존도의 특징은 화면 구성에 있다. 삼존도에 머물지 않고 아미타여래설법도의 규모로 확장했다. 같은 측면 칸에 상중하 세 화면으로 분산했다. 상층엔 대세지보살-아미타여래-관세음보살의 아미타삼존도를 그리고, 중층엔 문수, 보현, 지장, 미륵 등 육대보살을, 맨 아래 하층엔 사천왕상을 그렸다. 인물군 배치에서 위신력과 계위에 따라 공간위상학적 위계를 달리한 점이 흥미롭다. 상중하 세 벽화를 하나의 화면으로 합치면 완전한 구성은 아니지만 하나의 아미타여래설법도 형식을 가진다. 벽화로 조영한 아미타여래설법도는 강진 무위사 성보박물관에 유일무이하게 현존하는 까닭에 신흥사 대광전의 아미타벽화도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고 보면 양산 신흥사 대광전엔 한국산사 벽화의 세계에서 보기 드문 진귀한 명작들이 집결해 있다. 신흥사 대광전은 그 자체가 한국산사 벽화의 명작을 모은 미술관으로 손색없다. 사찰벽화 불후의 명작들이 있는 그곳에 가고 싶다.



노재학 작가


2026년 사찰고급연등 자동 승 하강시설 태양광 만월등 · 소원성취등

자동 승 하강시설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시공전





시공후







사찰경내 연등 공사





만월등 (노랑/진분홍/초록/빨강/파랑)



자비연등



칼라연등



태양광 칼라 미니등



12cm(보라/파랑/초록/주황/진분홍/연분홍/적색/노랑), 등간격 65cm

소원성취등/정원등

황금등



태양광 등 및 팔각 비닐만월등



태양광 등 및 비닐만월등





13cm(진분홍)



20cm(주황)

광명연등



상점문의 및 안내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야기획 02-379-2400 H.P 010-5340-7941

# 참회, 부끄러움 알기

**철학자와 함께 읽는 불교 동화**

## ⑧ 부끄러움 : '식인 야차의 참회'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시절로 기억된다. 당시 우리 집 화장실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저녁에는 양초와 성냥을 가지고 가야 했다. 그런데 가을에는 화장실에 귀뚜라미가 어찌나 많은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어쩌다 손으로 잡게 되면 귀뚜라미 다리가 쉽게 부러지곤 했다. 때로는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못한 채 이 생명을 촛불에 태우면서 볼일을 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재미로 했지만, 귀뚜라미는 생명을 잃은 것이 아니던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 저녁에 화장실로 가서 촛불을 켜고 손가락 하나를 그 위에 올려놓았다. 어찌나 뜨겁던지 얼른 불에서 손을 떼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살이 조금 타는 것 같았다. 손이 아린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이 정도로도 손이 이렇게 아픈데, 귀뚜라미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속으로 귀뚜라미에게 '미안하다'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참회 의식이었다. 그날 저녁 손가락이 아려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동안 고생도 했지만, 마음만은 한결 가벼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동화의 주제가 참회이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종교에서 강조하는 덕목이기도 하다. 그것을 회개라 부르든, 아니면 고해성사라 부르든 핵심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데 있다. 이는 자기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알 때만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왜 모든 종교에서 참회를 중시하는 것일까? 이번 동화에서 성찰해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준비한 불교 동화는 '식인 야차의 참회'다. 원래의 제목은 '데바담마 자타카(Devadhamma-jātaka)'다. 데바담마는 천법(天法), 즉 하늘의 법을 의미한다. 연못에 살고 있던 식인 야차가 하늘의 법에 관해 물은 데서 유래한 제목이다. 동화 속으로 들어가 보자.

오랜 옛날 바라나시에 한 임금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왕비가 세상을 떠나자, 왕은 새 왕비를 맞이해 아들을 낳게 됐다. 새 왕비는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간계를 꾸미기 시작했다. 이를 알게 된 왕은 두 아들에게 숲으로 떠났다가 자신이 죽으면 돌아와 왕위를 이으라고 지시했다. 이때 셋째도 두 형을 따라 숲으로 가게 된다.

세 왕자가 히말라야 숲으로 들어섰을 때 셋째는 물을 마시려고 연못으로 향했다. 그 연못에는 식인 야차가 살고 있었는데, 이곳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법(Devadhamma)'에 관해 묻고 답을 맞추지 못하면 잡아먹는 무서운 괴수였다. 셋째가 다가오자 어김없이 야차가 하늘의 법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것은 바로 해와 달입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정답이 아니어서 셋째는 야차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동생이 오지 않자, 둘째는 그를 찾으러 연못에 간다. 이때도 야차를 만나 같은 질문을 받게 된다.

"그것은 동서남북 네 방위입니다."

이 또한 오답이어서 둘째 역시 야차에게 잡히고 만다. 두 동생이 돌아오지 않자, 첫째 형도 연못으로 갔다. 야차가 천법(天法)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한다.

"악을 저지르는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악의 결과로 찾아올 괴로움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갖추고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천상의 법이다."

이 말을 듣고 감동한 야차는 그동안 많은 생명을 죽인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진정으로 참회했다. 그리고 동생 한 명을 풀어주겠다고 하자, 첫째는 친동생이 아니라 이복형제인 셋째를 선택했다. 셋째를 잃고 왕국으로 돌아가면 그를 해쳤다는 오명을 쓸 것이며, 이는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부끄러움 · 인과응보 아는 것이 천법"**
**첫째 왕자 답에 동생들 풀어준 야차**
**생명들 죽인 악행 부끄러워하며 참회**
**부끄러움은 양심이 살아 있음을 의미**
**참회는 새로운 나를 창조하는 출발점**

첫째의 이러한 마음 씀에 감동한 야차는 두 동생을 모두 풀어주었다. 이후 야차는 오계(五戒)를 받고 악행을 멈췄으며, 첫째는 부왕이 세상을 떠난 이후 왕국으로 돌아와 성군이 됐다. 그가 바로 전생의 부처님이다.

### 부끄러움을 알아야 사람이다

식인 야차가 자기 잘못을 참회하는 장면을 보면서 문득 영화 '신과 함께-죄와 벌'이 떠올랐다. 이 영화는 살면서 지은 업보에 따라 저승에서 재판받는 과정을 흥미롭게 그려낸 작품이다.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아 천만 관객을 넘어선 히트작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영화를 관람한 청소년들의 반응이 꽤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특히 친구를 괴롭힌 학생들의 변화가 적지 않았다는 평가다. 영화처럼 죽어서 지옥의 고통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작용한 것 같다. 마치 동화 속 야차처럼 말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신과 함께'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청소년에게 좋은 교육 소재라 할 것이다.

악행에 따른 인과응보의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곧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유학에서도 부끄러움을 아는 것[知恥]을 사람됨의 기준으로 삼아왔다. 널리 알려진 사단(四端), 즉 측은지심(惻隱之心)과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오지심이 바로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다른 이의 악행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던가. 〈중용〉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용기에 가깝다(知恥近乎勇)."

들으면 들을수록 공감이 돼 수업 시간에 자주 언급하는 구절이다. 누구나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만, 아무나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아니다. 이는 자기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용기가 있을 때만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악행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비겁하고 나약하다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동화 속 식인 야차도 느끼는 부끄러움을 왜 일부 사람들은 모르는 것일까? 먼저 양심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양심이란 자기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본능적으로 아는 마음이다. 유학에서는 앞서 말한 사단으로 표현한다면, 불교에서는 불성(佛性)에 비유할 수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추고 있는 마음이다. 대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거나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는 등의 신체적 변화가 생긴다.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자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변화가 없다면 양심이 죽었다는 뜻이므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삼독(三毒)이라는 어두운 기운에 양심이 압도돼 전혀 작동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다음으로 인과(因果)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다. 동화에서 첫째 왕자가 야차에게 말한 '악의 결과로 찾아올 괴로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업(業)의 원칙이라 할 정도로 원인과 결과를 중시한다. 선한 행위를 하면 좋은 결과[善因善果]를, 나쁜 행위를 하면 악한 결과[惡因惡果]를 가져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업은 주소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배달 사고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반드시 행위에 대한 과보를 받는다는 것이 불교의 일관된 시각이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은 자연법칙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인과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잘못된 행동을 참회하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무겁고 삶이 괴로울 수밖에 없다. 이는 마치 어깨에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사는 것과 같다. 하지만 참회하면 마음이 가볍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 모든 종교에서 참회를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42장경〉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인들과 깊이 공감한 구절이다.

"여러 허물이 있으면서도 스스로 뉘우치지 않고 마음을 잠시도 그치지 않으면, 죄가 몸에 미치는 것이 마치 물이 바다로 모여드는 것처럼 점점 깊고 넓어질 것이다. 만약 허물이 있더라도 스스로 잘못을 알아 악을 고치고 선을 행하면 죄가 스스로 소멸할 것이니, 이는 마치 병이 났을 때 땀을 흘리고 나면 점차 병이 낫는 것과 같다."

누구나 잘못을 하면서 살아간다. 어찌 보면 그때가 바로 부끄러움을 아는 공부의 기회가 아닐까 싶다. 잘못했을 때 절 수행을 하면서 참회의 땀을 흘리고 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원각경〉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하면 좋은 경계를 만나 마음에 경안(輕安)을 얻는다"고 했다. 양심, 즉 불성이 작동하여 참회하는 불자는 삶이 가볍고[輕] 편안[安]하다. 부끄러움을 알고 참회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이 위대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이는 곧 새로운 나를 창조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진정 사람이다.



이일야 전 전북불교대학 학장

일일시호일

신장 손상으로 투석 받는 미얀마 출신 외아들
"다시 일해 부모님 걱정 덜어드리고파"

민모 씨, 건설현장서 일하며 부모 부양
복통·구토 끝 장 수술 받고 투석 시작

병원비 2000만 원…쌓이는 치료비에 막막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불자들 도움 절실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대행 스님



# 가는것도 오는것도 법인데 왜 간다 온다 야단법석을 합니까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런데 영령들의 의식은 체가 없습니다. 체가 없기 때문에 열도 되고 백도 되고 스물도 되고 이럽니다. 돌아가셔서 천도재를 했으면 아이, 제사(祭祀)도 안 지내야지 왜 지내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 된 도리죠. 잘됐든 못됐든 자식이 된 도리예요. 묵은 빚 갚아야죠, 은혜를. 자기가 은혜를 못 갚으면 자기 대에서 또 자기 은혜를 갚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그러니 허명무실하게 떠넘기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것도 여기 상을 차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라도 뜻있게 해서 이 세상의 중생들을 다 먹이고도 떡 한 그릇이 되남도록 하라 이런 겁니다. 물과 초, 향 그거면 족하지 뭐가 더 필요하냐. 모든 빗방울이 바다로 들어간들 빗방울이라고 하겠습니까? 바다의 물이라고 하지. 수만 개의 영령들을 한 마음에다 집어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럭하면 더 집안이 깨끗하고 더 청정합니다.

천도를 스님네들한테 청하되 무엇을 많이 차려놓는 걸 바라지 마십시오. 찹쌀가루를 해서 재사 지낼 때 뚱그렇게 그냥 부쳐서 아홉 조각 아니면 일곱 조각, 일곱 조각 아니면 세 조각 이렇게 해서 놓고 초, 향, 물 이렇게만 해놓고 지내신다면 그것으로써 족합니다. 환란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나물 먹고 떡 먹고 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렇게 하는 의식들은 벌써 그건 아주 하의 중생들의 얘깁니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상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떡, 밥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듭니까? 그 의식을 떠나지 못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놓고 마음속으로 예배를 올리면, 그리고 절 삼정례를 할 때에 맨 끄트머리에 모든 것을 한데 모아서 내 한 마음 주인공에 모든 걸 맡겨 놓고 일어난다면 아주 그것이 극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천도를 시켜 달라고 할 때 스님네들이 어떻게 하든 그것을 상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떡 한 그릇을 놓고 하든지 물 한 그릇을 놓고 하든지. 외국에서 천도를 시켜 달라고 그래서요, 초하고 물하고 향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 아니라도 되는데 그거라도 방편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날 저녁에 틀림없이 나타나서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벌써 영령들은 알거든. 그렇게 해서 지내 주고 다녔지, 그 뭐, 다니면서 목탁 들고 다녀, 무슨 뭘 들고 다녀?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을 때 한국에서 천도해 달라고 보내도 '알았다'고. 그게 천도지 뭐 다른 건가.

내 마음이면, 이 마음이라는 이 자체는 아주 작다면 작고, 없다면 없고, 있다면 이 삼천대천세계를 싸고도 남아. 그러니 그 관습에 젖어서 무슨 이사를 갈래도 못 가고 날짜를 봐야 하고, 제사를 지내도 왕창 차려놓고 해야 하니까 "그냥 바쁘기는 한데 이런 거 해야 하고, 아휴, 제사가 왜 이렇게 많아?" 하고 그냥 잔소리, 군소리 죄 할 거 다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군소리 할 것도 없고 바쁠 것도 없고 그리고 정성은 정성대로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처럼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지 않으면 못 사는 세상에. 그러니 시대가 발전이 되고 과학, 의학 모든 것이 발전이 된다 하면은 우리 인간도 좀 달라져야 그 발전에 대비를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발전이 돼야 모든 게 물질도 발전이 돼서 나오죠. 마음의 발전이 없는데 어떻게 물질이 발전이 돼서 나오겠습니까?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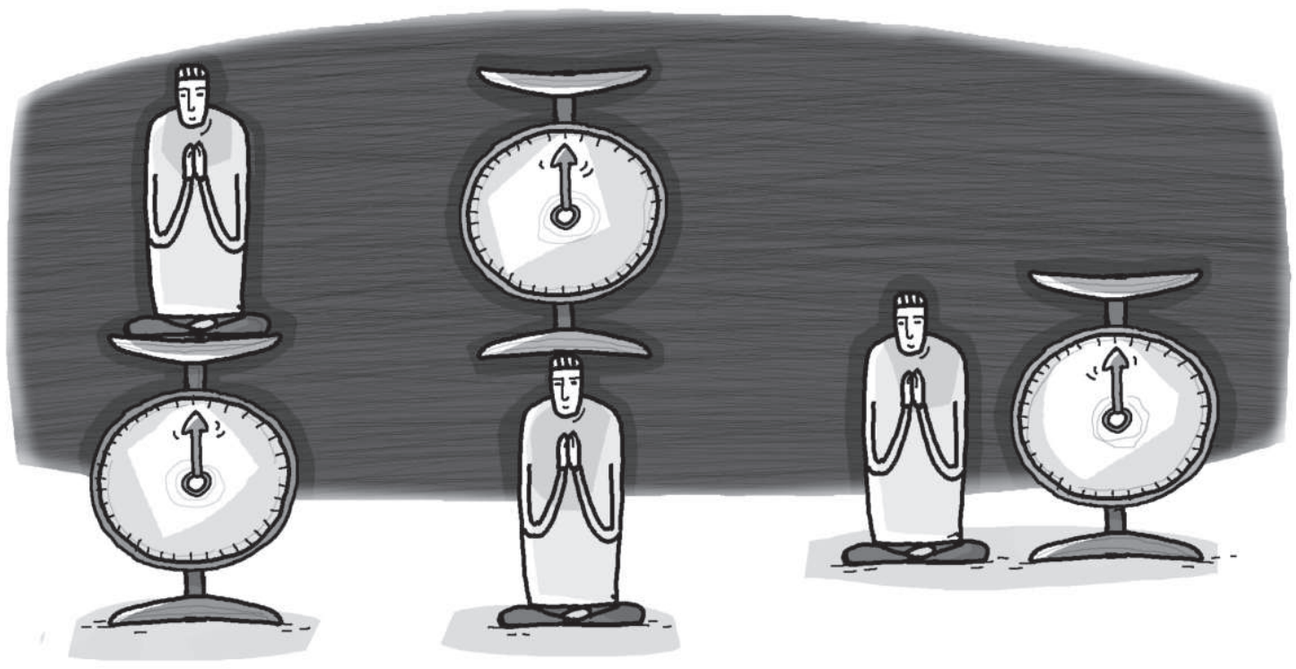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1(남)** 오늘 네 가지를 스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주인공에 놓고 맡기는 것 외에는 별도의 수행 방법을 강조하시지 않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좌선이 좋은 수행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생활이 곧 참선이다 하는데, 과연 생활 중의 모든 언행을 곧 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얼른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생활이 곧 참선이라는 스님 말씀의 참뜻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아이참, 그저 평상시에도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건데….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있다면 선생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죠. 일상생활의 일거일동말입니다. 이 세상이 형성된 것부터 죽는 것 사는 것,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것 전체 말입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자기, 자기가 하죠. 자기가 하고 자기가 내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앉아도 참선이요, 서도 참선이요, 누워도 참선이요, 또 일을 해도 참선이요, 행선 와선 입선 좌선 다 한데 합쳐서 생활하는 자체가 그대로 참선이다 이런 소립니다. 그러니 그거를 일일이 따지지 마시고 일상생활의 모든 걸 내 마음속에서 한다, 그냥 들이고 내는 것이 한마음이다 이런다면, 그냥 거기다가 놓고 돌아가면, 믿고 놓으면 그냥 이것저것 따로따로 챙길 게 없이 그대로 놓고 가면 그것이 참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렇게 놓는 반면에 그렇게 놓고 지켜보고, 지켜보는 게 바로 관하는 겁니다. 지켜보고 체험하는 그것이 참선입니다. 뭐, 별다른 게 참선이 아닙니다. 내게 일일이 다가오는 거 그저 거기다 맡겨 놓고…. 즉 말하자면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봤는데요, 차가 망가져도 운전수 탓이고, 차가 받혀도 운전수 탓이지, 차를 가지고 누가 말하는 사람 없더라고. 차 운전수 붙들고 야단이지. 하하.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몸뚱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운전수. 그러니깐 그 운전수가 모든 걸 해 나가는 거니까 운전수에다 모든 거를 한데 모아서, 그냥 모으고 안 모으고도 없어요. 거기 놓고 그냥 돌아가는 그것이, 그러고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나 몰라라 거기다가 그냥 '너 알아서 해라, 너 알아서 해라' 이러고 가도 아니 되고, 허허허, '너만이 할 수 있어. 너만이 할 수 있어. 가고 오는 것도 다 너만이 알고 너만이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어. 이끌어 가게 할 수 있어. 이끌어 갈 수 있어.' 하는 거지.

**질문자1(남)** 두 번째는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붙잡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짐작하기로는 여여하게 자유인으로 행하라는 뜻으로 사려되옵니다만, 그렇다면 마구니가 온다 해도 막지 않고 부처가 간다 해도 붙잡지 않는 것인지 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큰스님**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요, 가는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마음이 발전이 돼야 물질도 발전이 돼서 나옵니다

☞ 19면에서 계속

것 일부러 그냥 쫓아가서 잡고 이러기보다는 가는 거 잡지 않고 오는 거 막지 않고 무조건, 하다못해 부처가 온다 하더라도 꿀떡 삼킬 수 있고 또는 마구니가 온다 하더라도 꿀떡 삼킬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건 뭐든지, 하다못해 소를 한 마리 잡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꿀떡 삼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깨닫지 않으면 그 도리를 납득을 못 합니다. '가는 거 잡지 않고 오는 거 막지 않는다.' 이 뜻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을 하자면, 즉 말하자면 지금 말했듯이 어떠한 거든지 걸려서 안 된다. 그냥 놓고 가는데, 그 가는 것도 오는 것도 그대로 법인데 뭣 때문에 간다 온다 야단법석을 하겠습니까? 공부하는 도중의 수행자는 그렇다 이겁니다.

**질문자1(남)**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공에게 맡긴다, 주인공을 관한다고 할 때에는 맡기는 자와 맡는 자, 관하는 자와 관하는 대상이 둘이 아니라 하나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을 '주인공 당신'이라고 하게 되면 마치 주인공이라는 대상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맡기고 그것을 관하는 줄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주인공' 자주 생각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공을 대상화하여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큰스님** 그러게 누가 상대를 두고 해 달라고 '주인공, 해 주시오.' 하고 하라고 했습니까? '네 몸뚱이 고장 났으면 네가 고쳐서 끌고 가라.' 이렇게 놓으라고 그랬지. 하하하.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해결해라.' 그러고 놓으라고 그랬지. 그리고 '네가 벌여 놓은 거니까 네가 수습해라.' 하고 놓으라고 그랬지. 하하하.

그것이 마음 없는 마음이 다스리는 겁니다. 이 모두를 둘로 보지 마세요. 이 주인공을 상대로 놓고 해 달라고 한다면 아니 됩니다. 그거는 벌써 잘못 들어가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네 몸뚱이 이렇게 만든 것도 너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너니까 네 몸뚱이 네가 끌고 가려면 건강하게 끌고 다녀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놓을 수 있고, 그 놓을 수 있는 마음이 믿음직해야 됩니다. 그냥 장난기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해 버리는 그런 거는 핀트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로 보지 말고 열심히들, 어떠한 거든지 둘로 보지 마시라 하는 그런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해 드렸습니다. 수억겁 광년으로부터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광력을 찾고, 이 모든 진화를 찾고 형상을 찾고 이렇게 해서 돌아온 이 자체를 볼 때에 만나서 헤어졌으면 또 딴 걸로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또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해 왔으니, 지금 생각을 한대도 어떠한 부모가 됐을 때 부모라고 하고 어떠한 자식이 됐을 때 자식이라고 할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는 거고 내 형제 아님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모습은 다를지언정 그 마음이야 어찌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말입니다.

**질문자1(남)** 네 번째는 오조 홍인 대사께서 육조 스님께 의발을 전하신 뒤 길을 떠나라고 하시니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품을 회(懷) 자가 든 고장에서는 머물고 모을 회(會) 같은 데는 감추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인 대사께서 하신 말씀을 큰스님의 뜻으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큰스님** 이거를 뜻으로 생각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는 그건 자기가 가는 거지 누구가 대신 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마음에 뿌리와 나뭇가지, 잎새, 열매가 모두 익어서 제대로 맛을 아는 자에게, 그 도리를 아는 사람한테는 행해 주고, 즉, 행하고 거기 머무르고, 또 그냥 겉탕으로 이렇게 모일 때는 감추어라. 즉 '자기가 행하지 마라' 이 소립니다. 이게 이 속마음을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 앞에는, 듣고 받아들이고 하는 자에게는 머무르지만 이게 겉탕으로 모여서 흉이나 하고 그러는 자에게는, 겉탕으로 하는 자에게는 아예 말문을 열지 마라, 감추어라 이 소리거든요. '그래, 어디 간다 하더라도 네가 알아서 그렇게 해라. 그 자리가 바로 네 자리니라.' 이런 거거든. 말은 할 줄 몰라도 뜻은 알지 않습니까? 하하하.

그러게 이 마음공부를 이끌어 가는 이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알고 보면 오히려 더 쉬운 일이죠. 세세생생에 끄달리고 돌아가면서 이 모습으로 태어나고 저 모습으로 태어나면서 이렇게 하기보다도 거기에서 그냥, 여러분이 오신통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도 훌쩍 벗어난다면 견우와 직녀 속에서 훌쩍 벗어나는 겁니다. 예.

**질문자2(남)** 지난번에 주지 스님께서 울산에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회사에 출근해 가지고 퇴근할 적에 불상인 부처가 탁 나타났습니다. 도로를 건너는데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 이게 뭔가.' 하고 찾으려는데, 계속 찾으려는데 못 찾았다가 오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서 찾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낳고 일찍 세상을 버렸습니다. 그게 한 네 살쯤 되었습니다. 그래 한 네 살쯤 돼서 혼자 걸어 다니면서 놀잖아요. 노는데 새로 처녀가 시집을 와서 나를 키웁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노는 걸 보면 혼자 있는데 꼭 둘인 것처럼 얘기를 계속하더랍니다. 아, 이게 뭔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알았다 이겁니다. 집안에서는 엄마 없이 혼자서 큰다고 맨날 불쌍하다 불쌍하다 이겁니다. 만날 "불쌍해라, 불쌍해라" 이거야. 그런 말을 흔히 하죠, 그죠? 아, 이 도리를 오늘 스님한테 받아 듣지 못하였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둘로 안 보고 하나로 딱 볼 적에는 전부가 나의 화신이요, 보살이라 미리미리 보여 줬는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이게 맞습니까?

**큰스님** 예, 하하하.

**질문자2(남)** 어쨌든 간에 지금 알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잊어버립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도로를 건널 적에 부처가 나타난 거하고 그때 "불쌍해라, 불쌍해라" 한 그 소리가 '불상을 네가 해라' 이 소리가 아닙니까?

**큰스님** 허허. 그것도 아니에요.

**질문자2(남)** 그것도 아닙니까? (대중 웃음) 그래 가지고 쭉 있다가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너는 머리 깎고 스님이 돼야 네 소원을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아버지가. 그것도 가만히 연관시켜 보면 그것도 둘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리로 가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내가 불법을 늦게 만났더라도 이 길을 난 분명히 가야 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정 정리도 이제 어느 정도 다 돼 갑니다, 이제. (대중 웃음)

**큰스님** 이거 보세요. 앞의 거를 해결을 못 하고, 저 먼 데 거를 해결을 하려면 안 되십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그렇게 갈 거는 간다 하더라도 지금 댁의 가족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버리고 뭘 찾으러 가십니까?

**질문자2(남)** 아뇨. 곧 다 됐습니다. 스님은 여기 앉아 계셔도요, 우리집 형편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큰스님** 그리고 그 마음에서 지금 그러한 도리를 아신다니깐 망정이지, 만약에 화해서 자꾸자꾸, 한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됐다 남편이 됐다 이러듯이 그 마음속에서도, 이 주인공 속에서도 그저 이게 됐다가 저게 됐다가, 거지가 됐다가 마귀가 됐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거에 자꾸 속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질문자2(남)** 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요 며칠 전에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 두 남매가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모릅니다. 부아를 돋우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일이 말로 해 가지고는 안 되고 해서 내 생각을 했습니다. '요놈, 또 내 화신들이 나를 속이는구나.' 하고 돌리니까 조용하더라 이겁니다. 그런 것도 있데요.

**큰스님** 하하하. 예, 참 잘됐습니다.

**질문자2(남)** 오늘 밧데리 보충 멋들어지게 하고 갑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백지 한 장에 그림 한 장 그려 가지고 울산에서 팩스로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스님** 하하하. 그림 그릴 것도 없습니다. 잘하고 가시는군요.

**질문자3(여)** 오늘 스님을 뵈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몸이 자꾸 말을 안 들어서, 스님, 조금만 용기를 좀 주옵소서.

**큰스님** 몸하고 마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공부하는 데. 물론 이 몸이 아프면 마음이 허황돼지고 그렇게 되지만, 진짜로 믿고 진짜로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아픈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다가 그냥 맡겨놔 버리고 그대로 '네 몸뚱이, 네가 형성시킨 네 몸뚱이 네가 끌고 다니는 건데 건강하게 끌고 다니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하고 거기다 맡겨 놓고 가는 길이지 뭐, 공부하는 데 무슨 뭐가 그렇게 걸립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 이것을 하는 데 대해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열심히, 어떠한 게 닥친다 하더라도 공부하는 재료로 알고, 어떠한 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발전하는 데 기본적인 모든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모든 거를 해 나간다면 정말 용기 잃지 않게끔 벌어질 겁니다. 모두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공부란 정말이지 역대의 조사들과 부처님이 그렇게 일컬어서 길을 인도하신 이 마음의 공부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공부를 해 나가면서 체험하고 나가다 보면 이 세상살이가 전부 팔만대장경입니다. 어떻게 다 써 놓겠습니까? 과거도 미래도 변치 않고 오늘도 공해서 돌아가는 이 자체, 이 진리가 그대로 팔만대장경인데….

여러분, 모두 이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이 살아나가는 데 어떠한 고통, 어떠한 병고, 어떠한 재난 이런 것들을 자신들이 모두 커버해 나가면서, 내 진짜 참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지름길로 나가는 공부를 하는 것이니 열심히들 하십시오.

>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체험하고 나가다 보면
> 이 세상살이가 전부 팔만대장경입니다.
> 어떻게 다 써 놓겠습니까.
> 과거도 미래도 변치 않고 오늘도 공해서 돌아가는 이 자체,
> 이 진리가 그대로 팔만대장경인데….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2년 8월 16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공감으로 소통하는 어르신 상담의 길

⑮ 상실의 슬픔 넘어, 상처받은 마음 보듬는 길

#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아 두렵습니다”

**깊은 상실과 고립**

상담실을 찾은 김상담 어르신(남·70세)은 아주 젊고 독특한 옷차림이셨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상담자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불안하게 떨궜습니다. 어르신의 삶은 10년 전 가족에게 일어난 사고로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학에 다니던 자랑스러운 자녀를 불의의 교통사고로 떠나보냈고,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 아내마저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형제에게 갖고 있던 재산을 빌려줬으나 이후 연락이 끊겼고, 결국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채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벼랑 끝에서 보내는 SOS**

어르신은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안장애로 5년째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고 식은땀이 흐르는 공황 증세와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약물을 과다 복용하기도 했고, 119 관제센터나 자살예방 상담 전화에 위급함을 호소해 수차례 구조대가 출동하는 아찔한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 대인기피증으로 은둔하면서도, 하루에 한 끼조차 제대로 챙겨 먹지 않고 빈속에 약만 털어넣다가 심각한 영양실조와 빈혈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습니다.

**‘나만의 세계’를 향한 열망**

끝없는 어둠 속에서도 어르신의 마음 밑바닥에는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의지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산이나 공원에서 독서를 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고, 우울증과 마음의 고통을 다룬 심리학 책들을 찾아 읽으며 스스로 치유하고자 끊임없이 애썼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원에 다니지는 못했지만, 홀로 붓을 쥐고 수채화를 그린 풍경화는 강사로부터 “아주 수준급”이라는 찬사를 받을 만큼 탁월한 손재주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악기 솔로 연주를 찾아 듣고 직접 작곡을 해보며, 언젠가 작은 공연장을 빌려 독주회를 열고 싶다는 작은 희망도 품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겠지만, 계속 그 빈 공간에 머물러 있으면 ‘나라는 세계’는 사라지잖아요. 이제는 내 생활을 찾고 고향에 가서 후회 없이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상실의 늪을 건너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서고자 하는 확실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나 좀 돌봐주세요’**

어르신이 나이에 맞지 않는 청년 옷차림을

**가족 상실로 트라우마와 고통 커**
**‘돌봄과 관심에 대한 갈망’ 숨겨**
**정서적 지지로 어르신 감싸안아**

고수하는 것은, 불안정한 내면을 단단히 붙잡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위한 무의식적인 방어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상담을 통해 과거 경험을 과장하거나 상반된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 역시, 거짓말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나의 고통을 제발 알아봐 달라”는 마음속 깊은 표현이었습니다.

어르신의 마음은 어린 시절 엄한 가정환경에서 비롯된 불안정한 애착과 갑작스러운 가족의 상실로 인해 ‘주변의 돌봄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상처받을까 두려워 먼저 거리를 두고 도망치는’ 무의식적인 태도로 이어졌고, 이는 어르신을 깊은 혼란 속에 빠뜨렸습니다.

이에 이번 상담에서는 어르신의 상담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를 따지기보다, 그 속에 담긴 두려움과 외로움을 온전히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정서적 지지가 최우선이었습니다. 지역 내 주민센터의 정기적인 안부 확인, 지역복지관의 자원 연계, 그리고 상담을 통한 정기적인 지지 상담이 한데 어우러져 어르신을 든든히 감싸안는 안전 기지가 돼야 했습니다.

**내 안의 평온한 쉼터 찾기**

어르신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비관 속에서 스스로를 ‘쓰레기 인생’이라 자책하며 몸과 마음을 가혹하게 방치해 왔습니다.

초기불교 경전인 〈숫타니파타〉 ‘화살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목숨은 덧없고 정해진 바가 없나니, 슬퍼하고 한탄할수록 몸은 야위고 고통만 더할 뿐이다. 스스로 가슴에 꽂힌 슬픔의 화살을 뽑아내고 마음에 평정을 얻은 자만이 비로소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가족의 부재는 피할 수 없는 커다란 상실이었지만, 그 비탄에 얽매여 스스로 끼니를 거르고 삶을 파괴하는 것은 가슴에 박힌 슬픔의 화살을 더 깊이 넣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을 먼저 떠난 가족들이 하늘에서 어르신을 바라볼 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남겨진 어르신이 자책 속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겨 먹으며 스스로를 소중히 돌보는 일일 것입니다.

이제 무겁게 짓누르던 슬픔의 화살을 조용히 뽑아내고, 거친 세상에서 홀로 버텨온 어르신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다정하게 안아줄 때입니다. 규칙적으로 숨을 고르고, 따뜻한 온기를 스스로에게 건네며 일상을 한 걸음씩 회복해 나갈 때 그 자비로운 돌봄의 여정이 펼쳐질 것입니다.



함상원 서울노인복지센터 부설 서울어르신상담센터 실장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㊴ 음식과 약의 궁합

# 계장과 곶감의 진실

한가한 주말 오후 TV 채널에서 영화 ‘사도(2015)’가 상영되고 있었다. 영화 시작 무렵 영조가 능으로 향할 때, 누군가가 뛰어들어 “선왕을 독살한 살인마가 어찌 왕의 자리에 올랐느냐!”며 외치는 장면이 나왔다.

‘이건 무슨 소리지? 영조가 선왕을 독살했다고?’ 이 내용이 궁금해 찾아본 역사는 생각보다 흥미로웠다. 조선 20대 왕인 경종은 재위기간이 4년 정도로 짧았고 의문의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 그 사인을 두고 많은 설이 존재한다. 실록 기록에 따르면, 경종은 평소 지병인 종기로 고생하고 있었고 뒤를 이을 아들도 없었다. 경종이 병석에 누워 있을 때, 당시 세제(왕의 후계자이자 동생)인 연잉군(영조)이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며 게장과 생감(곶감)을 올렸다고 한다. 이를 잡숫고 난 경종은 극심한 복통과 설사 등 심각한 병세 악화를 겪었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궁합이 안 좋은 음식의 대명사가 바로 ‘게장과 곶감’이 됐고, 요즘도 인터넷상에서 궁합이 나쁜 음식을 뜻하거나 독살을 암시하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음식과 음식의 조합으로 치명적인 독약을 만들기는 어렵다. 하지만 독약까진 아니더라도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식과 약’의 조합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자몽주스와 고혈압·고지혈증 약을 둘 수 있는데, 자몽주스는 이 약들이 간에서 분해되는 것을 억제한다. 이로 인해 약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여러 가지 부작용의 위험이 커진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근육 통증, 저혈압 등이 있다.

그리고 심혈관 문제로 스텐트 시술을 받은 분들은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데, 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시금치, 브로콜리 등 비타민K가 풍부한 녹황색 채소의 섭취를 피해야 한다. 비타민K는 혈액을 굳게 하는 작용을 하는데, 피가 굳지 않게 하는 약인 와파린을 복용할 때, 비타민K가 풍부한 음식을 과다 섭취하면 약효가 떨어져 혈관이 막힐 위험이 높아진다.

또한, 각종 감염증에 쓰이는 테트라사이클린계나 퀴놀론계 항생제의 경우 칼슘, 철분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약과 미네랄이 엉겨 붙어 소화관에서 흡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항생제는 우유 같은 유제품이나 칼슘이 풍부한 과일주스와는 함께 먹지 않아야 한다. 테트라사이클린, 퀴놀론이 뭔지 고민하고 찾아보지 않아도 된다. 그런 약을 처방받을 때 약국에서 약사님이 우유나 칼슘과 함께 먹지 말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테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감기약이나 진통제는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와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감기약이나 진통제에는 카페인 성분이 포함된

**고혈압약 자몽주스와 함께 먹어선 안 돼**
**와파린 등 항응고제, 녹황색 채소 피해야**
**철분제, 오렌지주스나 비타민C 조합 권장**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까지 더해지면 카페인 과다 섭취가 되어 불면증, 심장 두근거림, 현기증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궁합이 좋은 대표적인 음식과 약의 조합은 뭘까?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 너무나 당연해서 의식조차 하지 않았던 기본적인 조합인 ‘물과 알약’이다. 미지근한 물 한 컵은 약이 식도에 걸리지 않고 위까지 부드럽게 도달하도록 돕고, 약이 위장에 잘 녹아 흡수되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준다. 실제로 신약을 개발할 때도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가정해 약이 가장 잘 흡수되도록 약의 구성 성분을 조합한다.

다음은 기름진 음식, 즉 든든한 식사와 지용성 비타민(비타민A, D, E, K) 및 일부 성분의 무좀약(이트라코나졸) 조합이다. 이러한 약물들은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지므로 식사 도중이나 식사 직후에 약을 복용하도록 알려준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주스와 철분제를 함께 먹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철분은 흡수율이 낮은 대표적인 영양소인데, 비타민C는 철분이 몸에 잘 흡수되는 형태로 변화시켜 준다. 따라서 철분제를 복용할 때 오렌지주스나 비타민C를 곁들이면 철분의 흡수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다시 옛날이야기로 돌아가서, 경종의 독살설은 약사인 내가 보기엔 우연이 겹친 사고였을 가능성이 높다. 게장과 곶감을 함께 먹어 치명적인 독극물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이미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위장 기능이 약해져 있던 경종에게 게장과 곶감이라는 찬 성질의 음식과 소화가 부담스러운 단백질과 당 조합이 들어가다 보니 심한 소화불량, 나아가 장염이나 식중독을 일으켜 그 죽음의 시기가 조금 일찍 찾아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혹시라도 이 내용을 오해해 ‘내가 죽도록 미워하는 상대를 간장게장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대접하고 우연인 척 후식으로 곶감을 먹이면, 쥐도 새도 모르게 해코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제발 하지 마시길 바란다. 간장게장은 비싼 음식이다. 식사 값만 부담하고 미운 상대에게 맛있는 식사에 후식까지 넉넉하게 대접하는 꼴이 될 뿐이니 말이다.

이런 헛생각을 하다 보니 영화는 이미 끝나 있었다. 영화 내용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경종 독살설 같은 역사의 진실은 알 수가 없지만 덕분에 약물의 상호작용과 약과 음식의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기회가 됐으니 영화는 제대로 못 봤더라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현대불교신문

구독료 자동이체 신청 & 신규 구독 감사 이벤트

더 편리한 구독, 더 좋은 인연

지로 독자 자동이체 전환
매월 구독료 납부를 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구독료 자동이체(CMS)로
간편하게 이용해 보세요.

신규 구독 독자 선물
현대불교신문 신규 구독 신청 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자동이체 전환 및 신규 구독 신청시
지구사랑실천 ‘친환경 EM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대상 자동이체(CMS) 전환 독자 / 신규 구독 독자

문의 02-2004-8212

**우리 복지관은 지금** 16. 중림종합사회복지관

# 전통주를 문화 자산으로 잇는 '약현'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의 '약현'에서 시니어 문화전승가가 전통주 시음회를 진행하는 모습.

서울 중림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과 마을을 잇는 LINK'라는 슬로건 아래 '함께하는 돌봄, 순환하는 나눔, 건강한 관계망, 성숙한 주민'을 비전으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전통주 문화플랫폼 약현'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복지관이 위치한 중림동의 옛 이름인 '약현(藥峴)'은 약초가 많이 나는 언덕이라는 뜻으로, 예로부터 약주(藥酒)가 빚어지던 곳으로 전해진다.

약현은 지역 어르신이 오랫동안 쌓아온 삶의 경험을 지역 문화 자산으로 환원하는 공간이다. 단순히 술을 판매하는 곳을 넘어, 어르신들이 직접 전통주를 큐레이션하고 술에 담긴 이야기를 전하는 문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약현의 중심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어르신들이 있다. 복지관은 이들을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넘어 '시니어 문화전승가'라고 부른다. 잊혀가는 우리 술에 담긴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 건네는 문화적 주체의 의미를 담았다.

시니어 문화전승가들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매장을 운영한다. 매장 관리와 전통주 판매뿐 아니라 지역 주민, 인근 직장인, 관광객 등 다양한 세대와 국적의 방문객에게 우리 술 문화를 소개하고 그 이야기를 이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 역량도 필요하다. 어르신들은 술의 바탕이 되는 누룩과 발효 원리부터 지역별 전통주의 특성, 향과 맛을 음미하며 즐기는 방법까지 전통주 전문 교육을 이수했다. 방문객에게 술 한 병을 건네더라도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빚었는지, 어떤 향과 맛을 지녔는지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이 같은 활동에는 어르신들의 노력이 담겨 있다. 어르신들은 매주 회의를 통해 어떤 술을 전시할지, 어떤 이야기를 통해 술을 소개할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한다.

김연화 어르신은 "약현에서 새롭게 만난 사람들과 함께 일까지 할 수 있어 감사하고, 이전과 다르게 항상 하루가 짧고 재밌다"고 소감을 전했다.

약현은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지난 7월에는 전통주 기업 국순당과 업무협약을 맺고 양조장 탐방과 판매 자문 등 전통주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지역 축제 참가와 백화점 팝업 스토어 입점도 계획 중이며, 어르신이 진행하는 전통주 원데이 클래스도 기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 중림동 일대에서 빚어진 것으로 전해지는 '약산춘(藥山春)'을 직접 만들어 그 의미를 복원하고 조명하는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흔히 노년 시간을 '여생'이라 부른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약현에서 지역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주체적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 술 한 잔에 담긴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약현의 문을 두드려 보자. 어르신을 돌봄 대상이 아닌 지역 문화 주체로 만날 수 있다.



**조혜진**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전략기획팀 대리

**대만불교 포교일기** ⑧ 화합과 청정의 선거: 불광산의 종무위원회와 종장 선출

# 대중공의와 민주주의 결합 선거 시스템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불교계 안팎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뜨겁다. 그래서 최근엔 불광산은 어떻게 선거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필자에게 많이 질문하시곤 한다.

불광산의 창건주 성운 큰스님께서는 승가의 가장 큰 덕목을 '화합(和合)'과 '청정(淸淨)'으로 보셨다. 세속의 선거 제도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면 권력욕과 금권, 편 가르기가 승단 내로 침투해 승가의 본질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계하셨다.

이에 성운 큰스님께서는 부처님 당시의 대중공의 전통과 현대 민주주의의 합리성을 결합해 불광산만의 독창적인 선거 시스템을 완성하셨다.

불광산의 종무위원 및 종장(宗長·주지) 선출 제도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대중 대다수에게 열려 있는 광범위한 투표권이다. 불광산에서는 특정한 소수 권력층이나 대의원 몇몇이 지도부를 독점하지 않는다. 일정 계급 이상의 법계를 받은 출가 스님들 대부분에게 동등한 투표권이 부여된다. 불학원(강원)을 졸업한 스님들은 대부분 투표권이 있다. 이는 교단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사부대중의 뜻을 폭넓게 반영함으로써, 지도부가 전체 구성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

둘째, '출마(出馬)'가 없는 자격 명단 공개 방식이다. 종무위원회(宗務委員會) 선거는 후보자가 스스로 "내가 출마하겠다"고 선언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이 일절 없다. 대신 계율과 법계, 인품, 행정 역량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한 '선출 자격 대상자 명단'을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다. 투표권을 가진 대중은 이 명단을 보고, 계파나 사리사욕이 아닌 오직 교단의 발전과 대중을 위해 헌신할 적임자를 각자의 소신껏 투표로 선출한다. 후보자가 나와 과열된 세 대결을 벌이거나 비방전을 펼칠 여지 자체가 원천 차단되는 셈이다.

**일정 법계 이상 스님 대부분에 투표권**
**출마자 없이 종단이 자격 명단 공개해**
**만 65세 이상 제한해 세대교체 이끌어**

셋째, '만 65세 연령 제한'을 통한 건강한 세대교체다. 불광산 규정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이 되면 종무위원이나 종장 선출 자격 명단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 연로한 원로 스님들이 교단의 행정 실무를 맡는 것을 방지하고 교단 리더십의 정체를 막기 위함이다. 원로 스님들은 장로원의 어른으로서 교단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맡아 감독과 조언을 담당하고, 교단을 이끄는 행정과 전법의 일선은 에너지가 넘치고 현대적 감각을 갖춘 중간 세대 스님들에게 내어주는 구조다. 이를 통해 교단은 늘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13명의 종무위원이 선출되고, 그 종무위원회의 장이 종장, 불광산의 주지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성운 큰스님께서는 한창 활동하실 연세에 종장직을 내려놓고 후학들에게 자리를 물려주셨으며, 현재 불광산의 종무위원회 역시 젊고 능력 있는 스님들이 대중의 정당한 투표를 통해 선출돼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선거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승가의 청정함을 지키고 중생을 위해 봉사할 일꾼을 대중의 뜻으로 추대하는 거룩한 과정이어야 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라는 큰 경사를 앞두고, 불광산의 종무위원회 및 교단의 최고 리더인 종장 선출 제도가 한국불교계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



**혜호 스님**
서울 불광산사 주지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 ㉚ 법신의 광휘로 감싸인 부처님

오대산 월정사의 개산조는 신라의 대국통 자장 스님이다. 자장 스님은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 중국 오대산을 순례했다. 이때 문수보살의 진신을 뵙고, "그대의 본국 동북방 명주 경계에 오대산이 있는데, 1만 문수보살이 항상 머물러 있으니 가서 뵙도록 하라"는 부촉을 받았다.

신라로 돌아온 자장 스님은 문수보살을 친견하기 위해 오대산 기슭에 띳집을 지었다. 이 띳집이 오늘날 월정사다. 이와 함께 오대산 자체가 문수보살의 현신으로 믿음의 대상이 되는 '성지신앙'의 문이 열렸다.

성지신앙 즉 보살주처신앙의 근거는 〈화엄경〉 '보살주처품'이다. 〈화엄경〉 '보살주처품'에 나오는 '청량산'이 중국 오대산으로 비정됐고, 자장 스님에 의해 신라 불교의 문법으로 번안돼 우리나라 강원도에 오대산이 탄생한 것이다. 오대산은 화엄의 산이다.

월정사의 주불인 '적광전'에는 통례와 다르게 비로자나부처님이 아니라 석가모니부처님이 모셔져 있다. 한국전쟁 때 불탄 칠불보전을 1968년에 다시 세워 대웅전이라 했으나, 화엄 종장 탄허 스님을 기리기 위해 적광전으로 이름을 고쳤다. 다시 말해 석가모니불을 모신 집을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 그 자체, 법신의 광휘로 바꿔놓은 것이다. 탄허 화엄학의 산실다운 발상이다. 월정사 적광전 꽃살문, 진리의 당체로서 법신의 메타포다.

**손영자 작가**



월정사 적광전.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 겨우살이환 | 여 주 환 |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
|---|---|---|
|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
|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 골담초환 | 산수유환 | 어성초환 |
|---|---|---|
|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
|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 | | |
|---|---|---|
| 가루자죽염 | 125g | 45,000원 |
| 가루자죽염 | 230g | 82,000원 |
| 알갱이자죽염 | 125g | 50,000원 |
| 알갱이자죽염 | 230g | 90,000원 |
|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 20g | 9,000원 |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 | | |
|---|---|---|
| 보급형 민속죽염 | 500g | 20,000원 |
| | 250g | 10,000원 |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 의존의 두 얼굴

현불논단



효록 스님
다르마심리상담명상센터 대표

우리는 혼자 결정하기 어려워 누군가에게 답을 구하거나, 힘들 때마다 가까운 사람을 찾는 모습을 보면 "의존적"이라고 말한다. 그 마음에는 상대에게 기대어 불안을 달래고 안심하려는 '나를 돌봐 줘'라는 바람이 있다. 그런데 또 다른 의존의 얼굴이 있다. 상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됨으로써 관계의 안전과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는 마음이다. 이 마음은 때로 사랑과 헌신, 타인을 돕는 모습으로 나타나기에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다. 어린아이에게 '나를 돌봐 줘'라는 마음은 나약함이 아니라 생존과 관계를 위한 자연스러운 욕구다. 브룩 피니는 필요할 때 충분히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일수록 오히려 스스로 서고 세상을 더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므로 성숙은 필요할 때 기대고 힘을 회복하면 다시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에 가깝다.

어린 시절 자신의 욕구를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웠거나, 돌봄 받기보다 주변 사람의 감정과 필요를 먼저 살펴야 했던 경험이 반복됐다면, 마음에 다음의 공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 '내가 당신을 돌보면 당신은 나를 필요로 해요.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하면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되죠.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 밑에는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돌보고 문제를 해결하며 필요한 사람이 되

**상대에 기대려는 의존적인 마음속엔**
**불안 달래고 안정감 얻으려는 마음도**
**'소중한 나' 돌보며 중심 잃지 않아야**

는 편이 더 익숙하고 안전할 수 있다. 그 곁에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돼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상대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두려움과 무가치감이 함께 올라올 수 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내 말을 안 듣지?'라는 서운함과 분노가 느껴진다면,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물론 돌봄에서 오는 소진과 분노가 모두 의존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두 의존을 탱고에 비유해 보자. 한 사람은 "당신 없이는 내가 안 돼"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나 없이는 당신이 안 돼"라고 한다. 서로의 욕구가 맞물려 처음엔 아름다운 춤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상대를 통해 불안을 달래고 안정감을 얻으려 하기에, 한 사람의 불안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관계 전체를 흔들 수 있다.

건강하지 않은 의존 관계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먼저 상대에게 향하던 시선을 자기 내면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돕고 해결하려는 행동으로 곧바로 나아가기 전에,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거나 이 사람이 나를 떠날까 봐 두려운 것은 아닐까?' 하고 마음을 알아차려 보는 것이다. 그리고 차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나를 돌볼 수 있어요." 또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을 도울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대의 손을 잡아 주는 것과 상대가 내 손을 놓지 못하도록 붙잡는 것은 다르다. 필요할 때는 손을 내밀고, 누군가 내민 손을 잡아 주며, 때가 되면 그 손을 놓아줄 수 있는 것. 서로에게 기대면서도 각자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것이 함께 출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춤인지도 모른다.

# 첫사랑 같은 불교

세간과 출세간



이명호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드라망연구소장

며칠 전 조계종연구소에서 발표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KTX를 기다리고 있었다. 플랫폼에서 젊은 남녀 몇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다. 화제는 첫사랑의 경험과 의미였다. 그들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문득 멀게만 느껴졌던 청년들이 가깝게 느껴졌다.

오늘의 청년들을 언론에서는 흔히 'N포 세대'라고 부른다.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 세대'에서 시작된 말이다. 하지만 그날 청년들의 이야기는 달랐다. 교육을 마치고 저녁 늦게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도 첫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실제 조사에서도 청년들은 여전히 연애와 사랑, 결혼을 원하고 있다. 다만 경제적 불안과 주거 문제,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기 어려울 뿐이다. 청년들은 사랑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을 꿈꾸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불교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첫사랑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괴테는 젊은 시절 프리데리케를 만나 사랑하면서 그녀뿐 아니라 그녀를 둘러싼 풍경과 세계를 새롭게 경험했다. 수십 년 후에도 그 만남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중요한 기억으로 남았다. 첫사랑은 누군가를 처음 사랑한 경험이라기보다는 누군가를 만나 이전과 다른 자신과 세계를 처음 발견하는

**불교 교리·문화에 호기심 가진 청년 증가**
**신행 연결 위해 불교공동체 곁 내어줘야**
**청년 포교 방안·방향 제시 총무원장 기대**

사건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최근 청년들이 불교를 만나는 모습도 흥미롭게 보인다. 템플스테이를 찾고, 명상에 관심을 갖고, 불교박람회를 찾아가며, 불교 교리와 문화에 호기심을 보이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물론 이 현상이 청년 불자의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신들의 삶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불교를 청년들이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어쩌면 지금 많은 청년들에게 불교는 '첫사랑' 단계에 있는지도 모른다.

불교와의 첫 만남에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새로워진 자신을 발견한 청년들에게는 그 설렘을 이어갈 관계가 필요하다. 첫 만남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로 이어지려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과 기댈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박람회나 템플스테이에서 느낀 호감이 관심으로 그리고 신행으로 이어지려면, 불교공동체가 그들에게 곁을 내어주어야 한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곁을 내어줄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도 총무원장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총무원장이라는 자리는 한국불교가 사회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를 모색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번에 선출될 총무원장 스님은 사람들이 불교를 처음 만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만남이 오래 이어지게 하는 분이면 좋겠다. 청년들이 불교를 통해 불안과 우울, 경쟁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고, 이전과는 다른 자신을 만나고,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면 좋겠다. KTX역에서 첫사랑을 이야기하던 청년들을 보면서, 이런 불교와 세계를 꿈꿨다.

社 說

# 태고종 연임제, 종도 공의가 기준이다

태고종이 총무원장 임기를 현행 4년 단임제에서 '1회 연임제'로 변경하는 종헌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오는 9월 16일 중앙종회에 상정될 예정인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한 차례 부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단임제 도입 14년 만에 임기제도를 손질하는 만큼, 이번 논의는 태고종의 운영 원칙과 견제와 균형, 종단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태고종이 총무원장 단임제를 도입한 것은 2011년이다. 당시 종단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총무원장 멸빈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장기 집권과 권력 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4년 단임제가 마련됐다. 이후 단임제는 총무원장에게 집중될 수 있는 권한을 분산하고 종단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해 왔다.

**단임제 도입 14년 만의 임기제도 손질**
**충분한 소통으로 종도 공의 담아내야**

그러나 4년이라는 임기 안에 장기적인 종책을 수립하고 성과를 내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임기 후반 레임덕으로 주요 사업의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고, 후임 총무원장이 전임자의 종책을 이어가지 않을 경우 어렵게 추진한 사업이 중단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대정부·대사회 활동과 이웃 종단과의 교류처럼 지속성과 일관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연임이 허용되면 총무원장의 인사·예산·행정권이 장기간 유지되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커질 수 있다. 특히 감사·사정 기능에 총무원의 간접적인 영향력이 장기화되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가 태고종의 현실에 더 부합하고 종단 발전과 종도들의 권익에 도움이 되는지를 냉정하게 따지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종헌 개정 논의는 지난해의 부결 과정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당시에도 중앙종회 내부에서는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종도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토론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종헌은 종단의 운영 원리와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최고 규범이다. 따라서 종헌을 바꾸는 일에는 그만큼 신중한 접근과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특히 총무원장 임기제도는 선거와 권력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찬반 논리를 충분히 공개하고 종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숙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법규위원회가 최근 연임제 개헌을 "시대적 요구이자 숙원"으로 규정하고 종단 발전과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힌 것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원융회가 제기한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 역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양측 모두 종단을 걱정하는 목소리라는 점에서, 어느 한쪽을 배제하기보다 두 입장을 제도 설계에 함께 담아내고 종도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연임을 허용하면서도 권력이 독점되지 않도록 종단 운영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다. 종도들의 뜻을 충분히 묻고 그 공의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할 때, 이번 종헌 개정 논의는 종단의 제도와 민주성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9월 2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9월 2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9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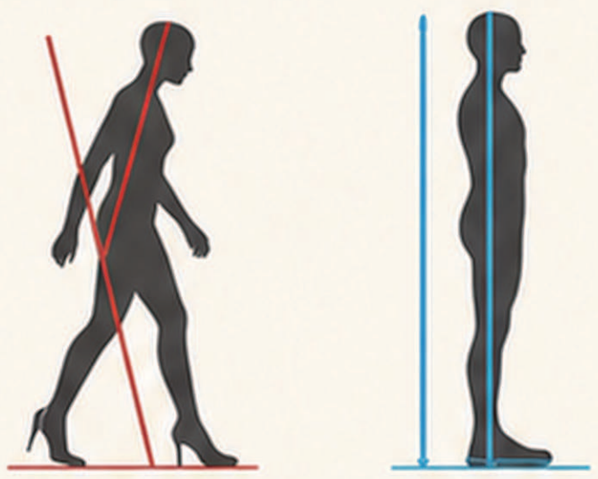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 스님의 건강한 수행을 위한 선택 :

# 제로드롭 회색 장인구두 백중 & 추석 특별 기획전

### 제품 철학 및 설계 (Philosophy & Design)

**‘굽이 높을수록 몸의 중심이 무너집니다’**



인위적인 높이의 엘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신발의 핵심 철학입니다.

**뒷굽 2cm ‘제로드롭(Zero-Drop)’ 설계**




**맨발로 걷는 듯한 건강한 감각**



지면의 감각을 살리면서도 발을 보호하며, 보행 시 마치 맨발로 걷는 듯한 가볍고 편안한 걸음걸이를 선사합니다.



### 엄선된 프리미엄 소재



**최고급 천연 가죽**

부드러운 질감과 우수한 통기성을 가진 천연 염소가죽을 사용하여 장시간 착용 시에도 발이 편안합니다.



**탄성 있는 생고무 밑창**

내구성이 뛰어나고 접지력이 좋은 생고무 소재를 사용하여 미끄러움을 방지하고 보행 시 충격을 효과적으로 완화합니다.

### 기간 한정 특별 판매

**백중 & 추석 특판가 126,000원** (정가 180,000원)

명절을 맞아 **약 30% 할인된 가격**으로 장인의 손길이 담은 건강 신발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매처 : 마하몰 (1688-9099)** 전화 상담 및 온라인 마하몰을 통해 간편하게 주문이 가능합니다.

장인구두 구경하기

고객센터 (02)732-1520 | 인터넷 주문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